



프로그램

사회 :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2:00~2:10 **인사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2:10~3:00 **당사자 발표** n명의 여성, n개의 자립
조윤희 (20대 여성)
최정분 (맞벌이 여성)
박경희 (전업주부 여성)
김윤월 (한부모 여성)
- 3:00~3:40 **발제** 심층면접 분석 결과 발표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 :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현실
공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3:40~4:10 **패널토론**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사무관)
- 4:10~4:40 **종합토론**
플로어 토론
-

참여단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안양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목차

〈토론회 자료〉

- | | | |
|-----|---|-------------------------------|
| 007 | 발 제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 :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현실 | 공 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 085 | 토론 1 현재 소득유무 보다 큰 틀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논의해야 | 정형욱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089 | 토론 2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및 재취업 지원정책 | 이정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사무관 |

〈심층면접 사례〉 n명의 여성, n개의 자립

- | | | |
|-----|--|------------|
| 093 | 20,30대 여성의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 한국여성민우회 |
| 103 | 2015년, 헬조선을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이야기 | 부산여성회 |
| 112 | ‘집에서 노는 여자’와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을 넘어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이야기 | 대구여성회 |
| 121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연구 참여 이주여성들의 이야기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130 | “한부모 경제자립, 너무 힘들어요” | 한국한부모연합 |
| 138 |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한부모 여성 | 안양여성의전화 |
| 146 |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선생님이로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 | 울산여성회 |
| 152 | 40대 경력 단절 전업주부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 대전여민회 |
| 160 | 여성장애인의 자립, 먹고 사는 이야기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 166 |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씩씩한 여성들 | 포항여성회 |
| 172 | 의미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40대 여성들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

자립의 식탁



여성의 먹고사는 이야기

발제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 :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현실

공 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발제

KWAU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 :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현실

공 주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목 차

I. 들어가며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과정
2. 연구대상

III.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현실

1. '경제적 자립'의 의미
2. 아직은 요원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현실
3.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었던 때
4. 여성들의 일자리의 성격
5. 성차별적 노동환경
6.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현실
2. 제언 :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

7

I. 들어가며

한국 여성들의 경제적 현실에 관련된 통계적인 논의는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통계청(2015a)의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만15세 이상)으로는 52.1%, OECD(2015) 기준(만15세~64세)으로

는 57% 수준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군에 속한다. 또, 한국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을 나타내며,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는다.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피고용자 여성들은 파견·계약직이나 시간제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precarious work*)에 주로 종사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OECD, 2014).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제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남성들은 주로 정규직으로 일하며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데에 반해, 여성들은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현실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가 고등교육과 성별임금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종합해 점수로 낸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25.6점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28위를 기록하기도 했다(R,L,W. and D.H, 2015).

8

한편, 가사노동과 육아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부가되고 있다. 지난 6월에 통계청(2015b)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7분인데 반해, 여자는 3시간28분이다.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맞벌이 가구에서 더 벌어져, 약 4.7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을 살아가는 한국의 여성들은 과연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을까? ‘경제적 자립’을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여성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었던 때는 언제일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면 누구로부터 자립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여성들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인적, 가족적, 조직적, 사회적 차원의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위의 질문들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면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이다.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성들이 독립된 주체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있다. 연구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화를 위해서 개인적, 가족적, 조직적, 사회·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여성들의 경험은 단일하지 않다. 연령, 결혼상태, 장애유무, 이주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호교차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욕구가 충돌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정책은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험을 밀도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기반한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화를 위한 정책 의제화는 여성들이 발 딛고 있는 현실과 그 맥락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적 현실을 여성의 생생한 경험과 언어로 드러내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전국의 총 12개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총 66명의 여성들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근거이론연구(grounded theory study)’의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범주화하는 방식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여성들의 공통된 경험을 드러내면서도, ‘교차성(intersectionality)’ 관점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경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분석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에서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여성들의 경험을 직접 청취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 거주하는 총 66명의 여성들이 심층면접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고, 또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응답자들과 비슷한 상황을 공유하는 여성단체의 활동가

들이 면접자로 심층면접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의를 보다 원활하게 한 측면이 존재한다.

게다가 본 연구사업과 연계되어 전국에서 이루어진 ‘토크 콘서트’와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경험을 스스로 이야기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고 공감을 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였다.

둘째, 다양한 상황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들 사이의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이해는 향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관련 운동적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각각의 상황적 특성에 맞는 의제 설정과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화에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과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경험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이해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본 연구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전국 12개 단체(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이상 가나다순) 활동가들이 응답자들을 직접 선정하고, 응답자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추가 면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연구

자가 직접 응답자를 만나 추가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는 본 연구사업을 주관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참여한 전국 11개 단체 등 총 12개 단체의 담당자들이 함께 만나 기획단 회의를 실시하였다. 기획단 회의에서는 심층면접 방법과 지침, 그리고 심층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다룰 주요 내용들을 확정지었다. 각 단체별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응답자로 선정할 것인지 ‘응답자 테마(theme)’를 미리 정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상황의 여성들이 응답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심층면접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① 자신의 경제적 상황, ② 본인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주변에서 주로 듣게 되는 말이나 반응, ③ 경제적 자립의 욕구, ④ 여성이기 때문에 처하게 되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⑤ 경제적 자립의 의미, ⑥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크게 여섯 가지 내용을 담았다.

기획단 회의에서 확정지은 주요 면접 내용들을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의 형태로 만들어 면접자들이 면접과정에서 사용하였다. 다수의 면접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동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면접의 체계를 일정 수준 통일화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면접자가 각 단체별 상황과 응답자 상황에 맞춰 질문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들도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상황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경험들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20~30대 여성들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분석내용에서 다루게 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경험은 주로 20~30대 여성들이 구술한 내용이다. 결혼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여성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가사노동과 육아 경험이 경제적 자립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였다. 기혼이더라도 배우자의 장애나 실직,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나, 한부모인 여성의 경우에는 생계부양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어려움을 주로 이야기하였다. 현재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쉼터에 들어오기 전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술하였다.

심층면접은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각 단체별로 실시되었다. 각 심층면접이 진행되기 직전에는 응답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내용의 활용 범위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심층면접에서 응답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면접의 중단 및 내용 삭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동시에, 심층면접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들을 담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응답자에게 제공하여, 응답자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직접 서명 날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부분의 심층면접은 1시간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추가 면접 등으로 인해 최대 3시간 20분의 면접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표 Ⅱ-1〉 심층면접 개요

12

| | |
|---------|--|
| 자료수집방법 | 일대일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
| 분석방법 | 근거이론연구, 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ity theory) |
| 조사지역 | 전국 |
| 면접 참여단체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이상 가나다순) 등 총 12개 단체 |
| 주요 면접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경제적 상황 ◦ 본인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주변의 말이나 반응 ◦ 경제적 자립의 욕구 ◦ 여성이기 때문에 처하게 되는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 경제적 자립의 의미 ◦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 응답자 수 | 총 66명 |
| 면접 진행일자 | 2015년 6월 ~ 2015년 10월 |

심층면접이 이루어진 후에는 면접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전사하여 녹취하는 작업을 거쳤다. 녹취작업을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분석이 이루어졌다. 필요한 경우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대조하여 응답자가 이야기한 내용의 의미와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위해서 노력하였다.¹⁾

심층면접 내용은 ‘근거이론연구(grounded theory study)²⁾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은 ‘근거이론연구’에서 추구하는 추상적인 이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근거이론연구’에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는 ‘범주화 전략’을 차용하여 응답자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으로 분석하는 전략을 취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고도의 추상화 전략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공통된 경험’은 무엇인지, 경험의 양상은 다르지만 그 내부를 관통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범주화 전략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경험이나 욕구가 다양화되는 지점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ity theory) (Collins, 1990; Crenshaw, 1989, 1991; Dill and Zambrana, 2009; McCall, 2005; Walby, 2011 등)³⁾의 관점을 통해 어떤 상황들이 상호교차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차이를 형성하는 주요한 맥락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차성의 관점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경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이 분석을 맡은 본 연구자가 아닌 활동가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층면접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통찰력은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근거이론’에 대한 연구방법을 자세히 다룬 번역서로는 『근거이론의 이해』(Strauss & Cobin 저, 김수지·신경림 역, 2005), 『근거이론의 단계』(Strauss & Cobin 저, 신경림 역, 2001) 등이 있다.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설명한 개론서로는 『질적연구 방법론』(윤택림, 2013), 『질적 연구방법론』(신경림·조명옥·양진향 외 저, 2004),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Creswell 저,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공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Mason 저, 김두식 역, 2005) 등 참고.

3)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용어는 Crenshaw(1989)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젠더(gender)라는 단선적 축에 의해서는 여성들의 경험과 삶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으며, 여성들 내부의 계급, 인종, 민족성, 섹슈얼리티 등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페미니즘 이론이다.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는 학자들은 젠더, 인종, 계급 억압에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더 나아가 하나의 억압기제가 다른 억압기제를 형성하거나 변형하고, 구조화하는 현실을 인지하도록 촉구한다. 교차성 분석들은 특히 미국에서 유색여성들에게 젠더 경험은 백인 여성들이 경험하는 젠더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종화된 젠더를 경험하게 되는 현실을 분석하는 분석틀로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힘들을 이해하면, 여성들이 단일한 범주로 묶일 수 없음을 이해하고, 이들의 경제적 주체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동시에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적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상황에 맞게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분석내용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두고, 여성들의 경험과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욕구와 경험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 응답자들이 직접 사용한 ‘언어’를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내용의 맥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복되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하고 ‘(중략)’ 혹은 ‘(…)’의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내용이 불분명한 지시어인 경우에는 그 지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네모 괄호([]) 안에 부가적으로 표시하였다.

14 2. 연구대상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현실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 총 66명을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응답자 선정은 본 연구에 참여한 11개 단체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 준비 중인 ‘20~30대 여성’, 맞벌이 여성이나 전업주부,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 등을 포함한 ‘40~50대 여성’,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 집단’, 가구 내 주된 생계부양자인 ‘한부모 여성’,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쉼터 거주 이주여성’, 신체적 장애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여성’ 등 각각의 응답자 선정 테마(theme)를 먼저 정하고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는 기획단 회의에서, 보다 다양하고도 의미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경험을 들어보기 위해 일부 응답자들의 기준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여성들의 ‘연령’, ‘거주지역’, ‘경제활동 상태’, ‘가구형태’, ‘가구 내 주소득원 여부’, ‘한부모 여부’, ‘이주경험 여부’, ‘장애유무’ 등에서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심층면접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래 <표 II-2>는 면접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나열한 표이다. 사

레번호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높은 연령대 순으로 정렬하여 부여하였다.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전체 응답자 66명 중 20대 여성은 10명(15.15%), 30대 여성은 18명(27.27%), 40대 여성은 25명(36.36%), 50대 여성은 12명(18.18%), 60대 여성은 1명(1.51%)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단체가 전국의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만큼, 응답자들의 거주지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절반가량씩 분포하였다. 가구형태 중에서 1세대 가구는 단독가구이거나, 친구나 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세대 가구 형태를 띠는 응답자는 총 8명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가구에 속해있는 응답자는 총 54명이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인 3세대 가구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총 3명이었다.

응답자 선정 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현재 구직 중인 여성부터 전업주부, 시간제나 계약직 노동자를 지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양하였다. 응답자의 상황적 특성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들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이후에 분석 내용에서 각 사례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주소득원’은 응답자 본인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독가구이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배우자의 장애나 실직 등의 이유로 여성이 생계부양자인 경우를 말한다. ‘한부모’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1명 이상의 자녀의 생계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 ‘주소득원’의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시간제 노동이나 비정규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맞벌이’로 표시하였으며, 부모나 배우자가 주소득원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상황적 특성을 빈칸으로 두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를 적어 넣었으며,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폭력피해 경험으로 인해 쉼터에 거주 중인 여성이 응답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쉼터거주를 함께 기입해 넣었다.

〈표 Ⅱ-2〉 응답자 내역

| 번호 | 응답자 | 연령대 | 거주지역 | 경제활동 상태 | 가구형태 | 상황적 특성 | 면접날짜 |
|-----|-----|-----|------|-----------------|------|---------------|---------------------------|
| C1 | K□□ | 20대 | 비수도권 | 사무직 | 1세대 | 주소득원 | 2015.6.19. |
| C2 | K□□ | 20대 | 비수도권 | 무직(구직 중) | 2세대 | - | 2015.7.8. |
| C3 | J□□ | 20대 | 비수도권 | 직업상담사 | 2세대 | - | 2015.7.31. |
| C4 | P□□ | 20대 | 비수도권 | 프리랜서 | 1세대 | 주소득원 | 2015.9.2. |
| C5 | J□□ | 20대 | 수도권 | 개발자 | 2세대 | 주소득원 | 2015.7.16. |
| C6 | U□□ | 20대 | 수도권 | 해외영업 | 2세대 | - | 2015.7.28. |
| C7 | R□□ | 20대 | 수도권 | 사무직 | 2세대 | 장애 | 2015.7.30. |
| C8 | L□□ | 20대 | 비수도권 | 자활사업단 | 2세대 | 이주여성, 쉼터거주 | 2015.7.5. |
| C9 | C□□ | 20대 | 비수도권 | 공장노동자 | 2세대 | 이주여성, 쉼터거주 | 2015.7.14. |
| C10 | P□□ | 20대 | 수도권 | 무직(구직 중) | 2세대 | - | 2015.10.11. |
| C11 | K□□ | 30대 | 수도권 | 전업주부 | 2세대 | - | 2015.7.2. |
| C12 | L□□ | 30대 | 비수도권 | 공무원 | 2세대 | 맞벌이 | 2015.7.16. |
| C13 | K□□ | 30대 | 비수도권 | 시간제 강사 | 2세대 | 맞벌이 | 2015.7.16. |
| C14 | J□□ | 30대 | 비수도권 | 전업주부 | 2세대 | - | 2015.8.9. |
| C15 | K□□ | 30대 | 비수도권 | 공무원 | 1세대 | 주소득원 | 2015.7.28. |
| C16 | K□□ | 30대 | 비수도권 |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 2세대 | 주소득원 | 2015.7.7. |
| C17 | L□□ | 30대 | 비수도권 |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 1세대 | 주소득원 | 2015.7.10. |
| C18 | S□□ | 30대 | 비수도권 |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2세대 | 주소득원 | 2015.7.16. |
| C19 | K□□ | 30대 | 비수도권 | 판매노동자 (자활센터) | 2세대 | 주소득원 | 2015.8.6. |
| C20 | K□□ | 30대 | 수도권 | 무직(구직 중) | 1세대 | 주소득원, 구직 중 | 2015.7.21. |
| C21 | J□□ | 30대 | 수도권 | 홍보대행사 | 2세대 | - | 2015.7.22. |
| C22 | K□□ | 30대 | 수도권 | 영상제작 | 1세대 | 주소득원 | 2015.7.30. |
| C23 | J□□ | 30대 | 수도권 | 콘텐츠 담당 | 1세대 | 주소득원 | 2015.7.27./2 015.8.4. |
| C24 | K□□ | 30대 | 수도권 | 시민단체 활동가 | 2세대 | 장애, 맞벌이 | 2015.8.19./ 2015.8.27. |
| C25 | K□□ | 30대 | 수도권 | 강사 | 2세대 | 이주여성, 쉼터거주 | 2015.6.18. |
| C26 | N□□ | 30대 | 비수도권 | 무직 | 2세대 | 이주여성, 쉼터거주 | 2015.7.14. |

| 번호 | 응답자 | 연령대 | 거주지역 | 경제활동 상태 | 가구형태 | 상황적 특성 | 면접날짜 |
|-----|-----|-----|------|--------------|------|------------|------------|
| C27 | H□□ | 30대 | 비수도권 | 공장노동자 | 2세대 | 이주여성, 쉼터거주 | 2015.7.14. |
| C28 | Y□□ | 30대 | 수도권 | 교사(기간제) | 3세대 | 한부모 | 2015.8.29. |
| C29 | K□□ | 40대 | 수도권 | 시간제 강사 | 2세대 | 맞벌이 | 2015.6.22. |
| C30 | C□□ | 40대 | 수도권 | 사이트 운영 | 2세대 | 맞벌이 | 2015.7.2. |
| C31 | K□□ | 40대 | 수도권 | 시간제 강사 | 2세대 | 맞벌이 | 2015.7.2. |
| C32 | L□□ | 40대 | 수도권 | 전업주부 | 2세대 | - | 2015.7.13. |
| C33 | Y□□ | 40대 | 수도권 | 전업주부 | 2세대 | - | 2015.7.15. |
| C34 | L□□ | 40대 | 수도권 | 무직(구직교육 중) | 2세대 | 한부모 | 2015.7.13. |
| C35 | L□□ | 40대 | 수도권 | 시민단체 활동가 | 2세대 | 맞벌이 | 2015.7.29. |
| C36 | L□□ | 40대 | 비수도권 | 전업주부 | 2세대 | - | 2015.7.22. |
| C37 | J□□ | 40대 | 비수도권 | 사회복지사 | 2세대 | 한부모 | 2015.7.27. |
| C38 | P□□ | 40대 | 비수도권 | 자영업 | 3세대 | 맞벌이 | 2015.7.28. |
| C39 | C□□ | 40대 | 비수도권 | 시민단체 반상근 활동가 | 2세대 | 맞벌이 | 2015.6.25. |
| C40 | P□□ | 40대 | 비수도권 | 전업주부 | 2세대 | - | 2015.6.30. |
| C41 | O□□ | 40대 | 비수도권 | 전업주부 | 2세대 | - | 2015.7.3. |
| C42 | J□□ | 40대 | 비수도권 | 무급가족종사자 | 2세대 | 맞벌이 | 2015.7.3. |
| C43 | H□□ | 40대 | 비수도권 | 전업주부 | 2세대 | - | 2015.7.10. |
| C44 | P□□ | 40대 | 비수도권 | 판매노동자 | 3세대 | 맞벌이 | 2015.8.31. |
| C45 | Y□□ | 40대 | 비수도권 |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2세대 | 맞벌이 | 2015.7.9. |
| C46 | C□□ | 40대 | 비수도권 | 지역아동센터 토요일강사 | 2세대 | 한부모 | 2015.7.10. |
| C47 | K□□ | 40대 | 비수도권 | 지역아동센터시설장 | 2세대 | 맞벌이 | 2015.7.16. |
| C48 | K□□ | 40대 | 비수도권 | 요양보호사, 식당노동자 | 2세대 | 한부모 | 2015.8.6. |
| C49 | Y□□ | 40대 | 수도권 | 전화상담원 | 2세대 | 장애, 맞벌이 | 2015.7.8. |
| C50 | K□□ | 40대 | 비수도권 | 통번역 | 1세대 | 이주여성, 쉼터거주 | 2015.7.12. |
| C51 | L□□ | 40대 | 수도권 | 무직 | 2세대 | 한부모 | 2015.7.17. |
| C52 | K□□ | 40대 | 수도권 | 전화상담원 | 2세대 | 한부모 | 2015.7.28. |
| C53 | K□□ | 40대 | 수도권 | 학교복지사 | 2세대 | 한부모 | 2015.8.4. |
| C54 | N□□ | 50대 | 수도권 | 보험설계사 | 2세대 | 맞벌이 | 2015.7.15. |
| C55 | L□□ | 50대 | 수도권 | 청소노동자 | 2세대 | 한부모 | 2015.7.15. |
| C56 | S□□ | 50대 | 수도권 | 청소노동자 | 2세대 | 한부모 | 2015.7.31. |

| 번호 | 응답자 | 연령대 | 거주지역 | 경제활동 상태 | 가구형태 | 상황적 특성 | 면접날짜 |
|-----|-----|-----|------|-------------|------|---------|--------------------------|
| C57 | S□□ | 50대 | 비수도권 | 간병인 | 2세대 | 한부모 | 2015.8.1. |
| C58 | K□□ | 50대 | 비수도권 | 사무직 | 2세대 | 맞벌이 | 2015.8.3. |
| C59 | S□□ | 50대 | 비수도권 | 판매노동자(자활센터) | 2세대 | 주소득원 | 2015.8.4. |
| C60 | K□□ | 50대 | 비수도권 | 판매노동자(자활센터) | 2세대 | 한부모 | 2015.8.6. |
| C61 | H□□ | 50대 | 수도권 | 무직 | 2세대 | 장애 | 2015.7.21. |
| C62 | W□□ | 50대 | 수도권 | 시간제 강사 | 2세대 | 장애, 한부모 | 2015.7.27. |
| C63 | K□□ | 50대 | 수도권 | 무직 | 2세대 | 장애, 한부모 | 2015.8.4./ 2015.8.27. |
| C64 | L□□ | 50대 | 수도권 | 요양보호사 | 2세대 | 한부모 | 2015.6.24. |
| C65 | L□□ | 50대 | 수도권 | 가사도우미 | 2세대 | 한부모 | 2015.7.16. |
| C66 | L□□ | 60대 | 수도권 | 식당노동자 | 2세대 | 한부모 | 2015.8.13. |

III.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현실

18

1. ‘경제적 자립’의 의미

심층면접을 통해 만난 다양한 여성들이 정의하는 ‘경제적 자립’은 거창한 상이 아니었다. 연령이나 가족특성, 장애 유무, 이주 여부를 막론하고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자립은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 주로 부모나 배우자 등 특히 가족원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고 일을 통해 자신의 경제 필요를 충당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립이 ‘최소한의 생활조건’이라는 사실은 2015년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독립성도 스스로 갖추기 매우 어려운 상태임을 방증하기도 한다.

“경제적 자립은 내가 내 삶을 잘 꾸려나가야 되는 거죠.” (C45)

“자기를 둘러싼 경제적인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립” (C15)

“제가 원하는 독립된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직접 만들던지 아니면 어디 뭐 얻어오든지 수입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C20)

여성들이 정의하는 경제적 자립의 이면에는 여성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과 욕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독립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가족원은 여성들의 연령과 생애과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결혼 경험이 없는 20~30대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한다. 취직을 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부모님께 보증금을 빌린 응답자(C1)의 경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더 이상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경제적 자립으로 묘사하였다.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한 ‘주거비’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빌린]⁴⁾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있는 날,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저도 통장잔고가 쌓이고, 더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순간” (C1)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아예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완전한 자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C3)

“제가 따로 이제 나갔을 때, (...) 부모님한테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오로지? 인제 제 그거 제 소득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 (C49)

결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원들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요한 자립의 요소로 꼽았다. 배우자의 경제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업주부인 한 응답자(C40)는 경제적 자립을 ‘남편’으로부터의 ‘마음’과 ‘시간’의 독립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의 이면에는 생활을 배우자의 경제력에 의지하고

4) [] 괄호 안 내용은 연구자의 부가적인 설명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과 ‘시간’의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면서,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이러한 상태를 종식시키고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열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 결혼을 경험한 여성들의 상당수가 배우자의 ‘사업실패’, ‘실직’, ‘관계단절’, ‘이혼’, ‘사별’ 등으로 생애과정에서 일정기간 이상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아가야 하는 생계부양자가 된다. 결혼한 여성들은 이러한 미래를 예상하면서, 미래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을 경제적 자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생애과정에서 일정기간 이상은 누구나 생계부양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노동시장 내의 제도들이 가정하고 있는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이 여성들의 경험과 삶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한테 독립. (...)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 독립 하는 거.” (C40)

“언젠가는 [배우자와] 헤어져 살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적 인 부분에서 걸리는 거죠. 나중에 정말로 자유롭고 싶고 여행을 다니고 싶고 모든 살림살이에서 손을 떼고 날 위한 일만 하고 싶은 시점이 왔을 때 당당하지 못할까봐 추접스러운 솔로가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C30)

한편, 장애인이자 한부모 여성인 한 응답자(C61)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를 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라고 정의내릴 수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용차별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힘으로만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능한 일자리라 하더라도 시간제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정부나 사회단체의 복지혜택에 일부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경제적 자립은 생계비를 스스로 마련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있느냐에 방점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적 자립을 ‘복지’와 연결시켜 정의하는 방식은 복지가 장애여성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에 기본적인 경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실제로 존재하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장애여성들의 자립의지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주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가 ‘수혜’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복지를 ‘사회적 권리’의 일부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적 자립이란 (...) 저희같이 장애가 있다면 사회적 지원프로그램 서비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서라도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이런 것조차도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회서비스 가령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다고 해도 경제적 자립이 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일감을 얻지 못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다면, 그런 사회적 지원체제를 이용해서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거라면, 그것도 경제적 자립이라고 보고요. 제가 그렇게 생계 유지, 아이들의 등록금 이런 얘기도 했지만, 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여유를 갖는다면, 완벽한 자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61)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필요한 만큼이나, 값아야 할 빚이 없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경제적 요소가 된다. 한국은행(2015)이 지난 8월에 발표한 2/4분기 가계부채의 총액이 1100조를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약 6천만원의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빚이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걱정했다. 빚이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의 상당수가 빚을 갚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빚의 청산을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휴일에는 식당노동자로 일하면서 빚을 갚고 있는 한 응답자(C48)는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전업주부에서 갑작스럽게 소득활동에 뛰어들게 되면서 빚을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저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빛이 없어야 되죠. 빛이 좀 없고 대출에.. 그게 최대의 자립이에요.” (C48)

현재 매달 정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은 없지만, ‘생활비 절벽’상태에서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는 한 달도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50대 한부모 여성(C64)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은 여유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비용)’가 허락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자신의 삶을 현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래는 경제적 상황에 얽매어있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후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는 것도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22

“두세 달 정도는 어떤 사람의 상황이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아파서든 그 상황이 쉬게 될 경우가 있는데 두세 달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과정. 그런 시간 여유.” (C64)

“경제적 자립은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게 미래가 됐든 지금이 됐든 (...) 첫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그게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C23)

“이제 지금부터도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노후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노후자금이라는 거를 충분히 계획 하에 모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이라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C18)

응답자들은 경제적 자립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자존감’, ‘자존심’ 등을 자주 언급하고, ‘당당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은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가족이나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당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자각은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가

족원들에 대한 경제적 의지 없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면, 누구의 어머니나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자립은 필수라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이란 것은 여성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당당한 삶을, 자신감을 가지는 거라고 우선은 생각해요. 어떤 한 인간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활동 능력이 있다면 다양하게 자기 성취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률적인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남편한테, 특히 남편이나 또 나중에 노후에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가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에너지라고 합니다.” (C43)

“내가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되는 거죠. 누구 엄마, 누구 마누라, 누구 집 며느리, 누구 집 딸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립이 있어야지 내가 완성되는 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정말 남편한테 돈을 받아서 쓰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C14)

23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활력과 보람’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이야기한다.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경우에도 쉼터 생활 이후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예상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저에게는 자신감 정도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 겉으로는 제가 아주 장장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외출을 하거나 외부활동을 하는데 많이 위축되었었거든요. (...) 밥값을 내지 못할 때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C12)

“자존감을 세우는 일. 나한테 기회가 생기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수 있는 기회가.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일,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하고 모임도 하고 여유롭게 살지만 경제적 활동을 하면 다른 사회

적 관계가 생길 것 같은 느낌.” (C36)

“제 자신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한국에서.” (C25)

“내가 인정을 받는 것 아닐까요? 내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 (...)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게 경제적으로 메겨지는 거죠.” (C11)

○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의 의미

24

여성들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경제적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능력’과 ‘상황’에 맞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꼽는다.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게다가 일자리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생활의 ‘활력’을 주고,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복지사인 40대 여성(C37)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개인에게 ‘사회적인 열등감’을 형성하고, 이러한 상황은 그 개인에게 사회적인 ‘배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실제적으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소비를 한다는 그 자존감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그런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열등감만을 계속 낳을 것 같은 거예요.” (C37)

“나이 먹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일이 있으면, 이제 할 일도 찾아 활력도 생기고 내 나의 일이 있으니까 생활해도 이제 좀 보람도 있을 거 같고.” (C41)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의 의미는 다양한 차원을 가진다. 여성들의 상황에 따라 특정 의미만을 부각시켜 설명하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도 일의 의미가 다양한 차원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을 통한 소

득활동은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인함으로써 자존감을 세워 주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많은 여성들은 일자리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상담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기여하거나 ‘환원’하려는 노력을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일자리가 지니는 다차원적 의미는 장애를 가진 한부모 여성으로서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한 응답자(C52)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그냥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 내가 일, 일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것. 그것이 저는 일차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좀 장애를 입었다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하고 있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사실은 뭐 어쨌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래도 일어나서 일터에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일을 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그래도 보장된 금액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정서적 안정감이 사실은 있고요. 개인에게 굉장히 큰 의미다 그거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일단 이렇게 한다, 하고있다라는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고요. (...) 장애는 있지만 이렇게 조금 음 비장애인들 속에 지금은 내가 장애를 극복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 방향도 이쪽으로 봐가면서 틈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저한테 큰 배품이고요. 그리고 음 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일찍 중풍 걸리셔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서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때 늘 제가 가장으로서 버리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바로 뭐 단 한 번도 돈벌이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제가 일을 한다는 부분은 가장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돈이 많은 적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밥벌이를,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저의 자존감을 세우는 부분인 것 같아요.” (C52)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이 지니는 의미의 다양한 차원을 관통하는 것은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다. 특히 자신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애여성, 쉼터에서 거주하는 이주여성들과 같이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경우에는 폭력이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으로 인해 가구의 주소득원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스스로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어 있다거나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각으로 인해 사회적인 인정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일자리나 소득활동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26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어머니이고요, 지금 독립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구요. 어쨌건 아들 둘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절실함이 아주 누구보다도 커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하고 있구요. 자격증 따기 위해 공부하고 사실 어제는 시험도 봤네요.” (C34)

“지난 4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 없이 지내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강의자료 마련 준비하고, 교육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대화하고, 너무너무 시간도 잘 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예요. 더욱 더 앞으로 일을 해야겠다. (...) 나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적으로 제가 환원할 거는, 내놓을 건 없지만, 그래서 사회에서 많은 빛을 지고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많은 빛을 지고 살잖아요. 특히 장애인들은 가족이나 주변, 국가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살거든요. 제가 그래도 직장을 갖지 못하고, 젊었을 때 꾸준히 조금씩 틈나는 대로 쉬엄쉬엄 공부를 해왔으니까, 제가 내놓을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공부한 걸로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61)

이상의 내용을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 정의하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는 최소한의 생활조건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정의하는 방식은 현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여성들은

최소한의 생활조건도 갖추기 어려운 경제적 현실 속에서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다. 여성들에게 소득활동이 주는 의미를 분석해보면,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인정받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아직은 요원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현실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충분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경제적 자립의 요소라는 의미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듣고 있는 경제적 상황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의 현실’ 진단에 있어서는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여성들은 주로 저소득·저임금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스스로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가 아 10년 가까이 일했구나 벌써. 근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여기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here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이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C18)

20대에 계약직으로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간 30대 초반의 응답자(C23)는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를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직이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면서 ‘속박당하는 느낌’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제로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일자리에서의 소득활동을 비롯

하여 수많은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바쁜 일상을 이어나간다. ‘하루벌어 하루생활’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루치 임금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일자리로 이동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속박’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표현은 경제적 자립이 여성들의 생활의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매우 근본적인 요소임을 드러내면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얼마나 원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면 : 스스로 경제적으로 난 자립했다고 생각해요?

응 : 아니요

면 : 왜요 이유는?

응 : 부자유해서.

면 : 너무 돈에 이렇게

응 : 네 벌면서도 자유롭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벌지 않은 기간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길어지게 되면서 되게 속박당하는 느낌 많이 당했어요.

면 : 그거는 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한 번 만나기도 부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응 :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되게 젊은 날인데 교육에도 투자하고 싶고 먹는 거 입는 것도 투자하고 싶고 면접 때도 좀 좋은 옷 입고 가면 웬지 붙을 거 같고. 근데 있는 거에서 짜내서 해야 하고 그런 여유 없고 하는 절망감 같은 게 막 [느껴져요] (C23)

○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논다’는 평가는 과연 정당한가?

전업주부 여성들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로 이야기하였다. 게다가 가족이나 친구들 등 주변에서는 자신을 주로 ‘집에서 논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립을 누구보다 원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전업주부들의 일상도 실제로는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수많은 일정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을 비롯하여, 자녀 돌보기, 자녀 학교 관련 업무 처리, 가족원 간

병 등 전업주부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들은 매우 다양하다.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도, ‘24시간 대기조’처럼 가족들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한다. 이른바 재생산(reproduction) 활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업주부들이 수행하는 일들이 당장 소득을 발생시키는 생산(production) 활동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경제적 역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 응답자(C36)도 있었다. 전업주부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당당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전업주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집에서 논다’는 평가와 시선들의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성들이 수행하는 수많은 비-소득활동의 경제적 의미가 재평가 받고, 가사노동이 여성들에게만 부과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가족원들 중 누구라도 만약 가구 내에서 가사노동과 돌봄을 전담하게 된다면, 그러한 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의 확인이나 보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경제적 역할은 집안일, 가사노동 아닐까요?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그럴려면 장도 봐야하고, 빨래도 하고, 세탁소도 가고, 아이의 숙제를 돌보고, ○○이가 초등학교생이라 아직은, 숙제라기보다 챙길게 왜 그렇게 많은지. 초등학교는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잡다하게 많이 시켜요. 환경미화도 시키고, 교통당번도 시키고, ○○이 때문에 사실 많은 바쁜 것 같아요.

옛날에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일하는 거 보면 한 200만원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돈을 주고 맡겨야 하잖아요. 경제적 역할이라는 게 꼭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만 아니지 않은가요? 가족관계에서도 내가 딸로서 부모님의 병간호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양보호사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친정엄마와 번갈아가면서 했지만요. 남편이 입원했을 때도 제가 병간호하고, 집안일 하고, 심지어 남편 직장일도 쯤 하고, 그러보니 제가 만능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하는 거 같지만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하는 거 같아요. 언제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산업예비군이든가, 항상 5분대 기조 같은 느낌이지요. 이게 전업주부의 운명 아닐까요. (...)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면 그 모든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일, 세탁소, 요양보호사, 식당, 병원 그것을 연결하고 신청하고 보내고 다닌 건 결국 여성, 나의 몫이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노는 거 같은데 엄청 바쁘죠. 여성이 가정주부로 집에 있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언제나 제 3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게 없으면 안돌아가는 거죠.”(C36)

3.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었던 때

30

그렇다면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가장 이루고 싶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많은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늘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을 때’ 가장 절실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삶이 가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었던 시기와 이유는 생애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결혼 경험이 없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경제적 자립에서 가장 이루고 싶어 하였다. 부모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자각과 더불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경제적 자립을 원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가부장적이거나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경제적 자립을 꿈꾸었음을 여러 사례에서 언

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에 경제적 자립은 어려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거나,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만큼 소득을 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30살이 됐을 때 (...) 그때 경제적 독립을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그 때는 대학교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녔고 직장생활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다녔고 (...) 오로지 부모님들이 나를 어떻게 지원해줄까 하는 것처럼 지냈기 때문에 (...) 내가 독립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른이 되었으니 온전히 오로지 ‘나 혼자서 책임지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C13)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고, (...) 좀 친해질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좀 서먹서먹 하거든요.” (C3)

“저는 또 아빠와의 관계도 되게 안 좋았어요.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욕도 많이 들었고, 종교 같이 안 믿는다고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도 들었고.” (C1)

31

전업주부이거나 과거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생색내기’나 ‘눈치주기’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필요했다고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화 이후로 노동시장에서의 남성들의 소득이 여성들의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이유는 이성에 부부를 기준으로 남성들을 생계부양자로 보고,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의 몫까지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가족임금(family wage)’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5) 가족임금(family wage)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남성에게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남성 노동조합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상대가 되는 것을 막고, 가정에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시키고자 하는 이해에 기반하여 가족임금을 주장하였다(Hartmann, 1976).

분위기 속에서, 실제 가족생활 속에서는 남성이 소득을 벌어들여 여성은 그 소득을 ‘소비’하는 주체로서만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시선은 물론 전업 주부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담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주거비나 자녀 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남성의 소득만으로는 가계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인식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업주부 여성들의 소비생활을 들여보면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싶어도 선뜻 배우지 못한다. 친구를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게 쉽지 않고, 자신의 옷 한 번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

“취업하지 않는 상태로 인제 남편이 주는 돈으로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달라고 해서 쓰거나 이럴 때 경제적 자립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구요.” (C12)

32

“신랑이 월급을 갖다 줘서 돈 쓸게, 줄 때 되게 뭐 은근히 막 티 나게 그런 얘기 할 때, 진짜 나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막. 치사해서 그럴 때 있는 거 같아요.” (C40)

“일단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 조건이 되면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남편 혼자 버는 거는 뻘하고, 지출하는 거는 계속 늘어나게 되면, 내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누가 뭐라도 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C11)

“월급이 딱 들어와서 쓰면 일차적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다 나가고 나서 옷을 하나 사더라도 일단 남편 옷 먼저 사 입혀야 되거든요. 남편 옷 먼저 사 입히고 그 다음에 애들 옷을 사 입히고, 이제 그리고 나면 사 입을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한해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야, 내가 못 벌어들여 주는 것도 아닌데 니는 왜 이렇게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데”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근데 진짜 상황이 그렇게 되거든요. 나한테까지 돌아 올, 그러니까 항상 접고, 뭘 하나 배우러 가고

싶어도 이 배우는 비용이 너무 사치스럽고 심지어 얼마 전에 후배를 만났는데 후배가 한 달에 5만 원짜리 헬스장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운동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자꾸 쓰러지고 해서, 근력을 좀 키우라고 처방해줬는데 그 한 달에 5만원 쓰는 게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인데 운동하는데 5만원 쓰려고 하니깐 선뜻 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저도 진짜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선배언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여태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사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언니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 놀지 않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나도 진짜 빨대 꽂고 산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기도 하고, 이 양가감정이 다 드는 것 같아요.” (C14)

○ 가족원들을 위한 경제적 자립

여성들에게 가족원들은 경제적 현실에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독립을 이루고 싶은 대상이면서도, 그들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게 만드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모님의 노후 문제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자녀 교육비 문제 등 주로 가족원들과 관련된 경제적 이유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나중에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도 자신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이유로 꼽는다.

특히 자매로만 이루어진 집안에서 태어난 딸로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인 한 응답자(C39)의 경우에는 친정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면서도 ‘땀땀하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할 때 경제적 자립의 욕구가 가장 분명해진다고 이야기한다. ‘장자상속’을 사회적 질서로 인정하는 가부장제 하에서는 딸이 가지는 자신의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모의 노후에 대한 걱정에 있어서 갈등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노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의 부양에 일정한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땀땀하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갈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일종의 해결책으로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 3년 중에 장녀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 장녀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라도 정말 뿔뿔하게, 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버는 것으로 뿔뿔하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저는 자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C39)

“일단은 [제가 일할] 가장 시작하게 된 가장 이유는, 첫 번째는 노후 걱정이었구요. 두 번째는 아이들 교육비였어요. (...) 항상 이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C34)

34

“아이 키우면서 인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이라든지 앞으로 어른들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되고 아이 키우면서 내가 뭔가 일이 있어야 아이한테 부담을 안주지 않을까.” (C32)

“일단 노후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노후가 불안정 하니까. 또 아이들한테 짐이 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빨리 자립을 하고 돈을 벌어놓고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C48)

생애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사고를 맞닥뜨리게 되면,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기도 한다. 30대 중반에 시각장애인이 된 응답자(C62)의 경우에는 자신의 장애가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게 되어 경제적 자립이 절실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경제적 자립의지는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생애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나 상황은 장애인이 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려움 뿐 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처음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가족에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가족들도 나로 인해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실했어요.” (C62)

○ 경제적 자립은 생존의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시급한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혼생활 중에 경제적 자립이 가장 절박한 경우는 주로 이혼과 같은 결혼생활 단절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남편의 폭력이 있거나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요구, 남편과의 마찰이 있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때,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자각에서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구술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목숨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심한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유지하는 결혼생활은 여성들에게 ‘우울증’과 ‘목이 졸리는 것 같은 고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경우에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은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서, 생존 자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는 결혼생활 하면서, 사실 아이 아빠가 조금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 초부터 가정 폭력적인 기질을 좀 많이 내보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특히, 아이, 큰 아이가 여섯 살 작은 아이가 네 살 때는 굉장히 심해갔고, 목숨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아주 심한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었는데,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게 내가 경제력이 없는 거.” (C34)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 출산하고 나서도 이혼 요구를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막 태어난 아이한테,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 수가 없어서(울먹거리며), 제가 이혼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없었고, 그건 아이에게 못할 짓이니까. 그래서 아이가 커서 대학을 가거나 그 이후에는 이혼을 하리라 마음을 먹었지만, 그랬는데 서로 신뢰가 깨지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되게 관계가 악화되어서, 아이가 클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우울증이 계속 더 심해지고, 목이 막 졸리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혼을 해야겠구나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적 자립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C61)

“이혼하고 싶을 때. 저도 살면서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혼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정말 진짜, 끝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막상,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내 주머니에 진짜 정말 내가 진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단돈 몇 십 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바보 처럼 살았구나, 내가 진짜 6년, 7년 동안 식구들 뒷바라지 하고 했는데 내 주머니에 단돈 백만 원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C14)

36

가정폭력으로 인해 쉼터에 입소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험에서 생존 그 자체를 위해,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은 극대화된다.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경험한 여성들은 한국인 남편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에 시달려 왔음을 이야기하였다. 지속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위협을 당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마치 ‘개처럼’ 취급당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배우자와 가족들로부터 ‘일 시키려고’, ‘성관계’ 때문에 ‘너를 데려왔다’는 식의 언어적인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구술한다.

“남편이 술을 엄청 먹어요. 술을 먹기만 하면 행패를 부리고, 나가라고 저를 쫓아내요. (...) 술을 집에 가져와서 몰래 먹어요. 먹은 후에는 항상 저에게 욕하고, 나가라고했어요. 저는 한국말을 몰라서 남편이 저에게 욕한 것을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남편이 한 욕은 나쁜 욕이라고 했어요. (...) 제가 입덧이 심해서 기운이 없는데, 남편이 나가라고 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집에서 눕기만 하고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시켜줬는데, 남편이 병원에 와서 시끄럽게 행패를 부리고 난리쳤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남편의 행동을 보고 저를 숨겨주었어요. 저보고 피하라고 도와주었어요. 들어와서 문을 탕탕치고 무섭게 해요.” (C26)

“할머니가 자주 저를 야단쳤어요. 할머니가 남편이 한 달 60~70만원만 버는데 아프거나 뭐를 할 때도 할머니의 돈을 써야 한다고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 손으로 가리키고 개처럼 저를 대했어요.” (C27)

“제가 한국에 막 왔을 때는 남편이… 말하면 너무 창피해요. 저의 남편이 왜 결혼했는지 아세요? 성관계 때문에 결혼한 거래요.” (C26)

게다가 이주여성들은 한국으로 결혼을 하러 오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망이나 사회적 관계망과의 단절을 겪게 된다. 그래서 남편의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거나 찾아가 숨어 지낼 장소도 마땅치 않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이주여성쉼터에 당분간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가해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자녀와 함께 거주할 안전한 곳을 구하고, 자신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은 더욱 더 시급한 생존의 문제가 된다.

“만약 지금 집으로 와도 된다고 해도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시간이 너무 길어졌고 서로 많이 싸웠으니까요. 돌아가서 살다가 남편이 복수를 위해 밤에 저를 죽일 수 있잖아요.” (C27)

○ 여성들 누구나 일정기간 이상은 생계부양자가 되는 현실

여성들은 생애과정에서 일정기간 이상은 누구나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생계부양자가 된다.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결혼의 통과의례적 성격이 많이 약화되면서 여성이 스스로 ‘비혼(非婚)’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배우자의 실직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여성들은 생계부양자가 된다. 생계부양자가 된 여성은 생활을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더욱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여성들은 상당수가 ‘나이 많고’, ‘자녀가 있어서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 않으며’, ‘경력단절을 겪’거나 ‘일자리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이고, 임금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가구 내에서 주소득원으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높은 임금 차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생활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것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절박하게 하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한다.

“아무래도 이혼하자마자 직업을 필요했고 생계가 필요했던 거죠.” (C64)

“최근에 조금 안 좋았을 때[이혼했을 때] 월급이 평소에 들어오던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인제 생활이 평소에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인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80만원을 벌어서 도저히 혼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상황이 바뀌면서.” (C45)

38

본 연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한 사실은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구 내 주소득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가 되거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장애나 사업실패, 실직, 관계단절 등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일자리 소득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결혼연령이 증가하고, 스스로 비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20~30대 여성들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시대라는 의미이다.

4. 여성들의 일자리의 성격

그러나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경제활동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일자리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응답자들이 종사한 일자리의 성격은 서비스직,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 장시간 노동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 서비스직

첫째, 응답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는 흔히 ‘여성의 일’로 분류되는 ‘서비스·판매 영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소득 활동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주로 허락되는 일자리가 ‘서비스·판매 영역’의 일자리라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나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청소노동자, 학교급식 조리사, 식당노동자, 판매노동자, 전화상담원, 기간제교사, 학원 강사, 시간제 강사, 직업상담사, 하위직 공무원 등 서비스·판매 분야 내에서 다양한 직종의 분포를 보였다. 20~30대 비교적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무직이나 콘텐츠 관리, 하위직 공무원 등 흔히 ‘사무직’이라고 하는 업무들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연령대가 높은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 저임금·저소득 일자리

둘째, 저임금·저소득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연령이나, 가구구성의 특성, 이주나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상당수의 여성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만을 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인 ‘최저임금’이 여성들의 일자리에 마치 ‘기준임금’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되어 정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 적게는 월평균 76만원(공공근로)에서 유기농 매장 판매 월 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월 100만원, 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월 138만원, 학원강사 월 120~150만원, 관세사무소 월 108만원, 무 공장 월 130~140만원 등의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 중에서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업은 일부 직업에 불과하였으며, 소득의 경우에는 이중언어강사 월 150만원, 시민단체활동가 월 150만원, 직업상담사 월 155만원, 하위직 공무원 월 180~190만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했었던 응답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월평균 수입을 보인 경우는 흔히 말하는 ‘스카이 학벌’을 지닌 20대 여성이 대기업에 공채로 들어간 경우로, 월 2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에는 더 적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대표적인 시간제 일자리 중에 하나인 ‘학교 성교육 강사’의 경우에는 정규적으로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 평균 30만원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인다. 월 평균 30만 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617,28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시간제 일자리만으로는 주생계부양자 없이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소득수준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에 운영해 본 몇몇 사례의 경우에는 ‘많이 벌 때는 300도 벌고 안 되면 한 200정도’(C58) 벌기도 하였지만, 소득의 등락폭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한다. 월 200만원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소득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성 피고용자들보다는 높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또 본인의 인건비가 제외되지 않은 소득으로 본다면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40

이렇듯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매우 낮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을 주생계부양자로 가정하고, 여성을 생계보조자로 가정하여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임금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OECD, 2014). 이러한 통계적 현실은 본 연구과정에서 만난 응답자들의 경험에서도 재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었다. 여성들의 일자리 소득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여성들의 일자리는 저소득 부문으로 특히 하향평준화 되어 있고, 남성들의 일자리 소득과는 평균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불안정한 노동 : 전 생애과정에서의 ‘경력단절적 이동’

셋째, 여성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시간제나 파견·계약직 등 불안정한 노동이다. 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짚은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저임금으로 인해 ‘생활비 절벽’ 상태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여성들은 구직과정에서 일자

리 성격의 ‘연속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에서의 경력이 ‘단절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여성들의 ‘단절적인 일자리 이동’은 노동시장 내에서의 경력관리의 측면에서도 여성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노동경험에서 ‘경력단절’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생애과정에서 일정 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전 생애과정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이력서 쓰면서 느낀 건데 너무 많이 단절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경력단절여성이란 말 되게 안 좋아하는데, 표현하자면 푹푹 끊어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기간이 너무 예를 들면 [직장] △△랑 ○○에 비해서 □□는 또 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C23)

동일한 일자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교체로 인한 비용은 새로운 일자리로 진입한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만 전가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에게 적은 임금을 줌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측면이 상당부분 상쇄되지만,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놓아야만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혼자 떠맡아야한다.

게다가 비정규직에게는 시간 외 수당이나 연차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이 거의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저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급 받는 액수도 적지만 그 외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C56)

“근무 외 수당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받고 있지는 않고요.” (C37)

비정규직에게는 호봉제와 같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에서의 경력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경력에 따라 임금수준이 올라가는 정규

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의 연속성이 보장된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공채로 뽑힌 정규직과는 다른 직군(track)으로 구별되어 승진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 급식도 정규직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데모를 막 같이 데모 비슷하게 하는 이유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연봉, 이게 늦게 들어간 사람이나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나 봉급은 똑같이 지금도. 그런데 지금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근로 해봤자 똑같아 다. 뭐 오래 됐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 처음 갔는데 나하고 다 똑같았어요 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중에 나 들어올 무렵에 나 나올 무렵에 들어간 사람이나. 호봉제가 없다는 얘기가야.” (C66)

“그게[5급직] 뭐냐면요,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한때 여상이나 고졸, 초대졸 여자들이 들어왔던 (...) 그 사람들이[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 거예요. 20년 동안 사무만 해요. 승진도 안 되고. 무조건 5급. 이게 문제가 진짜 많아요. 부당한 승진 제한과, 월급도 저보다 현저하게 낮고, 하는 일도 항상 사무로 정해져만 있고, 대우도 안 좋고. 그런 직급이 있다는 게 참 웃기죠.” (C6)

42

일자리에서 주어지는 부당한 요구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라는 열악한 지위로 인해 상시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상태에서 오는 상시적인 불안감은 여성 노동의 생산성 하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없도록 한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20대에 여러 업체를 계약직으로 이직한 30대 초반의 여성(C23)의 경험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번에 가장 황당하고 가장 최악이었던 곳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하고 이 서비스가 뭔지도 다 알아야 하는데 그걸 1개월 만에 배워서 소화하는 사람만 뽑겠다. 그리고 네가 일을 못하면 1개월 안에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

는 거잖아요. (...) 저도 되게 급한 상황이고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거기 가면 너무너무 막 제 시간도 시간이고 뭔가 정신적으로 너무 안 좋아질 거 같아서 안 갔어요. 제가 막 그렇게 거절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하지 모기목숨처럼 그렇게 목이 달랑달랑한 상태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C23)

○ 장시간 노동

넷째,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강제된 단기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일자리에서 주 5일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일자리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강제된 단기노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의 특성상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쉼터의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에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판매원의 경우에는 하루 12시간이

43

넘게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보호사와 같이 일정한 시간만 일을 하는 경우에도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하루 8시간에서 하루 5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들어 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만이 지급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자리에서 규정된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강제된 형태의 단기노동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 근무기준인데 보통 한 9시간에서 9시간 반 정도 하고 있고요.” (C16)

“근무 시간은 사실 길죠. 혼자서 일하기엔 열두 시간이니까, 엄청나게 길어요. 근무시간은 많이 길어요.” (C60)

“당직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휴일이나 주말에도 당직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무시간은 좀 다른 일에 비해서 꽤 긴 편이고.” (C37)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낮은 소득만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생활이 어려운 수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의 등락이 커서 안정적인 생활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해, 더 좋은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개발이나 직업교육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덫’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갑작스럽게 큰 빚을 얻은 경우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한 준비 없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에서 더 쉽게 빠져들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파산신고’할 겨를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응답자의 사례(C60)에서 잘 드러난다.

44

“생활도 생활이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빚을 많이 갚고 있었어요. 파산신고를 못했었어요. 할 겨를도 없었고 또 그걸 할려고 생각을 해도, 그 자체가 이미, 파산신고라는 게. 저는 먹고 사는 게 급했었어요. 파산신고가 돈이 들어가니까.” (C60)

“우리가 인제 조정사업을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빚을 몇 억을 저 갚고 갚는다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 아빠 월급 3분의 2가 빚 갚는데 다 나갔거든요. (...) 신랑은 빚 갚는데다 다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여기 오면서 장사하면서 애 키우는데 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애는 거의 다 제가 키웠지요.” (C58)

“경제적으로는 남편이 이제 2003년도에 부도나고, 회사 다니다가.. 주식을 한 번, 도박을 했겠지. 일단은 주식을 좋게 얘기하면 주식이고 그것도 일종의 도박이지, 뭐.. 그거 빠져 갖고 한 4억 정도..?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아마 그때부터 일을 한 거 같아요. (...)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 일 했었지.” (C60)

5. 성차별적 노동환경

일자리를 둘러싸고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경험은 성차별적이다. 고용주들이 성별을 중심으로 구직자들을 식별하고, 남성을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점이 응답자들의 경험을 통해 그대로 구술된다.

○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 자체의 부재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의 부재가 여성들의 열악한 경제활동 현실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다. 연령, 장애, 비수도권 등의 요소들이 성별과 결합하여 구직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어린’ 여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구직과정에서 차별을 겪는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할 수 일은 더욱 부족하다. ‘나이 든’ 여성에게는 일자리 기회 자체가 전혀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지는 직종이 매우 한정적이다. ‘마트일’이나 ‘식당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장애’와 ‘성별’, ‘나이’ 등이 상호교차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여성들에게는 일자리에서의 경험을 구획 짓는 힘들 중에서는 ‘장애 유무’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한다.

45

“회사들은 다 들어가서 우리 같은 이런 데서 듣는 얘기는, 여자 안 뽑으려고 그랬다. 진짜 우리 진짜 막 뚫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대우는 똑같이 받아도, 자체를 안 뽑는 거죠. 회사 들어가면 여자가 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보면 알죠. 여자를 안 뽑는다는 걸.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C5)

“제가 또 나이가 50이잖아요. 50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이런 일이 쉽겠어요. 다 맨날 이렇게 마트 일이나 진짜 식당일 밖에 없잖아요.” (C57)

“젊은 사람, 외모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너무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이 나이가 든 사람 취업하기 너무 좀 힘들어요.” (C64)

“여성이어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여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 취업사이트만 보더라도 보시더라도 이게 일반 여성들하고 장애여성분들하고 틀린 게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급여하고 직종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 장애인분들은 청소나? 아니면 뭐 그런 거 밖에 없어요. (...) 그리고 급여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 여성이라서 그런 문제보다 여성 장애인이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큰 거 같은..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C49)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지는 않은데, 여성인 것만으로도, 장애인인 것만으로도 일을 못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까지 많으니까 전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C62)

○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46

여성들은 구직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관행들을 비일비재하게 경험한다. 면접과정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 선호에 맞춰서 지원한 여성구직자들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이 힘든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일과 관련된 ‘깊이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질문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의 구직과정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또, 남성구직자에게는 하지 않는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진다. ‘공과 사’의 구분을 중요시하면서, 이른바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사적인 역할’을 우선시하고 ‘사적인 역할’에 관심을 두는 것 사이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응답자(C22)도 있었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면접과정에서 ‘우리는 육아 때문에 시간 못 빼드립니다.’는 말부터 쏟아내면서 여성구직자들의 노동의욕을 꺾는다.

“결혼 할 거냐? 결혼 할 생각 없다. 안 하고 살거다 했더니, 그 분들이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셨는데, 결혼 안 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훈수 두듯이. 저는 그래서 좀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훈수 두는 것이 마치 ‘너를 생각한다’는 식의 포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늙게 되는 것을 너무 경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면접 자리에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뽑지도 않았어. (...) 그 때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 놓고 하나. 우리나라는 공과 사의 구분을 중요시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걸 지키지를 않아요. 그 경계를. 우리가 확연하게 정말 구분 짓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C22)

구직과정이나 일자리에서 주어지는 성차별은 특히 20~30대 여성들이 증점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크게 겪어보지 못했던 성차별적인 발언과 대우를 경험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중심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언론사에 들어가기 위해 현재 취업 준비 중인 20대 여성(C2)은 언론사 면접 과정에 있었던 차별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직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임을 관련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논의를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요새는 남자가 스펙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 옛날 대학생 때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니까 그런 게 더 느껴지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자 문과생은 더 힘든 것 같고. 방송국에 최종은 아니고 1차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다 면접관들이 다 남자밖에 없어요. 면접관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다 남자이고 계속 힘든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 여자니까 힘든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한테 계속 힘든 일 할 수 있는지만 묻고, 그러니까 깊은 질문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C2)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런 커뮤니티에 가면 여자 구직자들에게 괜히 그런 질문, 안 해도 될 질문을 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언론인 커뮤니티 가면 여자 직원들 차별 받은 거 엄청 많아요. 특히 최종 가면 이제 여자 직원들한테 아주 소수밖에 안 뽑고, 남자들이 많고, 군대식 문화 이런 얘기도 하고.” (C2)

여성 구직자들에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특히 치명적이다. 더욱 어려워진 청년일자리 상황과 맞물려, 20대 후반만 되더라도 면접에서 ‘나이 많은 거 알아요?’라는 질문을 듣는다. 몇 년 전에는 면접제의라든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20~30대 여성들의 일자리 현실이다.

“이번에 케이블TV △△△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것도 면접 갔었어요. ○ ○역에 있는. 거기서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아침에 땀을 흘리면서 갔는데 (웃음) 본인 나이 많은 거 알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C23)

○ 성별 임금·복지 격차

어렵게 면접을 통과하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 ‘2~300만원은 더 적은 연봉’을 받는다.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정규직의 절반가량의 임금만 받는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과 같이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임금에서의 이 중, 삼중의 불평등을 동시에 경험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직장에서는 주로 남성들만 뽑기 때문에 ‘남자 기숙사’는 있어도, ‘여자 기숙사’는 없다. 비정규직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해당사항조차 없다.

48

성별임금격차는 매우 견고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한 응답자(C45)의 과거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응답자는 자신의 후배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인권위에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법제화는 이루어졌지만, 적극적인 관리·감독이나 강제성을 띤 시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험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작업을 하는데 남성도 여성도 똑같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월급차이는 굉장했거든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랬어요. (...) 10년 전에 같이 일하던 그 후배가 인권위엔가 그거를 (...) 물었는데 ‘맞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어서 되는데 적어도 그 사업장에는 그래야 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 저임금을 받은 거잖아요. (...) 인권위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인제 맞지 않다 라고 손은 들어줬지만 그 기업에 요렇게 해라 라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강제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C45)

○ 일상적인 성희롱·성추행 경험

일자리에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턴이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여성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 정규직 전환이 주요 빌미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되고, 노동의욕을 꺾어 여성들의 생산성 하락에 치명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력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한명은 제 다리를 만졌고, 점심시간에. 머리 만지고 다리 만졌고,” (C6)

“그 전에 있던 △△△는, 여자들끼리 있을 땐 괜찮았거든요? 저희들끼리 술 마시는 문화는 괜찮았는데, 고위급들 관계자들이 와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성추행해가지고, 정규직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회사에 헌신하듯이 일하던 언니가, 그 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랬던[가해했던] 직원 같은 경우는 감봉 좀 받고, 하지만 그 언니 같은 경우는 정신과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됐죠.]” (C22)

49

○ 견고한 ‘유리천장(glass ceiling)’

유리천장은 미국의 경제주간지인「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이 1986년 기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승진에서 실패하는 현상을 유리와 같이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직장 내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회사에 공채로 들어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사들은 ‘여성엔 승진이 어렵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다. 업무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은 남성에게 주로 배정되고,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출장 등에서 여성들을 배제하는 관행들이 공공연히 이루어진다. 근무평가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사에 의해서 팀별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들이 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게 되고, 이러한 평가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미쳐 여성

들의 승진을 막는 장치로 작용한다. 남성에게 유리한 근무평가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남성]는 처자식이 있어서 빨리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이 합리화의 근거로 활용된다.

“제가 입사를 딱 하고, 연수를 끝내고, 이 부서에 처음 들어왔는데, 차장이, 우리 차장은 아니고 옆팀 차장인데 하는 말이, 우리 회사는 여자가 승진이 안 된다. 알고 시작해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부터 했어요.” (C6)

“제가 다녔던 회사에 핵심적인 일 같은 거는 다~ 남자가 해요. 왜 핵심적인 일은 남자들만 하는가? 왜 그런 위치에는 남자들만 있는가? 그렇게 되면 또 남녀차별 나오고.” (C22)

“출장에는 여자를 안 데려갈 거래요. 그냥 자기는 여자가 출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왜 굳이 우리 회사에 여자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대놓고 말을 했어요. 이 차장이.” (C6)

“이거[평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재는 처자식이 있어서? 남자? 빨리 승진을 시켜야 된다. 보통 그런 이유로 많이 (...) 그리고 연구직은 특성상 역시 평가하기가 애매하다보니까 약간 야근수? 야근시수? 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 그렇다보니까 남자들이 아무래도 야근을 많이 하게 되기는 해요. 보통은.” (C20)

○ 남자차장은 ‘차장님’, 여자사장은 ‘아줌마’

여성들을 전문가나 상사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업무상 만나게 되는 상대 회사의 남자 임원들이 ‘여자들이 줄줄이 줄줄이’ 미팅에 참여하는 걸 ‘불편’해하고, 여성들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을 더 우대하는 관행이 형성된다. 또, 직장 내 남성 동료들은 상대 회사의 여성 임원들을 ‘아줌마’로 격하하여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조직문화는 여성 노동자들 스스로 ‘전문가가 되기에는 부족

한 존재'라는 인식을 내재화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여성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요소로 작동한다.

기술 중심의 회사 내에서 처음으로 부장으로 승진한 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성 과장들이 단체로 회사에 나오지 않고 파업을 강행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다. 남성 부하직원들의 계속되는 비협조로 인해 그 여성부장은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직장에서 여성들이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회사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남자가 없다보니까, 남자 인력이 신규로 입사를 하거나, 회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남자인 사람을 조금 더 배려를 해주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남자, 어찌됐든 간에 회사 내에서 남자라는 존재가 아예 없으면 안 되는데, 이를테면 남자 광고주를 만나러 가는데, 여자들이 줄줄이 줄줄이 가면은, 그런 걸 되게, 아직 좀 보수적인, 좀 높은 임원급들의 남자 임원들은 그걸 걸 좀 불편해하시거나, 예를 들면 뭐 능력이 좀 낮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프로젝트랑 관련 없는 남자직원을 일부러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색 맞추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그만두면 안 되니까, 어찌 되었었던간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기도 하고, 좀 기본적으로 남자들을 우대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월급도 당연히 많이 주겠지?’ 하는 게 공공연한 여자 직원들의 불만이자, 생각[이죠.]”(C21)

“또 한명은 (...) 해외에서 영국 사장이 와가지고 여자인데, 계약을 하고 가는데 다 가니까 하는 말이 ‘저 아줌마는 아직까지 일하냐’고. 그리고 제가 지금 거래하는 필리핀 사장이 여자예요. 되게 큰 회사인데, 항상 메일 쓰건 카톡하건 하는 말이,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다’ 그러면서 아줌마로 격하시키고, 하여튼 남자는 무슨 ‘차장님’ 하면서, 여자면 ‘아줌마’가 되고.”(C6)

“제 인사 사수분이 한 얘기로는 옛날에 여자부장님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 회사 최초로 부장님이 되신 분. (...) 그런데 이 분이 부장이 되고 나니까 몇 때문이었는데 모르겠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남성 과장들이 난 도저히 여자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파업을 했어요. (...) 거의 다섯 명 정도가 아예 그냥 집단으로 회사를 안 나오고 그랬었다고. (...)

그래가지고 결국 그 여자 분이 부장이 되시고 난지 한 다섯 달 정도까지 만 일을 하시고 너무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C20)

○ 끊임없는 역할갈등 : 일과 가사노동 · 양육

게다가 여성에게 일차적 책임이 부가되는 가사노동이나 양육의 부담은 여성들이 소득활동을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녀 등 ‘가족에 피해가 가지 않는 시간’ 만을 고르다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거나, 일을 하다가도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엄마들 대부분 정말 가정에 피해가 안 되는 시간에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 10시에서 한 4시 사이에서 정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받아서 케어를 할 수 있고 집안 살림도 할 수 있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강해서 그런 자격증들을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일자리가 잘 없더라고요. 잘 없고 힘들고, 그런 일자리가.” (C14)

“일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아무래도 복잡복잡하고, 또 내가 괜히 나오고 하면 병나고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릴 때 잘 봐줘야지 병나고 하면 결국 그만두고, 그런거... 아이만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남편도 집에서 일하는 것이라 아침 점심 저녁도 줘야 하고, 하니까 애도 세 시 두 시에 오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도 못 맡기고, 열 시 부터 세 시까지 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C50)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이가 거처에 입원하면 맡길 데가.. 병원에 입원하고, 또 예전에 저 간병도 불러봤어요. 일하면서, 애 맡길 사람이 없어서 간병 불러서 간병인한테 맡기고 출근해서 (...) 그게 정말 못 하는 게 간병인 분들이 인제 아이, 아이를 잘 간병을 안 하시니까 아이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 그 때 당시는 아...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참 절실하게 들고.. 그냥 간병인까지 써가면서 내가 아이를 맡겨야 되나? 굳이 간병인 안 쓰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좋은데.. 그런 일이 좀 있었죠.” (C19)

“육아문제랑 결혼 문제, (...) 병행하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배려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런 쪽에서. 임신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눈치도 주시는 편이고 하니까.” (C3)

일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수행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되는 ‘가사노동과 육아’로 인해 ‘시간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간빈곤 상태는 여성들을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직면하도록 한다. 또,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쟁적인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일하는 기혼여성들은 일자리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들에게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도 한다.

“여성이라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애 학교 보내고 아침에 집에서 한 9시 반 정도에 나오는데, 보통 6시부터 9시까지 거의 한순간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되니까. 밥해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머하고 할 것 다 해놓고, 또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 노동시간이 실제로 너-무 긴거라요. 아침 6시부터 내가 집에 가면 한 9시 되니까 하여튼 하고 잠들 때까지 또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10시부터라 치면 12시간하고, 16시간 가까이 계속 노동하고 있으니깐 그게 너무 싫어요. 특히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밀린 빨래야 머야 그거 한다고 또 한나절 다가고 그런..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C16)

“사장님도 내가 유일하게 결혼한 여성,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었고, 일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지나가는 식으로,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씨, 결혼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와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란, 내 식대로 얘기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길하더라구요.” (C11)

일자리에서 비교적 성공한 여성에게도 양육의 부담은 경감되지 않는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문제의 원인이 여성들에게 돌아가고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무언의 압박이 되기도 한다. 결국 여성들은 휴직

을 선택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 주변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그 동생은 되게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한 도청에 근무하는 거의 5급 이상 되는? 그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육아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3짜리 아들하고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정말 힘들게 대학 가서,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취업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직장을 얻었어도, 여성한테는 가정이 또,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그 일은 언제든지 자기의 성공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그 동생을 보고 또 깨닫게 된 거 같아요.” (C39)

○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죄책감’

54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으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여성이라는 ‘모성 이데올로기’의 작동은 일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특히 생계부양자로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죄책감은 한국사회가 공보육 체계를 잘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돈을 좀 신경 안 쓰고 너희들 밥을 차려줬으면 니가 키가 여기서 안 머물렀을 건데 내가 막 그랬었어요. (...) 제가 이제 남편 얘기 이럴 때는 목이 안 메이는데, 지금도 애들 얘기는 탁탁 막혀요.” (C65)

“초등학교 애들 들어갔는데도 큰 애가 인자 5학년이고 밑에 아가 1학년 아니 2학년이었는데 아우 일 갔다 오니까 막 둘이 노는 거 보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예. 그래 또 사고나 안 날랑가 싶어서 그래서 아우 조금 그때도 조금 하다가 또 집에 들어왔게 되고예 그렇더라고예.” (C46)

6.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주체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경험들이 하나의 차원이나 요소에 의해 구획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화를 위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동시적인 노력이 수행되어야만 실제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차원은 편의적인 의미에서 크게 네 가지, 즉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조직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개인적 차원 : 자신감과 전문성 고취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감’이었다. ‘자신감’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능력을 키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증가할 수 있다.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충분히 자리 잡기 위해서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여성들은 경제적 주체가 아니라는 강고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일자리에서 소득활동을 하려는 여성들에게 지지와 용기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끊임없이 쫓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고, 더 오랜 기간을 투자해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고,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한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욕구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주로 불안정한 일자리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생존하려는 욕구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전문성’을 기르려는 노력은 사회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께 요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스로 조금 자신감이 생겨야할 것 같긴 한데, 내가 얼마를 벌던지 내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아요.]” (C32)

“전문성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도 더 발전시켜서 부업이 되더라도 세컨드 잡이 되더라도 발전시켜 보고 싶은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C23)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꾸준히 할 수 있는 정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절실하게 되고.” (C64)

“뭔가 정체되고, 내가 오랫동안 십년 넘게 아이들만 가르면서 있다 보니까 사회로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지금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 했던 일을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완전 전부 컴퓨터 작업으로 바뀌어서 지금 다시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그러면 옛날에 했던 일이 아닌 다른 새로운 일을 찾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되게 컸어요.”(C34)

56

실제로 여성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전문적인 교육이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면접과정에서 만난 많은 여성들이 ‘상담’을 공부하거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 서비스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격증이 일자리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정책적인 유도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2) 가족적 차원 : 가사분담과 가족의 지지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가족적 차원의 개선요소는 여성들의 다양한 상황에 상관 없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일차적으로 부가되는 가사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일상적인 가사노동 뿐 만 아니라 가족 내의 대소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여성들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은 휴식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 또 다른 노동의 공간이 될 뿐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소득활동

과 가정 내 활동 사이의 심한 역할갈등에 시달리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 내 활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가사분담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한다.

또,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족원들의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옛날처럼 엄마가 다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일도 좀 분담을 해서 해줬으면 좋은 바람이에요. 저희 집도 그렇게는 안 되고 있지만.” (C54)

“조금 더 바깥으로 제가 더 활동을 하느라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어도 더 많이 이해를 해주는 것, 그런 거고. 그리고 가사분담이죠!” (C11)

3) 조직적 차원 : 조직 문화의 개선

조직적 차원은 여성들이 소득활동을 하는 일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요소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소득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임금의 개선이 되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다 철저히 지켜질 필요가 있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서 여성들이 생계부양자인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소득수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자녀양육이 지니는 가치를 조직적 차원에서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육아휴직을 성별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둔 노동자들의 시간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조직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회사 내부나 근처에 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책적인 지원이나 조직차원의 배려를 통해 보육시설을 회사의 근거리에 두고 아이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면, 이동시간과 여성들의 죄책감도 줄이

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장애의 특성에 맞는 업무에 배치하고, 필요한 장치들을 충분히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직문화는 구성원 모두의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도력과 제도 변화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보육 시설이 직장 안에만 있어도, 정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훨씬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아이들한테 또, 그 상대적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죄책감들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자기 그 직장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확인이 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C39)

“야근의 경우는 아이가 있는 워킹맘에게 부담이에요. 회식자리에 참여 안 한다고 눈치주기 보다 회식도 차라리 점심시간에 한다든지 유두리있게 밤늦게 하는 일은 빼준다든지, 보육제도도 필요해요, 육아휴직도 눈치보고 써야 하는데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제 주변에도] 육아 휴직 쓰고 활동을 했는데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 하면서 불안해했거든요.” (C33)

“엄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아기 때예요. 그걸 사회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 제가 주위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그 여성 어머니, 한부모 가족, 아니면 싱글맘 아니면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엄마들 경우에도 젊은 엄마든 나이가 드신 분이건 간에 일을 하길 원하는 데, 특히 그 젊은 엄마 같은 경우, 저 자신도 그랬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물론 맡겨져요.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만약에 종일반을 한다고 해요. 종일반도 일곱시면 데리고 가야 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섯시 땡 하면 퇴근시켜주고 일곱시 땡 하면 퇴근시켜주는 데가 거의 없고.” (C34)

58

4) 사회적 차원 : 의식변화와 제도적 뒷받침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요소는 사회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은 많은 사회적 요소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수 있

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차원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즉 의식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되었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과 자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소득활동을 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를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일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이야기하였다. 편견문제는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소득활동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일 중요 한 거는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남자니까 신경을 안 쓰고, 집안일은 여자들은 일을 해도 집안일은 내 일 이잖아요.” (C32)

“육아휴직도 눈치보고 써야하는데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33)

“가사노동 하는 여성들 스스로도 아, 내가 가사노동을 하는 거지 집에서 노는 건 아니다, 라는 인식. (...)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 나 집에서 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전환을 하는 운동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C14)

“여성 장애가,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일자리에 맞춰 사람을 투입을 할 때 여성과 장애인을 같이 묶지 않으시고,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봐주셔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지는 않은데, 여성인 것만으로도, 장애인인 것만으로도 일을 못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까지 많으니까 전혀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이런 사회구조적인 편견,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은 정말 확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 (C62)

사회적인 의식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뒷받침은 일자리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주거문제나 의료비, 노후 문제 등 복지영역에서 뒷받침이 필요한 요소로 구분된다.

○ 양질의 일자리 증가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생애주기와 여성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들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이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들이 상황에 맞게 ‘시간제’와 같은 고용형태를 선택하더라도 강제된 형태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나 제도를 확대·도입하여, 다양한 상황의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이 요구된다.

“파견, 콜 센터 이런 거 말고, 차라리 급여가 작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안정적이면은 누군가는 그 자리를 원할 거니까.” (C15)

“정말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는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지만 일단 양이 많아져야지 뭐 돌아가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C2)

“시간제라도 뭔가 이렇게 주부들한테 맞게끔 그 영역별로 만들어가지고, 파트별로, 시간별로, 타임별로,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전문가 기질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조금 다각적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 4차원 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C43)

“이 나이에는,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장애인 단체, 정작 장애인단체고 기관이면서도 장애인의 고용을 조금 많이 꺼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 그래도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는 오히려 몇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고용 비율 이런 게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장애인기관에는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아마 아주 낮은 비율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의무적 비율 이상이라도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조금 더 문을 열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웃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C61)

○ 맞춤형 직업 교육

여성들의 경제적 주체화를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이수와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질 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경제적인 여건, 시간 등 여성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일자리에서 실제로 바로 적용가능한 ‘맞춤형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보다 실질적인 직업교육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에게는 일자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등에 대한 두려움이 일자리 진입을 막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기술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주여성들도 쉼터에서 퇴소하게 되면 자녀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계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쉼터에 거주하는 동안 충실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쉼터를 퇴소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직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여성들의 경우에도 소득활동을 위한 교육을 수행할 때,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농아인들에게는 자격증 교육을 위해서는 수화통역사가 필수적이다. 가까운 일본의 장애인 직업교육제도를 예로 들면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 강조하는 응답자도(C7) 있었다.

“직업훈련이나 지금처럼 요가나 뭐 댄스나 그런 거보다 오히려 직업적으로 좀 나가고 자기가 자신감을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직업훈련. (...) 나중에 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부는 컴퓨터도 하기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미싱 같은 기술 같은 것도 그냥 여기에 있는 동안 시간만 흘러가는 게 말고 직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C25)

“일본을 가니깐, 농아인들이 요리사 자격증이며 요양보호자격증이며 그런 모든 것을 나라에서 돈을 줬고, 또 치매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위해서도 수화통역사가 항상 따라왔고, 수화

통역사는 따로 생각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함께 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거지, 나라에서 돈을 준거죠 일본에서는. 농아 개인이 돈을 준 게 아니라, 나라에서 다 준거예요. 정말 빨리 빨리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7)

이주여성들에게는 전문적인 직업교육과 한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한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거나 중국동포인 경우에는 통역을 하거나,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강사, 무역회사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나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자리의 노동조건 역시 열악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자리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제반조건들이 요구된다.

62

또,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은 현재와 같이 직업교육 정책으로 교육비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넘어서, ‘구직수당’ 등의 형태로 전문 직업교육을 받는 동안 생활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새롭게 제 2의 전문직인 일로 내가 진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이가 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가진 엄마라는 그런 상황이 걸리고, 그다음에 준비작업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육이 걸리는데, 사실 그런 또 교육비가 (...) 어떤 비용 문제라던가 뭐 그런 것들 이러저러 걸리니까.” (C34)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진 후에는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이나 ‘경력관리’와 같은 충실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적극적인 직업상담과 인턴십(internship)과 같은 제도 등을 통해서 구직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제 일자리로 연결시켜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 이주여성(C50)의 경우에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는 특히 ‘안전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나 쉼터 차원에서 ‘안

전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장에 다니는 애들한테는 그런 윈스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주 여성이라도 정말 속고 돈 못 받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계약처럼 보내겠다. 우리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장님과 공장하고 이렇게 윈스톱으로 들어왔다. 이 사람 손이 비워있다. 하면 소개시켜 주는 네트워크 같은 거. 외국인이라도 된다는 조건으로. (...) 동생들을 보면 안전한 직장에서 할 만큼 돈 벌 수 있고 4대 보험이라던가 받으면서 진짜 안전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없는 공장에서, 돈을 잘 내 주는. 몇 개 몇 개 있고. 그 사이에서 애들이 고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C50)

실제로 현재 각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면접 과정 중에 직업교육 경험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제도들을 잘 모르고 있어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형식의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일자리에서의 소득 활동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이 어디에서 직업교육과 일자리 정보를 얻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자리 정보에 약한 여성들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제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공보육 강화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가해지는 보육의 책임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공보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공교육이 자리를 잡은 것처럼, 공보육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을 정책적 차원에서 늘리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보육 강화에 대한 필요는 한부모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또, 남성들에게도 여성과 동일한 육아휴직을 권장하여, 육아의 부담을 부부가 공동으로 나누어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육아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재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도 사회가 그 양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면, 내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C34)

“한부모라는 게 부가 됐든, 모가 됐든 혼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녀 양육에도 이게 좀 어떤 구체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C64)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보장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육아에 전담을 하는 만큼은 그게 인센티브 내지는 호봉에 반영이 되던지. 이게 사회적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거에 여성이 노동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플러스 알파의 점수든 뭐든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같이 하면서도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역할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면 좀 부당하죠.” (C11)

64

“사회적 차원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남성들도 대부분 육아휴직을 썼으면 좋겠어요. 써야지 알 수 있을 거 같구요. 육아나 자립 내지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C12)

○ 특성별 맞춤형 복지 : 현 복지체계의 빈틈 메우기

국가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소득 이상이 되면 생활비 보조, 임대주택이나 의료급여와 같은 복지혜택에서 모두 탈락하게 되는 현실은 복지수혜자격 경계에 있는 여성들에게 많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게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식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소득이 있는 한부모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소득이 있거나 집이 있는 장애여성들에게는 의료급여나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한부모 여성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크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의료비 지출비율이 높은 만큼 의료비 부담이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 직장을 그만두고 법적 한부모로 탈락해 버릴까? 그러면 그냥 법적 한부모로 내려 앉아 버리면 내가 지금 임대 주택이라도 얻을 수 있는 권함이 있잖아요. 그게 맞나?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더 암체 같은 짓인지는 모르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게 훨씬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당장 집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직이고 뭐가 옳은 거지? 애들 미성년자 하기 전에 내가 미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정말 갈등했어요.” (C53)

“저희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으니까, 경비도 지원도 이렇게 안 해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케어 해주고, 일을 안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500원 밖에, 이정도 밖에 안 받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또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빠도 돈은 벌고 싶어 하는데 의료지원 때문에 그냥 수급자로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C24)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특히 주거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안전한 주거지에 대한 불안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비혼 여성들에게는 독신 여성 노동자 임대아파트나 저소득 여성을 안전한 주거지 등이 필요하다.

“저소득 여성을 위한 주거지 있잖아요. 아파트. 그런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늘려도 모자란 판에. 그런 게 좀 답답하고.” (C1)

“진짜 임대아파트 같은 게, 저번에 제가 TV에서 봤었는데 여성들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아파트 이런 걸 해놨더라고요. 아예 이제 아파트 쪽을 해서, 아예 이렇게 좀 이렇게 뭐지, 딱 보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출입하는 건 다 제안하시고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조금 안전하고 또 적은 돈으로 내가 이렇게 할[수] 수 있고, 또 제 친구는 좀 좋았던 게 사택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제도도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 제공하기는 힘들어도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조금은 정부차원에서라도 조금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을 해요]” (C3)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누구보다도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다. 심층면접에서 만난 쉼터거주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자녀들을 한국에서 잘 성장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결혼생활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폭력가해자 남편이 찾아올 수 없고, 찾아오더라도 가해자와의 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영역에서의 보호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 주거, 일자리 등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66

1. 요약 :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현실

본 연구를 통해 만난 여성들은 한결 같이 경제적 자립의 욕구와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여성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립은 한마디로 ‘스스로의 생활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이 가족원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족원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태를 경제적 자립이라고 정의하였다. 결혼을 하지 않은 20~30대 여성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전업주부 여성들은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 ‘시간’과 ‘마음’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냈다.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재생산 활동들은 당장 소득을 벌어들이는 ‘생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들 스스로도 떳떳하기 쉽지 않다는 맥락에서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교육비나 부모님의 노후문제, 자신의 노후 대비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은 욕구는 더욱 커지게 된다. 더욱이 배우자로부터의 폭력피해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생활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이다.

여성들은 생애과정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생계부양자가 된다. 결혼의 통과의례적 성격이 많이 약화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비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결혼을 한 경우라도 배우자의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이나 사별, 이혼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생활의 종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성들 스스로 자기 자신과 가족원들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과정에서 일정기간 이상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계부양자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남성 생계부양자를 전제로 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제도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함께 요구한다.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다.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고, 여성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의 다양한 상황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여성들에게 가능한 일자리는 여성들의 연령, 자녀 유무, 신체적 장애 유무, 한국어 능력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상호교차하면서 서로 다르게 구획된다. 그 결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주로 ‘여성의 일’로 분류되는 ‘서비스·판매직’, ‘저임금·저소득’,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 ‘장시간 노동’의 특징을 지닌다.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열악한 일자리에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여성들이 경험하는 한국의 노동현실은 매우 성차별적이다. 구직과정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편견에 직면하게 된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또 장애나 이주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서류심사에서 통

과가 되지 않거나, 면접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편견에 노출된다. 여성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일자리에서 ‘결혼이나 출산계획’과 같은 ‘사적인 질문’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 면접을 치르더라도 고용주나 직장 상사는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취직이 되는 비율은 지원자의 성비에 한참 못 미친다.

어렵게 면접을 통과하여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중요한 일은 주로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성별직무분리’가 이루어진다. 승진을 위한 평가방식도 남성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 내의 여성들의 승진과정에서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다른 임금이 주어지는 명백한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시정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에서는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 역시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68 일부 정규직을 제외한 다수의 여성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출산과는 다른 맥락에서 ‘경력단절적 이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력단절의 문제가 여성들의 일부 생애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호봉의 증가나 승진이 불가능한 직급으로 분류된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도 가장 약자이기 때문에, 상사들의 비하적 발언이나 폭언, 성희롱·성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 ‘정규직 전환’이 주요 빌미로 작용한다. 이러한 성차별적 노동환경이 여성들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경력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가사노동과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과 동시에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에 소득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가능한 일자리는 더욱 한정적이다.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가사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하루 중

일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시간빈곤’에 시달리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같은 ‘역할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시간빈곤 상태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계발에 투입할 시간이 없어 일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리고 가족원 중에 누군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이 여성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자녀양육이 전념하기를 요구 받는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성들의 삶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누구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경제적 주체로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식적, 개인적, 운동적, 조직적, 정부 차원의 개선노력들이 동시에 요구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문제와 개선사항을 독립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동시적으로 개선이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제언 :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하여

여성들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한다.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생계를 넘어 ‘생존의 문제’임을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각자의 여건 하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와 제약조건으로 인해 아직은 요원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누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큰 틀에서 묶어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주체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과 노동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이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성에 비장애인 부부 중심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노동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누구나 일할 수 있고, 누구나 돌볼 수 있는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들은 생애과정에서 누구나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생계부양자가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만난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이유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생계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에서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많은 여성들의 실제 경험과 삶에는 들어맞지 않는 허구적인 모델임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생계를 부양할 수 있도록 ‘노동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노동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된다면, 생애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개인적·가족적·사회적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애과정에서 마주하는 변화에 따라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토양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차별적이고 장애인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여성들의 상황에 맞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에 부부의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비장애인 남성을 ‘이상적인 노동자’로 상정하여 형성되어 있는 성차별적이고 장애인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나이, 자녀유무, 이주여부, 장애유무 등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요소가 서로 상호교차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한다. 특히

여성들 내부에서도 더 주변화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여성들의 복합적인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고, 이들이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고민한다면 이는 결국 모든 인간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자체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OECD 국가들 내에서도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 중에 하나이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일자리 확대와 노동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단순히 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이고, 그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질의 저하만을 이끌어낼 뿐이다. 실질적인 의미의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축소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 돌봄이나 가족생활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자리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수행하는 방식과 같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세수를 더 확보하면서도,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국가에서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종의 선순환은 필연적으로 공보육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둘째,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성들의 임금·소득 수준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소득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더라도 한 달을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이 여성들의 일자리 임금의 ‘기준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는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에 많이 종사하는 일하는 여성들의 소득수준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 ‘성별임금격차’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성별임금격차의 해소는 필연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복지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는 운동적·사회적 노력과 맞닿아 있다. 운동의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중요한 ‘여성들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셋째, ‘남성중심적’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직 문화’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하는 절대적 시간을 줄이고, 출퇴근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하는 양과 속도를 줄이면, 장애를 가진 여성들도 일자리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어려운 여성들에게 불리한 성차별적 근무 평가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행하는 가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적·제도적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 인턴이나 계약직 사원과 같은 비정규직 여성들이 성희롱과 성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만큼,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실태를 조직과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의 일자리 문화가 ‘돌봄의 가치’를 체현하는 조직문화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자녀를 둔 직원들의 시간사용에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직적·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실제로 ‘남성의 육아휴직’과 ‘육아 단축근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현실적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등 정책적 보완 및 유도를 통해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육시설을 직장 내부나, 회사 밀집 지역에 설치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한다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보육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직원 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요소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미숙련의 ‘허드렛일’만 하지 않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과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특성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서 현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성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가구 내의 남성생계부양자를 가정하고 이루어진 기존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이 요구된다.

면접에서 만난 여성들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주거’와 ‘의료’ 복지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은 있지만 집이 없는 한부모 (이주)여성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저렴하고도 안전한 주거’ 복지가 가장 필요하다. 소득수준에 비해서 높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독신 여성들에게도 2~3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주거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소득이 있거나 집이 있어 장애인 수급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장애여성들에게는 ‘의료급여’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이 ‘의료급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일자리 활동을 주저하게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은 경제적 자립의 기초적인 요소이다. 장애여성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더 자주 병원에 가게 되고, 의료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료비용을 스스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은 생활이나 생존의 의미를 넘어, 여성들에게 자존감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의 경제적 자립을 원한다.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하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차원과 행위자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있어서 동일한 여성은 없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이 맞물려 있는 다양한 여성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반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여성들의 경제적 삶이 구획되는 방식을 다각도에서 밀도 있는 이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차원은 다른 차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주체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와 섬세하고도 동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메이슨, 제니퍼(Mason, Jennifer). 1999.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 나남출판.
- 스트라우스 · 코빈(Strauss & Cobin).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현문사.
- _____. 2005. 『근거이론의 이해』 김수지 · 신경림 역. 도서출판 한울.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외. 2004.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윤택림. 2013.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 크레스웰, 존(Creswell, John W.).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조흥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 공역. 학지사.
- 통계청. 2015a. “2015년 8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 _____. 2015b.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국은행. 2015. “2015년 2/4분기중 가계신용.” 보도자료.
- Collins, Patricia Hill. 199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Pedagogy*. Boston: UnwinHyman.
- Crenshaw, Kimberlé.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Politics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39–167.
- _____.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1241–1299.
- Dill, Bonnie Thornton, and Ruth E. Zambrana, eds. 2009. *Emerging Intersections: Race, Class, and Gender in Theory, Policy, and Practi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Hartmann, Heidi. 1976.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Signs* 1(3): 137–169.
- McCall, Leslie. 2005. “The Complexity of Intersectionality.” *Signs* 30(3): 1771–1800.
- OECD. 2014.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4-en
- _____.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5-en
- R.L.W. and D.H. 2015, March 5th. Daily chart: The glass-ceiling index. *The Economist*. Retrieved from <http://www.economist.com/>
- Walby, Sylbia. 2011. “Feminist Intersection.” *The Future of Feminism*. London: Polity. pp. 125–146.

〈참고자료〉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과제⁶⁾

1 여성 노동

1. 성별임금격차 해소

-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마련
- 공공기관 남녀임금 격차(직급, 고용 형태 포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연차별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및 성별임금격차 30% 이상 기관장 규제
- 최저임금 평균임금 50%이상 인상·제도화, 위반사업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 취약계층 여성의 노동권 보장 및 사회안정망 강화

- 시간제 일자리 확산정책 중단 및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법 전면 적용
- 사회 안전망 확대 : 자발적 실업에도 실업수당 제공 및 두루누리 적용 사업장 30인 미만으로 확대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

3.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

-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자 전면 재검토 및 정규직 전환
- 공공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고용 및 노동권 보장, 시급 1만 원 이상 적정 임금 확보로 일자리의 질 향상
- 돌봄서비스 여성일자리 OECD 수준으로 확충 및 공공성 강화 :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직영체제 또는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할 기구(공단, 재단) 설립 등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6) 이 정책 과제는 2016년 총선의제를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공동 작성한 것임

2 일·생활 균형

1. 지속가능한 여성노동을 위한 모성권 강화

-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및 모성권 강화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에 하는 제도 마련 및 법제화
- 지역 단위로 명예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운영, 지방노동청 여성고용과 부활 등 여성노동 행정 강화

2. 돌봄의 남성 참여 확대 및 부성권 강화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남성의 일·생활·돌봄의 균형 지원 및 부성권 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로 확대 및 전일 유급화
- 남성 육아휴가 1개월 의무사용 추진

3 이주여성

77

1. 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권과 인권보호

-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종속 체류권제도 개선과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 가정폭력 범주를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학대와 협박 등 광범위하게 적용
 - 국제결혼중개업소 등 인신매매 및 폭력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하도록 관계법령 개정
- 유흥업 종사자 이주여성(E6-2)의 성매매·인신매매 예방 및 인권보호
 - 외국연예인의 유흥 시설 파견을 보장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근거 조항을 검토하여 성매매 유입 방지
 - 법무부는 인권 침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선보호 후조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로 인해 사업장 이탈의 경우에는 벌금 면제
- 이주여성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제한 규정 등 개선과 인권보호
 -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장소이전의 제한, 고용주 일방적 고용관계, 단기 로테이션 제도의 개선

- 사업장 성범죄 예방교육 및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와 미등록상황에서도 피해자 입증시 출국조처 대신 피해보상 과정 지원
- 외국인처우기본법상 배제된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 인권과 미등록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및 의료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2.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대책 마련

- 이주여성쉼터 사업에 이주여성 직업교육 및 안정적 일자리 지원, 정부 예산 편성
- 쉼터 거주 이주여성들이 직업교육 및 취업 시 동반자녀 양육 부담 감소 방안 마련

3.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만들기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일반 이주가족으로 확대하고 지원 확대
- 열린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시민사회에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를 금지하는 인식개선교육 실시

78

4 여성장애인

1.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 여성장애인 특화된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 여성장애인 고용제도 및 교육 기회 확대 마련
 - 장애인 의무고용률 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 50% 준수
 - 여성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창업지원,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개발
 -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장애여아, 장애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 여성장애인 성적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당사자 대상 교육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 장애 관련 모든 통계의 성별분리통계 구축
- 여성장애인 현황 관련 지표 구축 및 성인지예산 작성
- 여성 장애인 양적·질적 실태조사 실시
- 장애 및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장애인 당사자성이 반영된 정책 분석·연구
- 행정부처 내 여성장애인 지원 추진전담체계 설치
- 전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2.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 재생산권 관련 정보 접근성 확보
- 재생산권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유형별 출산, 육아 등 준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 지역, 소득,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성권 보장, 장애유형을 고려한 모성보호
-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도우미 지원
-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및 양육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경제적 보전
- 종합병원 산전 검진 비용, 산후조리원 추가발생 비용, 양육지원금 등 지원
-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관리 및 상담지원체계 구축
- 청각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화통역사 활용
- 출산이후 적절한 산후조리가 될 수 있도록 홈헬퍼 서비스 양적 질적 확대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산전 교육 지원 및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 대처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담지원체계 구축
- 장애유형별(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자녀 양육지원 제도 마련
-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 및 정보 접근성 확보
- 학부모의 장애에 따라 적절한 방식의 자녀 학교생활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및 담임교사와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
- 모자보건법 낙태의 범위 재규정

5] 한부모 여성

1.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개선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 미 이행 시 여권발급 거부, 운전면허 금지, 신용등급 하향조정제도 등
- 양육비 지급율과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방안 검토
-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법률지원 대책 마련

2. 한부모 가족의 일·돌봄·생활의 균형 지원제도 추진

- 취업한부모를 배려한 조직문화 확산
-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사, 양육,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대안적 돌봄자원의 발굴 및 지원
-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80

3. 실효성 있는 맞춤형 자립지원책 마련

- 포괄적인 맞춤형 자립 지원책 마련 : 소득지원 한부모 상황 관리, 구직·육아·직업훈련과 취업 시 부가급여, 취업지원업무 등 포함한 포괄적 상담 지원
- 안정적인 직업전환 위한 체계적인 자립방안 보완 : 교육훈련 생계비와 인턴비 지원 등
-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 한부모 우선 고용

6] 청년 여성

1. 청년 여성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

- 전월세 전환율 정율화 및 법제화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주거정책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설치, 청년할당 통해 청년 목소리 반영

2. 청년 여성 고용할당 의무제 실시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이중 여성 비율 50% 의무화)
- 민간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의 5% 이상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화(이중 여성 비율 50% 의무화)

자립의 식탁



여성의 먹고사는 이야기

토론 1

현재 소득유무 보다 큰 틀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논의해야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및 재취업 지원정책

이정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사무관)

토론 1

KWAU

현재 소득유무 보다 큰 틀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논의해야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문은 연령, 혼인상태, 장애유무, 이주여부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66 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해 스스로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와 노동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와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발표문에서 지적하듯이, 여성들은 단일한 범주로 묶일 수 없고,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85

특히, 발표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해서 주거비의 문제, 빛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의료의 문제, 복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다양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라고 할 때 현재의 고용실태나 소득유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데, 발표문에서는 여성의 삶에서 경제적 자립은 보다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향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논의를 추진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발표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오늘날 여성의 경험과 삶에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사실 어느 시대에 ‘모든’ 여성에게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적용되었던 때가 있었던가? 발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대다수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참여는 개인적인 욕망의 차원을 넘어서서 경제적 필요와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수입이 3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안정성이 28.0%로 나타났다. 반면, 보람·자아성취는 6.2%에 불과했다¹⁾. 남성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과 큰 차이가 없다. 2014년에는 경제단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성이 계약해지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2년 동안 7차례나 ‘쫓개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녀는 유서에 “노력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 아주 24개월 딱 채워 쓰고 버려졌다”는 글을 남겼다. 최근 들어 20대 사회초년생, 결혼을 앞둔 여성, 어머니인 여성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다가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빈번히 보도된다. 원인으로서는 고용불안,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근로환경, 성희롱·성추행, 부당한 조직문화, 근로자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조직적 상황으로 인한 심적 고통 등이 거론된다. 왜 그녀들은 사직을 하지 않고 자살을 했을까. 왜 점점 이런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일까. 전통적인 성별화 된 노동윤리로는 더 이상 변화하는 여성의 직업의식과 현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일에 대한 여성들의 변화하는 가치관, 태도에 주목해야 한다.

86

발표문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들의 사례에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차별받는 것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양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발표문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적 노동환경을 제한된 일자리,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 임금격차, 성희롱, 유리천장,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성차별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발표문에서는 여성들의 일자리의 성격을 서비스직, 저소득, 불안정한 노동, 장시간 노동 등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여성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서비스직이다. 특히,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여성이 재취업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별로 없다. 여성들이 40-50대에 이르기까지 전업주부로 살았든, 계속 노동

1)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결과

시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제한적이다. 이는 발표문의 다양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할 확률이 높다. 2015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63만원이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할 때 약 116만원이다. 중장년여성들은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나이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나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현재의 인구구조를 볼 때 중장년여성의 고용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장년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고, 전직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여성/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내년에 월급 126만270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자영업을 하는 여성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취업자의 24.6%인 2,642천명(2014년)이 자영업자이다. 현재 여성 자영업자 중에 직원이 있는 경우는 13.6%에 불과하다. 나머지 46.6%는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이고, 39.7%는 무급으로 가족 사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한국사회에서 자영업을 하게 되면 장시간 영업과 노동,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구조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더불어 20대 여성의 노동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발표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채용과정에서부터 차별받고 있다. 유사한 ‘스펙’이면 남성이 더 좋은 일자리에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여전히 ‘남성’이라는 것 자체가 스펙이라고 한다. 공무원, 교사 등 각종 시험에 특히 여성들이 몰리는 현상도 대기업, 중견기업 등 괜찮은 민간기업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0대 여성의 고용문제는 단지 20대라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20대 여성의 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대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경험은 30대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40대 이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많은 직업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2013년)은 2,071시간으로 OECD 평균 1,671시간에 비해 현저히 길다. 한편, 시간당 노동생산성(2012년)은 30.4달러로 OECD 평균 46.6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근로시간은 OECD 국가 28개국 중 3번째로 길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개국 중 28번째로 낮은 것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여성고용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KWAU

토론 2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및 재취업 지원정책

이정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사무관)

별지 참조

89

자립의 식탁



여성의 먹고사는 이야기

심층면접 사례 : n명의 여성, n개의 자립

- 20,30대 여성의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한국여성민우회
- 2015년, 헬조선을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이야기 부산여성회
- ‘집에서 노는 여자’와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을 넘어서는 대구여성회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이야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연구 참여 이주여성들의 이야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부모 경제자립, 너무 힘들어요” 한국한부모연합
-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한부모 여성 안양여성의전화
-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선생님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친구 울산여성회
- 40대 경력 단절 전업주부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대전여민회
- 여성장애인의 자립, 먹고 사는 이야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씩씩한 여성들 포항여성회
- 의미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40대 여성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사례 1
KWAU

20, 30대 여성의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노새, 모구 (한국여성민우회)

○ 남초 직종, 남초 직장, 남초 직군에서 일하는 태은의 이야기

(27세, 장비업체 개발자)

공대출신의 태은은 한 장비업체의 여성개발자이다. 100여명의 회사 직원 중에 여 직원은 단 네 명. 소위 말하는 ‘남초직종, 남초직장, 남초직군’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에 다닐 때도 남학생이 훨씬 많긴 했지만, 이 정도로 여자가 없진 않았다.

“웬만하면 개발자는 남자로 뽑아라”는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태은의 회사는 애초에 여지지원자를 개발자로 잘 뽑지 않는다. 같은 과 여자 동기 역시,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듯’ 개발자로 취직한 후, 회사에서 태은과 같은 말을 들었다. “아, 우리 정말 여자는 안 뽑으려 했는데...”

‘운 좋게 면접을 잘 봤다’는 태은은 회사에서 ‘유일한 여성개발자’ 라는 타이틀 과 함께 현재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막상 입사하고 나니, 남자 동료들과 돈도 대우도 똑같이 받아 ‘차별적인 대우’랄 것이 없었지만, 태은은 이렇게 ‘여자를 잘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곧 결혼할 거니까’, ‘애 낳을 거니까’, ‘남자들끼리 있는데 불편하니까’ 등등, 결국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환대받지 못한 경험은 처음이 아니었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장비 업체에서 인턴으로 지낸 3개월 동안, 태은은 ‘헬게이트’ 를 만났다. 헬게이트 안에는 ‘자기 팀에 여자를 받기 싫어하는 상사’가 있었다.

‘직장내 군대문화’ 어디까지 가봤니?

“‘회사에서 화장실 갈 때 허락 받고 가라.’ 진짜 초등학교 이후로 (웃음) 초등학교 이후로 내가 그런 거… 화장실 갈 때 허락 받고 가고, 뭐, 선배가 일어나면, 선배가 자리에 앉기 전에… 그니까 뭐, 군대식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장비업체 이런 데서는. 왜냐면 남자가 거의 다니니까..”

선임은 인턴들에게 <행동강령>을 받아 적으라고 했다. 화장실을 갈 때 허락 받고 갈 것, 선배 보다 밥을 빨리 먹을 것, 선배보다 일찍 출근하고 선배보다 늦게 퇴근할 것, 선배가 일어나면 뛰어나가서 문을 열 것 등등. 태은이 나름 공대에서 자주 겪어보아(?) 익숙하다고 여기고 있던 남자들만의 문화, 남자들만의 텃세 정도가 아니었다. 상식을 벗어나는 요상한 주문들에 태은은 적응할 수 없었다.

94 인턴기간 3개월 동안 태은을 가장 짜증스럽게 만들었던 말은 바로 이 말이다. “야, 니가 여자라고 특별대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다 해.” 매 시간 마다 물통에 물 갈기 따위의 일을 시키면서, 선임은 매번 이 말을 덧붙였다.

인사팀에서는 ‘시간외 급여 책정이 번거로우니 인턴에게는 야근을 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실 인턴의 일이라는 게, 야근을 해야 할 만큼 많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번 퇴근시간이 가까워 오면 선임은 태은에게 잡다한 일들을 시켰다.

“퇴근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면, “뭐야? 가는 거야? 야근 안 해요?” 란 말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해댔다. 농담이라 여기고 “죄송해요” 받아칠 때도 있었고, 인사팀에서 내려온 지시를 상기시켜줄 때도 있었지만, 선임의 “야근 안 해요?” 는 계속 되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야근 시킬 일이 있으면 인사팀에 말을 해서 애들 야근… 꼭 수당 줘라. 그럼 나도 야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는 지가 꼬우니까… 그러구 막 뭐야. “무상으로 해, 너는 무상운동 안 해? 봉사 안 해? 그 정도 열정 없어?” 막 이런 얘기하는데.. 뭐 저런… (웃음)”

태은의 인턴경험담은 찰리 채플린의 명언을 떠올리게 했다. 직장생활은, ‘가까

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일까.

천 번을 흔들려야 '동료'가 되는 건가

선임뿐만이 아니었다. '까라면 까',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막 굴려'가 '먹히는' 직장 분위기에선, 극소수의 여직원들이 고립되기 또한 너무나도 쉬웠다. 새로운 남자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었지만, 여직원의 경우는 달랐다.

신입 여직원들은 매번 남자직원들의 구설수에 올랐다. 외모품평으로 시작해서, 누구 하나라도 여직원에게 '잘해주는' 남자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도 다른 남자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그네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한 마디 인사나, 비품이 어디에 있는지, 업무와 관련된 대화마저도, "야 뭐야? 재 왜 저 여자한테 잘해? 여자 왜 이렇게 좋아해?" 하는 식으로 견제되기 일쑤였다.

한 마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태은은 '동료'로 존재하기 힘들었다. 남자 직원들이 자신을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은은, '누구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자연스럽게 여성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95

그리고 태은의 말대로, 그것을 뚫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만 고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는 전략이 필요하다. 같은 전략을 쓰고도, 실패와 성공이 반복된다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에게는, '동료'라는 출발선에 서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털털한 성격의 태은은, '극도의 털털함'을 전략으로 삼았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말을 걸거나, 사내 친목모임에 누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식이었다. '누구하고만 친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며 '원래 그냥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잘된 케이스고, 거기서는, 내가 (노력을) 할려

는데 (그 상사는) 전혀 그걸 곱게 봐줄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가서 말 시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작정한 상사에게는 그 어떤 친절도 노력도 소용없었다. 태은은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다음 전략은 ‘그냥 정색하고 말 안 하기.’ 회식 후 술자리에서 또 ‘여자니까 특별대우’ 운운하며, “그냥 내가 얘기하면 내 말대로 하면 되지, 내 말에 토 달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였다.

“그 때 인제 결심 한 거지. ‘난 여기 안 가겠다.’ 그 전에는 ‘아 어떻게든 해봐야겠지 여기서…’ 하니까 마음이 (힘들었는데)… 내가 정나미가 다 떨어져가지구 정색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나머지 2주가 3주를 말 안하고 보냈는데 나도 편한 거예요.”

중소기업청과 학교의 산학협력을 통해 연결된 인턴 기회였다. 인턴 기간 이후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될 것이 이미 내정된 자리였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첫 직장이 될 회사였다. ‘예정된 정규직 채용’이라는, 크다면 큰 기회를 내려놓는 데 태은도 주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 내 결심했다.

96

그러자, 웃으면서 노력할 땐 대놓고 갈구던 사수가, 반대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일종의 ‘수습’처럼, 채용이 예정되어있던 인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명목으로 인사팀에게 문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태은은 몽땅 때려치우지 않고 남은 인턴기간 만큼은 버티기로 결정했고, 말 안 하기 전략은 잘 먹혔다. 태은은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인턴 3개월 후, 회사 인사팀의 정규직 채용 제안에 태은은 거절 의사를 밝혔다. 같은 팀에 인턴으로 함께 들어온 동기는 세 사람. 또 다른 여자 동기 역시, 정직원 채용을 거절했다. 남은 한 사람, 남자 동기만이 채용 제안에 응했다.

결혼한 이후에도 일하는 ‘아줌마개발자’를 본적이 없어요

태은은 새로운 회사에 다시 취직했다. 임금 조건이 더 나은 곳이고, 무엇보다도

이전 직장과는 같은 군대문화가 덜한 곳이라 마음에 든다. 지금 태은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태은이 느끼는 ‘고용의 안정성’이란 것은 왠지 남자 동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아줌마개발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100여명이 넘는 우리 회사에, 여직원은 네 명 뿐이고 결혼한 이후에도 일하는 여성개발자가 회사 창립 이래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첫 번째가 되겠어!’ 라고 의지를 불태울 ‘개척자’가 얼마나 될까. 의지대로 되는 일이긴 할까.

‘아줌마개발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 스스로가 그 ‘아줌마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도 자신 없다는 것. 어렵사리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여성개발자 태은이 느끼는 불안은 거기에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대체적인 직업은 비정규직이고, 나처럼 정규직 할 수 있는 데는 재취업이 겁나 힘들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선택지가 너무 적잖아요. 비정규직 해가지고 임신해도 계속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근무환경은 안 좋지만 계속 일하는 직업으로 할래, 여자인데 정규직으로 했는데 임신하면 끊기는 거 할래? (웃음)”

5년 후엔 계속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10년 후는 잘 그려지지 않는다. 결혼은 늦게 할 생각이지만, 결혼한 후에 직장은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 출산? 지금으로선 생각이 없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태은은 왠지 ‘그 문제의 원인을 체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영진의 이야기

(31세, 인터넷 콘텐츠 관리)

너는 A회사 소속 월급 127만원, 나는 B회사 소속 월급 132만원

영진은 스무살부터 일을 시작했다. 부모님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다니던 대학을 한학기만에 그만뒀다. 고졸 학력으로는 괜찮은 일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

런저런 알바를 하다가 집과 가깝고 인터넷 콘텐츠를 관리하는 일이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알바를 시작했다. 이 알바를 계기로 십년이 지난 지금도 콘텐츠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저임금이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잘 구한다”고 말하는 영진의 첫 직장은 대기업 콘텐츠 관련 파트였다. 누구나 들으면 알법한 대기업이었지만 대기업 소속이 아니라 파견업체에 소속된 계약직으로 일했다. 지금도 고졸이라는 학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영진이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월급은 130만원 남짓이다. 동료들과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된 파견회사마다 떼어가는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받는 월급도 차이가 났다.

“회사마다 수수료 책정이 달라서 월급이 달라요. 저도 다닐 때는 제가 클릭해서 들어간 정보만 보고 들어가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심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보다 낮은 친구도 있고 높은 친구도 있고.”

98 이전 직장에서 파견업체 담당자 때문에 열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구직할 때는 여러 파견업체에 서류를 넣었다. 파견업체마다 조건이 다르고 잘 챙겨주지 않는 담당자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곳에 파견하는 파견업체에 모두 지원한 뒤 합격한 곳 중 조건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노하우까지 생겼다.

“검색되는 파견업체에 같은 일이면 다 넣었어요. 파견업체끼리는 모르잖아요. 그중에 어느 곳이든 연락이 오면 비교하고. 왜냐하면 제가 2년 일할 때도 그 사람이랑 얘기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저를 말던 분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됐는데 그분이 되게 협조적인 대우를 안 해줬어요. 반말같이 ”그래서 더 계약 안 해?“ 그러기에 ”어, 안 해.“ 이렇게 반말하고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열이 받아서 말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계약서 쓰러 온다고 한 적이 언젠데 지금도 안 오시냐고 제가 막 화냈어요. 암튼 그런 일이 있어서 잘 신경 써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어차피 내 월급의 일부를 그 사람들이 받는 건데.”

대기업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섬

첫 직장에서 영진이 속한 파트에서는 30명이 넘는 사람이 모두 영진과 같은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마치 섬처럼 비정규직끼리 따로 앉아서 일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돈독해서 그나마 괜찮았다는 영진이 힘들었던 부분은 비정규직에 대한 ‘소소한’ 차별대우였다.

“근데 좀 그런 게 힘들었어요. 너무 정규직이랑 계약직이랑 공간도 딱 나뉘져 있고. 책상도 계약직이 딱 요만한 거라면 정규직은 이만한 거 쓰고, 소소하게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면 올해 총결산하면서 보너스 준다는 얘길 했을 때 좋아했는데 정작 받을 때는 거의 제외돼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고.”

자리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도 비정규직끼리 알아서 해야 했다. 파트의 관리자로 정규직이 있었지만 보고만 받을 뿐이지 업무를 배분하거나 지시하고 논의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역할은 5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한 사람들이 담당했다.

99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불분명해서 항상 저희가 책임져야 되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파트에서 요청이 오면 무조건 야근해서라도 해줘야 되고. 관리자라고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일을 해본 게 아니니까 이해도가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파트에서 무리한 요청을 해도 중간에서 조율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업무 배분 같은 건 그냥 오래된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맡겨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 그런 분위기로 일했던 거 같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파견업체 소속으로 2년을 근무한 사람들은 대기업 자체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윗선에서 정규직 전환이 계속 막히자 5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줄줄이 회사를 나갔다. 결국 겨우 1년

정도 일한 영진이 제일 오래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업무 배분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제가 하는 일조차도 원래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원래 정규직인 사람이 관리만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계약직이 하게 된 거죠. 원래 모든 일이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점점 연차 쌓이면서 일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오래된 분들이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나가니까 빈자리가 엄청 크고 그 사람밖에 모르는 일이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 내려온 얘기가 (정규직 전환이) 윗선에서 잘렸다고 하니까 더는 계약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계약직끼리 되게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옛 먹어라 하고 나간 사람도 없고 일도 잘 알려주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업무에 큰 지장은 없었는데 오래된 두 사람이 프로같이 같이 나눠하던 일을 제가 혼자 다 떠맡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100

다행히 업무에 지장은 없었지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다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영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새벽에 응급실에도 실려 가고, 여기저기 몸이 많이 아팠다. 월급 130만원 받는 계약직인 영진에게는 계속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을 짊어지기엔 그냥 때려치울까 고민되는 결정적인 고비를 꼭 참고 버틸 만한 이 유도, 보상도 없었다. 결국 회사를 관뒀다.

“일하면서 제일 힘든 건 제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제가 받게 될 급여는 변함없는 거. 매일매일 그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직면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건 정규직이 해야 할 거 같은 일을 계약직이 다 맡아서 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중간관리자가 되든 전체책임자가 되든 그 일을 하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나 이런 게 되지 않는 게 힘들었죠. 많이 힘들죠.”

너무 상식적이어서 이상해요

현재 영진은 이전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전 회사와는

달리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회사라고 한다. 월급은 150만원으로 이전 직장보다 많다. 그간 구직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져서 임금 협상할 때 너무 낮게 부른 건 아닌가 싶지만 스트레스가 없고 사람들이 잘해주는 상식적인 곳이라 만족한다. 지금 일하는 회사는 어떠한 질문에 영진은 “이게 더 인간적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상식적이어서 이상”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슬프다고 덧붙였다.

“그만둘 것 같나 봐요. 그래서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슬퍼요. 당연히 적응 잘하나 안하나 신경써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써주지. 부담스럽게.’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런 회사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머리로는 생각 안하는데 그 당시에 느끼는 감정이 가장 솔직하잖아요.”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적이고 일상적인 차별대우, 과중한 업무, 동료에 대한 비인격적인 언행이 일상적이었던 곳에서 일했던 영진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곳이 참 낯설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전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좋은 게 많”은 지금 직장에서 잘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영진은 스무 살부터 지금까지 십년 넘게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돈을 벌면서도 자유롭다고 느끼 적이 없는데, 빨리 취직이 되지 않아 실업 기간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길어지게 되면서 속박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영진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이란 무엇일까.

“경제적 자립은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게 미래가 됐든 지금이 됐든.”

사실 영진이 첫 직장을 선택한 이유는 “칼퇴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다.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일에 에너지를 쏟다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의 일러스트를 어느 매체에 임금을 받고 연재하기도 했다. 언젠가 부업이 되더라도 그림을 더 발전시켜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영진이 처한 조건은 영진의 발목을 잡는다. 십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경제적 상황은 아직 불안정하다. 실업 기간에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병원비가 없어 룸메이트에게 빌린 돈, 면접 보러 갈 차비가 없어 협동조합에서 긴급지원으로 대출받은 돈은 아직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있다. 그렇기에 영진이 그리는 5년 뒤 자신의 모습은 “별 거 없다”고 말한다.

“일단 빚도 좀 갚고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친구들이랑 살지만 일단 혼자 집을 구해서 살고 싶기도 하고, 저 되게 별 거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밥 한 끼 먹는 거 부담 안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소박한 생각이거든요. 진짜 친구들이랑 만날 때 돈 생각하면서 얘는 만날 수 있겠다, 얘는 못 만나겠다 이러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 얘기 못하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한다고 뭐.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앞서고.”

영진과 나는 이야기들을 다시 되짚으며 상상해본다. 지난 십년간 영진에게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직장,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이 주어졌다면 영진은 하루하루를 저당 잡히지 않고 그림도 그리고 나만의 공간도 마련하고 친구들도 편히 만날 수 있었을 거라는 상상 말이다.

KWAU

사례 2

2015년, 헬조선을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이야기

조영은 (부산여성회)

○ 지방대 인문계열 대졸여성에게는 멀기만 한 취업의 길, 자립의 길

(27세, 취업준비생)

경제적 자립 = 직업을 가지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은 우선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규직 이든 비정규직이든 내 밥벌이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자립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되어서부터는 용돈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학비는 엄마 아빠가 내주시긴 했는데, 용돈은 받은 적은 거의 없고, 용돈벌이는 제가 계속 해왔어요. 취업준비생인 지금도 그냥 큰 돈 쓸 일 말고는 차비나 핸드폰 요금은 다 제가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자립은 아니죠. 집도 엄마 아빠 것이고 밥도 얻어먹는 거니까.

남자가 최고의 스펙이다?

제가 언론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시험을 치러 가면 여자들이 많은데 면접에 가면 여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언론분야는 여성이 취업되기가 힘든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최종합격자는 남자가 많으니까. 우리 과에 방송국PD가 된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그 언니도 자기 말고는 동기 중에 여자가 없다더라고요.

여자는 특히 취업이 쉽지 않아요. 여자 대학 동기들보면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취업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동기들, 선배들은 의외로 쉽게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동기들이 잠수를 많이 타요. 이유는 취업이 안 됐으니까… 알고 보면 다 공무원 공부하거나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서로 처지가 비슷하니까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남자가 스펙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정말 와 닿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나 처음 취업준비 할 때는 내가 잘하면 취업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회의 잘못된 것 같고 남녀 차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시험을 못치고 부족하니까 취업을 못한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느끼니까. 특히 여자 문과생은 취업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문사철(文事哲) 전공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여기는 지방이라 일자리도 더 없고…

취업전선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후진 남녀차별 관행

방송국PD입사 시험에 최종은 아니고 1차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일단 면접관이 남자밖에 없어요. 면접관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다 남자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힘든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남자한테는 안 물어 보고 “여자인데 힘든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계속 대답을 하긴 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몇 년씩 공부해서 면접까지 온 거는 의지가 있고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인데 계속 힘든 일 할 수 있는지만 묻고, 다른 깊은 질문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언론사 취업준비 커뮤니티에 가면 여자 구직자들한테 괜히 안 해도 될 질문을 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느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거냐는 질문이 대표적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신문사에 행정직원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남자친구 있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없으니까 없다고 대답하긴 했는데, 있다고 하면 남자친구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나 뭔가 불이익이 될까봐 있어도 없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번엔 남자친구가 없어서 없다고 했지만 앞으로 남자친구가 생기더라도 없다고 말할 생각이예요.

우리 20대들이 공무원이 좋아서 공무원시험 준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한지가 2년이 넘었는데 나이가 조금 더 먹어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면접까지 잘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면접까지 가는 것도 힘들니까... 그 사이에 취업준비를 많이 해서 점점 스펙은 좋아지는데 서류 통과율은 낮아지니까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취업하려면 면접 보는 일반기업이 아니라 시험 보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곳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많은 여자는 많이 안 뽑아주니까. 취업에서 여성이 불리하니까 계속 더 공무원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대기업 면접까지 간 친구도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하고 있어요. 되게 공부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취업준비도 많이 한 친구인데 토익이 980점 넘는 그런 친구예요. 결국 대기업 최종면접까지 갔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공무원 하겠다고 말하고 공부한지 4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인재들이 동사무소로 다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사무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취업 준비생에게 갑질하고 희망고문하는 사회

올해 000신문사에서 기사를 뽑았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을 두 달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 동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으면 뽑고 아니면 탈락시키겠다는 거지요. 처음에 두 달로 공고를 내서 필기시험 합격자들이 열을 받았고, 심지어 그 회사 다니는 기자들도 반발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생업을 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그만두고 가야 하는 거니까. 돈은 인턴치고는 많이 준다고 해도, 150만원인가 준다고 하던데 불합격하면 그 돈만 받고 끝인 거잖아요. 논란이 많아지고 언론에 기사가 뜨고 하니깐, 결국은 2주로 줄여서 하기로 했어요. 다른 회사는 실습을 해도 한 3일 이렇게 하고 다 뽑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오래 사람을 테스트를 해야 하느냐. 사람 긴장되고 더 힘들게 하냐고 취업준비생들은 욕 많이 했어요.

작년에 부산의 00일보도 한 달 동안 최종면접 봤었어요. 아는 사람 중에 결국에 그 한 달을 하고 떨어진 애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몇 명을 떨어뜨릴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개는 부산사람이니까 괜찮았죠. 서울에서 온 사람

들은 고시텔 같은 곳 잡아서 살았거든요. 누가 떨어질지 모르니깐 인턴들끼리 동기가 아니라 경쟁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긴장과 초조의 상태에서 열심히 했지만, 안 된 사람도 있었으니까. 차라리 몇 명이 떨어질지 안다면 마음은 편할 건데, 몇 명 붙일지 말 안 해주고, 괜찮으면 붙고 안 괜찮으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났어요.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하는 횡포라고 생각해요. 요새 공기업이나 공단에서는 청년 인턴을 뽑는데, 이런 인턴 중에서도 그냥 인턴만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채용형 인턴도 있어요. 잘되면 정규직 될 수도 있는데, 보통 70%가 많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그 때부터 피가 말리는 거죠. 그걸 한 3~4개월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후기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병이 걸린 사람들도 있고 최종 채용에서 떨어지고 나면 후유증이 커요. 꼭 몇 명 더 뽑아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취업준비생들한테 기업이 하는 갑질이 아닐까요?

106

경력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한 데는 안 갈 건데 우리 같은 취업 준비생은 너무 절박하니까 어디든 무조건 가야 하는 게 현실이죠.

경력직을 선호하는 회사 VS 경력 쌓을 기회조차 없는 취준생

취업을 도와준다고 만들어진 지방대 가산점, 고졸 가산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 취업준비생끼리 갈등이 많아졌어요. 서로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저는 기업이 공정하게 남자든 여자든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상관없이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갈라놓기 하고, 나누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경력직 위주로 뽑으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 어디든 들어가야지 경력이 생기는데, 그걸 처음부터 막으니까 계속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취업뿐만 아니라 인턴 자리도 경쟁이 너무 심해요. 제 친구가 다른 지역에 인턴을 지원하러 갔는데, 2명을 뽑는데 30명이 왔대요. 제 친구는

떨어졌지만, 자기도 부산에서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사람이였대요. 2명을 뽑는데도 그렇게 몰리는 이유는 청년인턴이라도 해야지 경력이 생겨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글을 쓸 수 있으니까...

○ **열정페이와 여성에게는 여전히 후진 노동환경을 박차고 나와 프리랜서가 되다**

(26세. 프리랜서 애니메이터)

내가 프리랜서가 된 이유

저는 지금 프리랜서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관련회사에 들어가서 일했지만 회사자체가 너무 저랑 안 맞았어요. 특히 대표님과 잘 안 맞았지요. 애니메이션 업계가 임금이 워낙 적으니깐 대표님이 매달 식비를 별도로 주셨었어요. 그런데 식비를 제날짜에 안 주시니까 식비 달라는 걸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너무 드세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노동절 때 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쉴 것 같아서, 제가 PD님한테 “노동절에 쉬어야 된다”고, “안 쉬어서 신고당하면 벌금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PD님이 그걸 대표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실에서 나와서는 인심 쓰듯이 쉬게 해준다고 쉬자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아티스트야 노동자는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밥 벌어서 먹고 살면 노동자 맞지 무슨 아티스트인지 좀 어이가 없었어요.

조금 더 조건이 좋은 회사로 옮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지방에는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서울에 가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제가 당장에 돈을 많이 벌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서울에 가면 생활비 자체가 많이 들고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제가 여기에는 생활터전이 있으니깐 그냥 여기에 있으면서 스스로 일을 받아오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프리랜서를 하게 되었어요.

열정페이란 이런 것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마지막에 대입 실기 준비할 때는 학원비가 한 달에 300만원 들었어요. 서울까지 올라와서 준비했으니 전체 비용은 훨씬 더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 한 거는 애니메이션 제작 쪽이 워낙 노동환경이 열악해요. 휴가도 잘 안 주고, 업무시간도 길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업무양도 많아서 월급이라도 많이 줘야하는데 저는 일한 첫 달에 월급으로 3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 한 사람은 저보다도 적게 받았고 다른 한 분은 첫 달은 아예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달에 월급을 30만원 받고, 그 다음 달에는 80만원 받았어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는 임금, 노동의 대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 당연히 노동한 시간만큼 임금을 줘야하는데 너희들이 뽑아낸 결과물만 보고 돈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첫 달에는 일을 배우느라 실적이 없으니 안 주거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조금 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지요.

108

저는 회사와 집이 좀 멀어요. 아침 6시 반쯤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준비하고 출근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시작이 6시 반에 시작을 해서 계속 일하고 점심도 거기서 먹고 저녁도 먹고 야근까지 해서 밤 11시나 11시 반에 퇴근하고, 그래서 막차타고 집에 오면 새벽 1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잠만 자고. 그렇게 일하고 첫 달에 월급을 30만원을 받은 거지요. 부당하다 생각은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일을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돈을 줘야 하냐고.

애초에 애니메이션 일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하나면, 옛날에 종이로 그렸을 때는 종이 한 장 당 천원 그랬거든요. 제 친구가 그렇게 일하는 데 갔었는데, 처음에 월급이 8만원인가 3만원인가 그랬어요.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왜 월급이 그렇게 나오냐 하면, 한 달에 몇 천 장을 그려도 감독 쓸 만하다고 인정해주는 몇 개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면 사람들이 그 일을 왜 하느냐, 부모님도 이 일 하는 것을 걱정하시고 그랬어요. 회사소속이면 이익을 회사가 갖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도 회사가 감수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회사는 당장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사람을

키우고 직원을 키우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이런 일을 적당히 하면 된다?

옛날에 미술학원에서 강사일 했었을 때는, 원장님들이 저보고 학원에 오래 있으라고 다른데 가봐야 별거 없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한 달에 130-140만원만 벌어도 집에 돈 줄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여자니깐 그 정도로 만족하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얹으면서 여자들에게는 적합한 직업에 대한 규정을 두더라고요.

20대 여자애가 보편적으로 하는 일,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교사, 간호사 같은 걸 선택하라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더라고요. 학창시절 동창들을 대학생이 되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여자애들은 가는 과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왜 그 과를 갔냐고 물어보면 그냥 성적 맞춰서 갔다고 해요. 여자애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조금 더 비전을 가지고 더 길게 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나중에 후회하면 그래도 자신이 다시 할 텐데, 20대 여자애라서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20대 그때 청춘은 방황할 수 있다고 놔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대학교 때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개네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 과가 앞으로 좋은 곳에 취직 될 만한 곳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뭔가 좀 믿고 기다려주고 격려 해주면 좋은데 모두 공무원만 하라고 하니깐...

성차별이 여전한 직장문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대표님이나 감독님이나 그런 분들은 남자들을 좋아해요. 대표님이나 감독님은 자기가 남자니까 남자를 한 명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업계에서는 만약에 새로운 남자직원이 들어왔는데 감독님

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면 수제자처럼 그 사람은 계속 밀어주고 키워주고 해요. 그런데 여자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냥 일만 시키지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도 분명히 창립멤버였던 팀장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끝까지 팀장이었어요. 거의 산전수전 대표님이랑 같이 겪으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이니까. 그런데 중간에 남자가 두 명 더 들어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분들은 팀장님 동기이셨는데, 그 분들은 감독되고 PD되고 그런 거예요. 그 여자 팀장님은 결국은 그만뒀어요. 대표님은 자기가 믿는 남자사람들만 끌어주니깐 내가 이 회사에서 오래 있어봤자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만둔 거지요. 뭔가 멀리 안 보이는, 오래 일해 봤자 비전이 안 보이는 느낌이지요.

110

제 친구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설계도면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엄청 남자들 위주로 되어 있나 봐요. 제 친구가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그 프로그램을 조금 다룰 줄 알아도, 초봉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하면 어떤 남자는 4년제이지만 프로그램 잘 못 다루고 친구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남자니까 초봉이 1,300만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직책도 빨리 달아줘요. 이 친구는 계속 계약직으로 있고, 그 남자는 좀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걸 보면 스펙은 애가 더 나은데, 결국 남자라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건 편견이나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는 계속 그런 식이라는 거지요. 자기 위에 있는 언니들도 분명히 경력이 많은데 자기랑 직책이나 근무조건이 비슷한 거예요. 그때는 사회초년생이니까 열심히 해서 이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해보겠다는 희망에 차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현실을 보고 나고 나니 멘탈이 깨지는 거죠.

나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생계를 다 책임지는 날이 오면 그게 자립인 것 같아요. 같이 살던 언니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이제 저 혼자 살게 됐는데 아무래도 집이 걱정이라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아예 집을 샀어요. 저도 처음에 제 힘으로 하려고 저도 한번 대출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제 대출 가능한도가 160만원인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집을 사고 그 집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에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정말로 내가 번 돈을

모두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지금 생각하는 건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집 구할 때도 부모님이 저보다 더 알아보고 도와주시고 그동안 제가 미술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셨으니 부모님께 보답을 해야죠. 나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큰 돈을 벌겠다거나 성공하겠다든 큰 욕심은 없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애니메이터 일을 계속해서 제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례가 되어서, 제 후배들이 저 일을 해도 밥벌이는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미술이나 이런 걸 전공한 선배 중에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 직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여자 선배나 그런 선배는 없어요. 10년 후 미래에는 애니메이션 하고 싶은 학생들 가르쳐 줄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나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으니 제 후배들은 조금이라도 저보다는 더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업계의 관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바뀌어야지 열정페이나 승진문제, 근무환경 문제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바꾸는 데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자립의 식탁 프로젝트에도 참가를 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사례 3

KWAU

‘집에서 노는 여자’와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을 넘어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이야기

신미영 (대구여성회)

112

대구여성회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40대 기혼여성 6명을 취업과 비취업으로 나누어 심층면접을 하였다. 여성이 처한 경제적 현실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30~40대 기혼여성을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현재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이중부담을 많이 지고 있는 세대가 이들이며, 돌봄 노동으로 인해 노동현장을 떠나야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남편한테 돈을 받아쓰니까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30대, 전업주부)

J씨는 30대의 11년차 가정주부로 결혼하기 전에는 학원 강사 일을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역사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학원 강사는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의 혜택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급여도 120만원, 많을 때는 1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이유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다닐 수 있는 직장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하는 건 무리여서 중간에 그만두었다.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만약 아이를 키워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양가부모님이 계셨지만 도리어 돌봐드려야 할 형편이어서 꿈도 꾸지 못했다. 지금도 양육 문제뿐 아니라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기 힘든 형편이다.

J씨의 남편은 보수적이지는 않지만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가사분담은 물론이고 자기 옷도 세탁기에 넣지 않는 사람이다. 옷을 챙겨주지 않으면 계속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옷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밖에서 돈을 벌어 오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J씨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집안일을 도와주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돈 버는 일을 J씨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J씨의 남편은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다. 그래서 일을 시키고 싶어도 늦게 들어 오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다고 힘들었는데 또 일을 시키기가 미안해서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좀 줄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일찍 마치고 와도 딱히 하는 일은 없다. TV를 보던지 애를 보라고 하면 진짜 그냥 보고만 있다. J씨가 집안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퇴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남편은 '애들 학교 보내면 시간 많잖아, 그때 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라고 한다. 애들 보내면 집안 일이 다 끝나는 줄 안다. 처음에는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산다.

J씨는 집안 일이 '해도 표시 안 나고, 안 하면 표시가 확 나는 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루만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엉망이 되니까 안 할 수도 없다. 만약 집이 엉망이면 남편이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는 얘기를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격상 깨끗한 환경에서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충하지도 못한다.

J씨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조건은 J씨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허용해주는 시간이며, 몇 시간 파트타임이라도 조금씩 하다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했다. 가사노동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한 2시간 이상 필요하니까 1시간은 J씨가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 구성원들이 도와주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나가 나가서 얼마나 번다고, 때려치우고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라. 그게 돈 버는 거다. 부모나 잘 보살피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남편은 J씨가 일을 해서 부모님이 아프실 때 병원비 내면 효도했다고 칭찬도 받을 테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애들 잘 보살피고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J씨의 가족이나 부모님들은 집안일을 “집에서 논다”라고 얘기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3~4시간 빼고 하루 종일 종종거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부분 노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일 순위로 차출될 수 있는 인력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한다.

J씨는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일을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역사 논술, 독서 논술, 논술 치료 같은 자격증을 힘들게 시간 쪼개가면서 땀을 흘려서 막상 취업을 하려니까 잘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은 가정에 피해가 안가는 시간, 즉 10시부터 4시 사이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고 집안 살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트타임도 마땅한 일자리가 잘 없고 돈도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일을 하면 아이를 맡겨야 하니까 학원비, 보육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J씨가 가장 자립을 싶었을 때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싶을 때였다. 그런데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수중에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단돈 몇 십 만원밖에 안 됐다.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6년 넘게 가족 뒷바라지를 했는데 내 주머니에 백만 원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다.”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때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친정집에 일이 있을 때 자식으로서 뭘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번 돈으로 주려니까 부모님도 눈치를 보시고 J씨도 눈치가 보여서 직접 돈을 벌면 눈치 안보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J씨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를 '내가 되는 것', 누구 엄마, 누구 마누라, 누구 집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내가 완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남편한테 돈을 받아서 쓰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남편이 부탁을 해도 거절할 수도 없다고 한다. 아이들이나 남편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도 계속 돌봄을 요구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결혼해서 자신과 같이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지 못하면 자신이 키우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살기를 바란다.

J씨는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컴퓨터라든지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준비해야하고, 남편도 J씨의 경제활동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다. 가사노동은 반은 J씨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남편과 아이들이 책임져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 사회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한다. 육아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다양한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한다. 그리고 경력단절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 때문이므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고, 육아분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이 너무 부족해 기본임금은 되어야 한다. 주변 엄마들은 애들이 중학교 가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데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월급은 100만원에서 12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일하고 들어오면 초죽음이 되고 애들도 보살피지 못하게 되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4대 보험은 꼭 들어주면 좋겠다. 월급이 적으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주부들이 스스로도 집에서 논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노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면서 밖에서의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인식 전환 운동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 직장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한 번도 본적 없어

(30대 후반, 8급 공무원)

L씨는 30대 후반의 8급 공무원으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4인 가족으로 남편이 있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역할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벌어드는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이라서 야근수당을 받아도 경제적으로 늘 부족해서 알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현재는 늘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도움을 간헐적으로 받고 있고 아이들 낳기 전에 모아둔 돈을 쓰고 있다.

L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자립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꼭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시기는 결혼하고 난 후 백수생활을 할 때였다. 남편이 주는 돈으로 받아서 쓰거나 달라고 해서 쓸 때 여성도 경제적 자립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대학생 시절에는 집에 아주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힘들게 돈을 버셔서 용돈을 주실 때 빨리 취업해서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다. 지금은 주소득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경제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자립을 한다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지금은 공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미루게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L씨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를 자신감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백수생활을 할 때 외부활동을 하면서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하는 일의 가치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들을 상쇄할 만큼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 친구들과 만날 때면 가치 있는 철학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밥값을 내지 못할 때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금 직장에서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무실에서는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눈치

를 보기도 했는데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가를 알게 될 것 같다. 적어도 3개월씩은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하면 좋겠다. 기업이 육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도 이루어질 것 같다.

여성의 입장에서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이상으로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해 진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여성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남성들에 비해 간부가 되거나 임원이 된 여성들을 많이 만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유리천장도 없어지고 경제적 자립도 가능할 것 같다.

○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0대, 시민단체 근무)

J씨는 40대로 학교를 졸업하고 시민단체, 인권단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8년에 결혼을 했다. 10년간 아이를 양육하면서 살다가 2007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 6~7년 전에 사별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주 소득원이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은 출산과 육아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편이 벌어서 주는 돈으로 살았다. 그러나 결혼 전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지인의 소개로 2007년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된지 1년도 되지 않은 2008년에 사별을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다. 갑자기 주 소득원이 없어지게 됐고, 집도 줄여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제부터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다.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되지 않고 만족감도 높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소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생존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은 소득일지라도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아이들도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 같고 다른 곳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할 만한 일은 없고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아이들이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J씨도 스스로 당당해 보여서 좋다. 하지만 야간에 당직도 있고 저녁약속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다. 특히 J씨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친정언니에게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인데, 만약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아무리 고정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당직이나 야간근무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해도 아직 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일을 계속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

J씨는 대구여성인권센터에서 쉼터 원장을 맡고 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야간 당직이나 주말에도 당직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당을 다 받을 수는 없다. 당직비용은 쉼터 내 자체예산으로 되지 않아서 법인에서 조금 보내주는 걸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여성인권센터와 같은 여성관련 시설, 특히 성폭, 가폭, 성매매와 같은 여성폭력관련시설은 임금협상력이 없다. 왜냐하면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지키는데 여성관련 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라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 예산을 맞춰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쉼터 같은 경우도 24시간 체계로 돌아가는데 급여는 일반사회복지시설보다 훨씬 낮다. 급여는 적는데 매년 상담원을 신규채용할 때 필요한 요건만 강화되고 있다. 신규상담원이 들어와도 급여는 적고 일은 많아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나간다. 동일한 사회복지사인데 만약에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면 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J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부분 중 하나는 교육비에 관한 문제이다. 월급이 적기 때문에 사교육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선택하지 않는 것과 선택할 수가 없어서 배제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생활도 굶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애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상대적

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생활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느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심적인 위축감이 있을 것 같다. 언니도 아이를 키우려면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스펙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친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사회적 지원 체계를 받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

J씨가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었을 때는 결혼하고 6년 뒤에 집에만 있을 때였다. 너무 답답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었다.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이혼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직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었다. 애를 키우려면 최소한 전세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었다. 정말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살게 되거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직업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어서 결혼하고 6년 만에 전문대를 다시 갔다. 그래서 3년 동안 보건계열을 공부해서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땀는데 사람들 얘기와는 다르게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지인의 소개로 대구여성인권센터에 들어가면서 내 이름으로 산다는 게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자격증을 취득했다.

J씨는 여성이 혼자 벌어서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니라고 했다.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하다. 그리고 여성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남성들은 자원을 끌어다 쓰기 쉽지만 여성들은 가정살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나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 투자하기가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런 투자를 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구할 수 없고 당장 시간제라도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면적인 힘과 당당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하기까 기업차원에서 노동환경을 변화시켜야 하고, 비정규직이라도 4대 보험의 혜택을

주고, 노조가 활성화 되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고 사람들도 끊임없이 액션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선거 때는 투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계속 민원을 넣어서 호소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요즘은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 따라서 기업도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가 양적으로 많이 팽창되어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박탈당하고 배제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열등감만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정도로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노동이 들어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렇다면 여자라서, 어린이어서, 노인이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로 인정을 해야 한다. 자신의 노동 수입으로 자신을 위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사례 4
KWAU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연구 참여 이주여성들의 이야기**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5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전국 5개 지역의 이주여성 쉼터 입소 이주여성들을 만났다. 폭력 피해로 쉼터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실상은 어떤지, 쉼터 이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고민은 무엇인지, 자립을 위해 쉼터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왔지만, 이제 아는 이 없는 한국 땅에서 자립해야 할 이주여성들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 보기 위해서였다. 이주여성들이 마주한 상황이 녹록치 않겠지만 살아남기를 위해 분투하는 모습 또한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 대안을 만들 밑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121

○ 캄보디아에서 온 썩카씨

캄보디아에서 부모님 농사를 도우며 살던 썩카(가명)씨. 사촌언니가 한국 사람 이랑 결혼해서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갈 생각을 했다. 형제라곤 오빠 한 명뿐이라 썩카씨가 한국으로 떠나면 부모님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 부모님은 너의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부모님의 반 승낙 속에 그녀는 자신이 직접 한국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중개업체를 알아보고 다녔다. 그렇게 국제결혼이 결정되었는데 이모가 나서서 반대를 하셨다. 이모는 썩카씨 부모님께 자식이 2명뿐

인데 돈이 없어 그 2명을 제대로 못 돌보니까 한국으로 시집보내는 거냐고 하셨다. 부모님은 의연하게 ‘너의 뜻대로 하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을 하셨다. 그렇게 한국에 왔다. 주변에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들이 슬슬 많아지던 2007년이였다.

그녀의 한국인 남편은 포도 농사를 지었다. 캄보디아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망고 농사와 벼농사를 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따라 포도 농사를 지었다. 포도 따고, 봉지에 싸고, 농약 주고… 처음 해 보는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다. 먼저 한국에 와있는 사촌언니처럼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 상상하며.

처음에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다. 남편하고도 말이 통하지 않았고, 대화가 안 되니 더 외로웠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촌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가 통역을 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반대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밭에 같이 일하려고 데려왔다’며 한국어 배우려 다닐 시간에 농사일하길 바랐다. 한국어 배우려는 것 자체를 싫어할 줄은 몰랐다. 사촌언니와 동서가 한국말을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냐고 설득해서 겨우 다니게 되었는데 때마침 애가 들어섰다. 애를 낳고 나서는 다문화센터에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한국어를 배워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공부했다. 6개월씩 세 번을 신청했는데, 남편이 더 이상은 반대했다. 남편은 그랬다.

“내가 돈 주고 너를 데려 왔는데, 공부하라고 데려 왔냐?, 일하자고 데려왔지.”

다문화센터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싶어 하는 이주여성에게 지원하는 과정에도 신청했지만 얼마 다니지 못하고 남편의 끈질긴 반대로 포기했다. 다문화센터는 늘 다니다 말고, 다니다 말고 그랬다.

한국어 공부를 가지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부딪힌 것은 다른 일에 비하면 약과였다. 같은 동네에 사는 시어머니는 쪽카씨 부부의 돈과 살림을 다 관리했다. 전기세며 수도세를 시어머니한테 받아서 낼 정도였다. 마을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는 시어머니는 현금이 있었지만 남편은 포도 농사를 지었으므로 집에

현금이 별로 없었다. 남편은 농사지어 번 돈을 시어머니께 드렸다.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달라고 해야 했다. 병원에 갈 때도 만원씩 받아서 병원비하고 차비하고 했다. 포도 농사를 같이 지었지만 쓱카씨 손에 돈을 쥐어보진 못했다. 시어머니는 ‘너는 빈손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왔잖아, 네 것은 없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맞아, 이 집도, 이불도 내 것은 아니야’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도 않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필요하냐고 따지면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남편은 ‘네가 나가서 벌어서 쓰라’고, ‘그런데 외국인이라서 누가 쓰겠냐’고 비웃었다. 정작 그녀가 돈 버는 일을 하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반대했다.

남편은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쓱카씨 사정을 이용하여 통제하려 했다. 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녀에게 외국인에게는 안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줄만 알았다. 다문화센터에 다니고 나서야 농협에서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도 한동안 남편이 사용했다. 내 이름의 통장이니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해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았다. 한참 지나서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난리를 쳤지만 다행히 동서가 도와주어서 자신의 통장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다고 그 통장에 돈이 많이 있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다. 농사일을 같이 해도 그녀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었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겐 돈이 없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기본 지원금 들어 온 돈이 조금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남편은 쓱카씨의 한국 국적 취득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도움 없이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남편이 해 주지 않으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다가왔다.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국적을 신청하고 몇 개월 만에 쉼터에 오게 되었고, 국적 신청은 남편이 취소해 버렸다.

남편이 처음부터 때렸던 것은 아니었다. 돈을 주지 않고, 한국어 배우려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속상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 대신 욕은 참 많이 했다. 결혼하고 3년 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캄보디아 친정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남편이 때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모른다. 몸은 안 때리고 머리만 그렇게 때렸다. 아이 보는 앞에서도 때리고, 이웃에서 알까봐 TV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때렸다.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늘 머리가 아프고 몸은 계속 말랐다.

다문화센터에 잠깐 갔을 때 남편의 폭력에 대해 상담을 했다.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와 같이 쉼터에 입소한 것이 2년 전 일이다. 지금도 진행 중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길어져 쉼터에 있는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다.

124

그녀가 쉼터에서 아이와 지내는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 쉼터에 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가누기 힘들었지만 차츰 회복이 되었다. 심신이 회복되자 아이와의 자립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갈 수는 절대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사실 남편에게 돌아갈 생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면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사촌언니밖에 없는데 혼자 어찌 사나 싶은 두려움에 남편 집으로 갔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마을 회관으로 가 있었다. 그랬더니 경찰에 가출했다고 신고를 했고, 그녀는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쉼터로 가겠다고 해서 다시 쉼터로 왔다. 그 때 남편이 썩카씨의 한국 국적 신청을 취소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일을 가져야 했다. 처음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미싱 일을 시작했다.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다가 쉼터의 소개로 자동차 부품 회사 다니기 시작하여 벌써 1년이 되었다. 4대보험이 되는 회사로 한 달에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번다.

월급에서 매달 30만원씩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있다. 나머지 돈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반 통장에 넣어둔다. 아이하고 자립도 해야 하고, 나중에 한국 국적 취득하려면 재산 증빙(3천만원)도 해야 하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 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 옷은 사지만, 쓱카씨 자신의 옷은 사지 않고 쉼터에서 서로 나눠 입는다. 그렇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쉼터가 있어서 힘이 난다. 쉼터에 생활하면서 정말 다행인 것은 딸 아이 양육이다. 출근시간이 좀 이른 편으로 이침 8시까지 회사에 가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쉼터 선생님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방과 후에도 데려 와 주신다. 일이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쉼터에서 아이를 받아주니 아이 때문에 동동거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 과제물, 알림장 챙기기도 쉼터 선생님들과 의논할 수 있어서 든든하다.

쓱카씨는 아이 공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부에도 열심이다. 한국어 공부를 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한국어 공부를 반대했는지 알 것 같다. 사실 남편이 반대했기 때문에, 남편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자신감이 자꾸 생기는 것 같다.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어를 못하면 무시당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중상)을 목표로 곧 시험을 볼 예정이다. 운전면허도 시작했다. 필기는 합격을 했는데 실기가 좀 힘들다. 평일에는 일을 하니 주말에만 준비를 할 수 있다. 쉼터 선생님들께 운전 실기 가르쳐 달라고 애교로 조르는 중이다. 남편의 반대로 못했던 고등학교 과정도 검정고시를 봐서라도 해 볼 요량이다. 쉼터를 떠나 혼자 살게 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잘하고 싶다. 그래야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끔 캄보디아로 돌아갈까를 생각하기도 한다. 쉼터에 온지 2년이 지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이 지겹고, 한국에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도 하다. 캄보디아의 부모님과 오빠는 혼자 외롭게 있지 말고 돌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한국에서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돌아갈 수 없다. 아이는 아빠를 볼 권리도 있으니까,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는 아빠를 보면서 자라야 할 것 같다. 혹시라도 양육권 소송에서 지더라도 한국에 남아 있으면 아이를 볼 수 있을 텐데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법원에 다녀오는 날은 쉼터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혼자 밖에서 술을 한잔 하는 것도 복잡한 심사 탓이다. 스스로 원해서 한국에 온 것이 많이 후회되는 요즘이다.

○ 베트남에서 온 프영씨

126

프영(가명)씨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다. 이주여성 쉼터에서 지낸지 이제 5개월이다. 스물 한 살 이던 2010년에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 입국하여 지역의 소도시에서 살았다. 그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 도시 중 하나인 베트남 북부 하이퐁 지역 출신이다. 베트남에서는 별다른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다.

한국에 온 뒤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2년 뒤 분가했다. 한국에 오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꿈은 꿈으로만 남았다.

한국에 온 뒤 그녀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궁핍이었다. 한국에 가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시댁과 남편의 생활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그녀만 궁핍했다는 사실이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한번에 5만원 정도 주는 식이었다. 그나마 돈이 왜 필요한지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받을 수 있었다. 초청으로 한국에 온 친정 엄마가 보다 못해 몰래 돈을 쥐어 주기도 했다. 아이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였다. 분유 값이 없었다. 그녀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 아이와 굶어죽지 않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

한국어를 잘하지도 못하고, 기술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처음 찾은 일은 무 공장에서 무 깎는 일이었다. 아침 9시부

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때로는 밤 9시까지 야근을 하는 날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를 벌었다. 그제야 아이 분유 떨어질까 초조해 하지 않아도 되었다. 생활이 조금씩 안정이 되어갔다.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일을 하는 것이 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일이 늦게 끝나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것이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육아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이 아이에 대한 손찌검으로까지 간 상황이었다. 남편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은 오락가락했다. 때리는 남편이 싫었지만 낯선 한국 땅에서 혼자 살 수 있는지 자신도 없었다.

그녀는 일단 아이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다. 남편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급여가 낮더라도 노동시간이 더 규칙적인 일을 찾았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단 일이었다. 자활사업단에서 열쇠고리와 핸드폰 고리, 인형이나 가방 등을 만드는 일을 했다.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일 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아이 어린이집 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후 5시까지만 일을 했다. 당연히 수입은 반토막이 되었다. 한 달 75만원에서 많으면 85만원 정도 벌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를 돌보며 생활할 수 있었다.

문제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더불어 그녀가 돈을 벌면서 생긴 경제적 착취였다. 남편은 아이 양육비며 생활비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영씨의 알량한 수입조차 빼앗아 갔다.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은 통장에 넣어 둔 돈을 내놓으라고 때렸다. 현금 카드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돈을 빼앗아 가니 다시 생활고에 시달렸다. 집에 먹을 게 없고, 아이 우유를 못 살 정도가 되기도 했다. 일을 하기 전이나 마찬가지로 상태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어쩌다 집에 와 보고는 먹을 게 없으니 불쌍했는지 계란 한 판을 사놓고 가기도 했다. 한국에 와 있는 친정 엄마가 일 해서 번 돈을 생활비로 쓰라고, 아이 분유 값하라고 20만원, 30만원씩 쥐어주기도 했다. 친정엄마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아이와 살아남아 있었을까 싶다. 남편은 술과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고, 자주 그녀를 때렸다.

결국 그녀는 폭력적인 남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때리는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 다음 날,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상담기관 연계를 통해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했다.

한국에 온지 5년, 다섯 살 된 아이의 엄마인 프영씨는 쉼터에서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과 결별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친정 엄마와 같이 살 생각이다. 그녀의 걱정은 양육권. 아이를 꼭 키우고 싶는데 양육권을 못 가질까봐 걱정이다. 아이를 한 번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이를 때렸던 남편이 양육권을 내주지 않는 게 어이가 없다. 매일같이 술 먹고 도박하고 아이도 때렸던 아이 아빠인지라 아빠의 나쁜 영향을 아이가 받을까봐 두렵다. 그런 아빠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친정엄마의 비자가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초청으로 온 친정엄마의 비자는 연장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친정엄마가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다면 친정엄마와 아이를 같이 키우면 양육 부담도 덜고,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믿고 지낼 사람이 없는데 친정엄마라도 곁에 있게 해주면 좋겠다. 아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살 생각이다.

그녀는 지금 쉼터에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5일을 쉼터로 방문하는 한국어 선생님과 공부를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어를 잘하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하면 답답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자신감이다. 한국어 능력시험도 준비하고, 한국어가 더 능숙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컴퓨터도 다른 기술도 배워 나갈 생각이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쉼터에서 소개해 준 치킨집 일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다. 쉼터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고, 이혼 소송으로 법원에 가야 하거나 하는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한국에 와서도 별다른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니어서 그녀는 앞으로가 걱정이다. 좋은 직장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쉼터에 있는 동안 일을 해서 틈틈이 돈을 모아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서 퇴소할 궁리를 한다. 쉼터에 있는 동안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만 쉼터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짜내야 한다.

사례 5

KWAU

“한부모 경제자립, 너무 힘들어요“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 나에게 있어 자립은 두세 달 정도 몸 추스르거나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50세, 노인요양보호사)

130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아이들만 잘 키우면서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혼한 후 현재까지 위자료도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한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준비 없이 혼자가 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공장이나 식당, 청소 등 단순노동이나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일뿐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밥 챙겨 먹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때가 많다. 아이들을 챙길 여유가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이면서도, 학교생활과 집안생활을 제대로 안하면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는 일이 반복되어 무능한 부모로서의 자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이혼 후 8년 동안 처음에는 전기회사 사무실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 사장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한부모라는 걸 말을 하지 않았다. 상황 상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받아서 오픈하지 않았다. 한부모로서 편견당할 것이 염려되어 미리 차단해버린 것이다. 그래서인지 항상 조심스럽고 당당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게 된다.

최근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

사회복지 계통 공부를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냈는데 내가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생계로 활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 나이도 50이다 보니까 마땅히 할 일이 주어지지 않고 공장이나 식당 같은데도 나이제한이 있어, 몸 불편한 노인 목욕시켜드리고 대소변 처리해주는 그런 굵은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상자 어르신 뿐 아니라 보호자 어르신까지 관여가 되고 옆에서 챙겨드려야 하고, 어느 집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어르신들 케어 외에도 가사도우미로 인식하고 하등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한부모에게 안정된 직장이란 없는 건가?’

이혼 후 처음 취직한 사무실이 문을 닫으니까 일할 곳이 없었다. 47세 이후로 아직도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일을 바꾸는 데에는 다 계기가 있었고, 사건이 있어 의도치 않게 2-3개월을 쉬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주위사람들은 자주 직장 바꾸는,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정착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것도 공부해서 따놓고, 저게 미래가 있고 괜찮대, 전망이 있대 그러면 또 그걸 힘들게 공부해 밤잠 설치면서 자격증 준비를 했다.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됐다.

일하는 중에도 마음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을 잠재우려 끊임없이 배우려 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이들 재워 놓고 새벽 1~2시까지 기본으로 공부했다. 3개의 자격증을 손에 넣었지만 그렇다고 바로 취직으로 이어지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더 나이 들어서 정말 할 게 없어 질 것 같은 마음의 불안은 여전하여 방송통신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사이버 대에 편입해서 사회복지와 보육교사 공부를 3년째 하고 있다.

평소에 관심분야이던 보육교사에 대한 정보를 준 그 지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이 있었기에 보육교사 전문양성 하는 학원에서 일 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바로 취직했지만, 일 년 먼저 시작한 나는 일하면서 공부해야 하기에 내 나이가 51세가 되는 내년어야 졸업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50이 넘는 나를 채용해 줄지 염려가 된다.

구체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이것도 준비해놓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것도 준비하면서 나이만 먹어왔던 것이다.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도 아 근데 이것도 준비해놓으면 좋을 거야 저 자격증도 따 놓으면 좋을 거야 근데 이미 나이는 먹어가고 젊은이들에 밀려 배운 것들이 별로 도움이 못 되고 있다.

대학 공부하는 데만 오 년 걸리고 그 오 년 안에서도 이 자격증 따고 저 자격증 따고 계속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그게 연결돼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자격증 취득이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안정된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관심 가져야 하지 않을까?

132

사람에게는 의식주 해결이 기본이지만 그 기본마저 누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 얼마 전, 몸이 좋지 않아 쉬는 과정에서 수입원이 하나도 없었다. 학원비 그런 게 아닌, 다달이 말일이면 내야 되는 임대료, 관리비 등등 당장의 필요한 생계비조차 해결이 안 되니까 한두 달 쉬는 것이 죄인이 된 것 같고 그 불안감에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었다.

임대아파트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 다달이 십 몇 만원씩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며칠만 연체 돼도 당장 독촉전화가 온다.

이처럼 두세 달 정도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파서 쉬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 자립이란 두세 달 정도는 몸을 추스르거나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한다. 나에게 맞는 일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그런 준비기간이 주어지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프거나 너무 힘들어도 또 일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곤 한다.

생계는 엄마의 몫일 뿐

가사도우미든 식당 일이든 공장 일이든 그게 엄마의 몫이었고 엄마의 선택이다. 여태 혼자 결정하고 항상 혼자 책임져 왔던 것처럼..

하지만 ‘맞는 일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밥 사줄게 힘내’ 그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거 힘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들 때도 용기가 됐고 자신감도 생겼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꿈꾸며’

혼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대다수의 한부모의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급여와 근무여건 등 많은 부분에서 끊임없는 문제를 낳는다. 자녀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면서 쉴 새 없이 일해도 여유롭지 않은 생활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게 된다. 지금도 불안정한 수입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카드 대금이 빠져 나가는 말일이 다가오면 불안하고 두렵다. 한부모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건강한 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건강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한다.

133

○ 나에게 있어 자립은 세 아이의 공부를 시키는 것

(51세, 전 식당일, 현 가정관리사)

누구나 처음부터 이별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신념으로 가족이 그토록 반대하던 결혼을, 아니 결혼식 없이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총각 때부터 인기가 많던 전남편에게 있어 주인공은 나였지만, 결혼 생활에선 그 인기가 가정파탄의 원인이었다. 사업실패로 남겨진 빚에도, 시어머니의 암투

병 속에서도 바람기와 폭력은 더욱 심해져갔고, 그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해 왔다. 아이들 양육권과 위자로 문제로 2년을 버티다 세 아이를 둔 채 결국 빈털터리로 언니가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와 식당 서빙일을 시작했다.

자녀와 함께 온 손님을 보면 눈물이 앞섰고, 유치원생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떤 요구에도 꿈쩍 않던 남편이 1년이 지나자 아무 조건 없이 애들을 데려가게 했고, 그 이후로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내일부터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식당일밖에 없었다. 애들 세 명을 데리고 내일 먹을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는 언니 집에 얹혀살았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내일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식당일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134

이혼 후 날아온 전남편의 보증빚 천이백만원을 꼬박 꼬박 갚아가며 일주일에 한 번 쉴 때도, 너무 힘겨워도 파출을 뛰면서 세 아이를 양육하자니 내 자신은 물론 아이들을 돌볼 틈이 없었다.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서 밤 12시가 다되어 퇴근하면 불 꺼진 방에서 저녁을 굶고 자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멘다. 그때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인지 지금도 세 아이 다 키가 작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지만 식당일 외에는 다른 일을 찾을 여유도 없었고, 하루만 쉬어도 아이들을 굶겨야 하기에 매일 일할 수밖에 없었다. 내 스스로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는 괴로움에 밤을 새우기도 했다. 막내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0시까지 등교를 해야 하지만, 엄마 출근시간에 맞춰 8시30분부터 등교해 혼자 시간을 보내며 형들과 어울리다 결국 가출까지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쉬어본 적 없이 식당일을 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항상 달려에다가 일한 날을 기록했는데, 두세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한 적도 있었다. 어디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돈으로 우리

애들 뭘 좀 먹여야겠다 싶어 그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했다. 그때는 젊었으니
 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혹사시켰던 것이다.

언니의 가게라 주인도, 종업원도 아닌 애매한 관계에서 힘들게 일하다 보니
 2012년에는 류마티스, 2015년엔 척추전방위증이란 진단을 받아 너무 심한 통증
 으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처음 병원에서 ‘쉬어야 된다’고 했을 때 ‘아, 이제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아,
 그래 나는 좀 쉬어줘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다. 희한하게도 그 말이 위로가 되
 었다. 나도 쉬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오십이 되면 식당 일을
 그만두리라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파서 그만두게 된 것이다.

겨우 한 달을 쉬 후 지금은 시간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 4시간
 씩 일주일에 4일 일해서 16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니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애들 학비만 있으면 사는 것도
 아니고 쌀만 있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전문직업을 가질 능력이나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 보다 나은 다른 일을 찾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먹고살 일이 걱정이다. 하지만 내 몸도 추스르고 아이들과 눈도 맞추
 며 살고 싶다. 저녁 밥상을 차리는데 이들이 ‘엄마랑 저녁 먹으니 너무 좋다’라
 는 말에 10년 동안 이들이랑 마주보고 밥 먹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먹고 사는
 데 매달려온 것이 가슴이 아파왔다.

주변 지인들은 나를 ‘대단하다’고 한다. 열심히 일만 하고, 옷도 하나 사 입지
 를 앓고 얻어 입으니 ‘참 노숙하게 입고 다닌다’고 한다. 제일 좋아하던 메이커
 가 ‘아름다운 가게’였으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보가 있으면 능력에 맞춰 할 수 있는 일도 찾을 수 있었
 을 텐데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
 니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른 채 한 곳만 바라보며 살
 아왔다. 동사무소에서 정보라도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부모라고 하면 가엽게 보거나 쉽게 생각을 한다. 삼십대 후반 사십대 초반 때는 한부모라는 걸 말하는 순간 남자들이 자꾸 쉽게 다가오려고 해서 몹시 힘들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한부모임을 숨겨야 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저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이런 소릴 들으면서 나는 더욱 더 움츠러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부모단체에 나오면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다. 식당 일을 하는 바쁜 틈에도 단체활동을 하고 교육을 받으니 나를 바라보게 되고 식당아줌마들과도 잘 지내고 애들한테 좀 더 부드러운 엄마가 되었다. 나와 주변을 보게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한다. 혼자가 되었을 때 지자체나 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단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다.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136

첫째는 양육비제도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양육비가 주어진다면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자기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혼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는 직업 교육을 할 동안에 기초생계비가 해결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립할 노력을 할 것이고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다. 6개월, 일 년 기간을 정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계보장이 되었으면 한다.

셋째는 수급자나 법정한부모는 십 만원만 수입이 늘어도 지원이 깎이거나 탈락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그 수준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인 딸의 아르바이트 수입까지 가족수입으로 잡혀 그만큼 지원이 줄어드니, 용돈 별자고 열심히 일한 딸은 허탈할 따름이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자녀가 세 명이고 또 대학생일 경우는 감안을 해주면 몸이 덜 상하도록 일하지 않을까 싶다.

나에게 있어 자립이란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큰 딸은 대학졸업을 했고, 둘째 딸은 미대를 다니며 악바리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셋째를 고등학교에 보내고 있으니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도 몸이 아프지 않은 날이 없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아이들 공부도 다 마치지 않았지만, 또 내가 전문적인 직업도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한다. 이 망가진 몸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상담을 받으면서 ‘힘든 게 단지 전남편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느끼는 순간 편안해질 수가 있었다. 원망과 분노로 힘들었는데 다 내려놓는 순간 자신감도 생기고 이루고 싶은 꿈도 생겼다.

50살이 되던 작년부터는 사이버대 상담학과에 입학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동화구연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사례 6

KWAU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한부모 여성

김인순 (안양여성의전화)

‘자립의 식탁’ 여성이 먹고사는 이야기,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은 마치 첫사랑이 시작된 기분일까? 심층인터뷰를 통해 6명을 만나면서 함께 웃고 울고 서로에게 공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지난 시간들이었다.

138

(사)안양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여성인권단체이다. 부설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중장기쉼터)이 함께 하고 있다. 안양여성의전화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 가운데 여성가장정서적모임이라는 ‘행복한모임’이 있다. 매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정서적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중 6명의 인터뷰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온 분들이기에 서로 공감과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여성으로서 ‘경제적 자립’의 의미는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하여 ‘여성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통해 경제적 자립의 현실을 드러내고 경제적 주체로 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안양여성의전화는 한부모가족 및 취약계층의 여성가장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1시간)을 지난 7월에서 8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또한 10월 7일(수)에는 스토리텔링 장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여성의 경제적 자립 담론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내 아이의 희생과 함께 한 20년 학교급식 조리사

(60대, 학교급식 조리사)

1975년도 육남매 중 장녀인 Y씨는 장남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갖은 마음고생을 하다가 15년 만에 귀한 딸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 결혼 후 Y씨의 남편은 생활력이 강하지 못했으며 아이마저 생기지 않으니 술로 지내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러다 결국 건강을 잃게 되었고 15년 만에 귀하게 얻은 자식이 백일이 채 되지 않은 채 남편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말았다. 청천벽력 같은 간경화와 후두암 확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시 Y씨의 친정 동생은 Y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하면 관찮다고 말해 얼마간 Y씨는 남편의 병명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다행히 치료는 잘 되었고 남편은 야간 경비활동으로 다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Y씨의 남편이 다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서 병은 악화 되었고 다시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결국 딸이 겨우 세 살 되던 해 그 만 Y씨의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남은 것은 세 살배기 어린 딸과 그 녀, 달랑 두식구가 전부였다.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에 가게 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왔으며 그야말로 현실이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딪친 것은 육아였다. 당시 여성으로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에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었고 그러던 중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임대 아파트에 이사를 한 이유는 단지 내에 복지관 및 어린이집이 있어 편리성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단지 내 어린이집은 만 4세가 되어야 들어 갈 수 있다 하여 그해가 지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4시쯤 일을 마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집안 살림만 하다가 갑자기 사회에 발을 디더 놓기엔 정말 암담했으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이라 식당만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식당은 특성상 거의 밤 9시 넘어 끝나게 되어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Y씨로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학교 급식식당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하기에 적합한 근무시간이었다. 그렇지만 한 달 급여 40만원에 방학 중에는 그나마 없었으니 또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아이를 데이고 주말에 잠깐 이나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여기저기 찾던 Y씨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과천 유원지에 있는 식당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는지 아이를 데리고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Y씨는 1년 365일을 학교급식실과 식당을 전전공공하며 일을 해야 했고 특히 추운 겨울에 지는 아이를 깨워가며 움직이게 될 때면 “엄마 거기 안가면 안 돼?” 라는 어린 딸의 간절한 한 마디와 눈빛은 그 어느 엄마라도 눈시울이 따갑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Y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도 하여 더없이 울었던 세월이었다.

140

언젠가 늦은 가을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Y씨에게 ‘엄마 앉아 보세요. 유치원에서 마을 공원 단풍놀이 나가서 놀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선생님께 허락받고 엄마 보여드리려고 예쁜 단풍잎을 골라서 가져 왔어요. 엄마는 일만 해서 가을을 못 느끼니까 여기서 가을을 느껴 보세요.’라며 엄마가 잘 보는 식탁 유리 밑에 낙엽들을 깔아 놓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겨우 다섯 살 아이의 눈에도 엄마의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나 보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20년이 넘는 지금에도 Y씨의 일이며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스스로 제 일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며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아이에겐 한없이 작아지는 엄마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는 것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남의 이목에 오르내릴까봐 웃도 함부로 입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면 밤에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다. 때로는 아빠 뭇까지 해야 하는 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게 양육과 생계로 발버둥 치며 살면서도 마을 부녀회, 노인정에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양여성의전화 개소와 함께 한가족이 되었고 매월 진행되는 한부모가족 모임을 통해 인식의 변화는 물론이요, 서로 지지해지고 격려해 주면서 방학 때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억을 만들어 왔다는 Y씨의 말에 인터뷰 내내 나는 숙연해 질 수밖에 없었다.

Y씨는 소리 없이 외쳤다. 지금은 그때와 달리 보육지원도 되고 일터에 어린이 집도 함께 있어 엄마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을 병행하면서 일하기엔 너무도 많은 장애물이 따른다고. 여성으로서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우선적으로 여성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 육아문제의 과제 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지금은 욕심이 훌쩍 넘은 Y씨는 마음은 청춘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더 열심히 살겠노라고…….

○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독립적인 삶으로 바뀌는 과정

(46세, 재취업 준비)

결혼 후 출산, 육아를 하면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K씨에게 2년 터울의 두 아들을 돌보는 것은 참으로 벅찬 일이었다. K씨의 일상은 모두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신은 무능하고 가치 없게 느껴져 우울감까지 느꼈다. 더군다나 두 자녀 모두 유아기 때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아 유난을 떨 정도로 자녀양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K씨에게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의 도움은 없었다. 온전히 K씨 혼자만의 육아전쟁이었다. 아니, 도리어 아이의 아빠는 아이에게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마다 K씨를 탓하면서 “집에서 놀면서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뭐하냐?”, “네 인생이 어디 있어? 네가 공부할 생각 말고 애나 똑바로 키워.”라는 등 끊임없이 K씨를 짓밟고 무시했다. 가사일과 돌봄, 양육 일은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되면 모두 K씨의 탓으로 치부되면서 아이들이 어느새 사춘기에 접어들자 K씨는 더욱 작아짐을 느꼈다.

K씨는 당당하게 일하는 여성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노후에 대한 불안)과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는 전업주부를 쓸모없는 짐덩이 취급하는 남편의 압박에 무작정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도서 대여업이었다. 자영업이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직장생활 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롭겠지 라는 K씨의 생각은 그저 꿈이었을 뿐 하루 12시간이상 일을 해야 했고 가사일도 아이들 양육도 모두 K씨의 몫이었다. 결국 가사일이 분담되지 않고 사춘기 아이들이 밖으로 나돌게 되면서 마치 전부 K씨의 책임인 것처럼 여기는 남편과의 갈등이 일어났고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끝내 결혼생활은 K씨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현재 K씨는 이혼 재판 중에 있으며 아픔을 이겨내며 한참 사춘기인 두 아들과 지내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케어(care)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142

K씨는 엄마 역할뿐만 아니라 가장의 역할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막막함을 새로운 자신의 도전으로 바꿔내고 있다. K씨가 선택한 일은 직업상담사였다. 1차를 기분 좋게 합격하고 2차를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K씨는 지난 7월부터 안양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직이나 정년퇴직 또는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돕고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일이다. 교육을 통해 진로검사, 이력서클리닉, 면접전략, 이미지 메이킹, 잡서치 등을 배우고 있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이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흥미진진하다. 동시에 그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K씨는 앞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일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K씨가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교의 진로, 취업상담이나 강사, 민간의 전직 지원전문 회사에서는 4년제 대졸자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대를 졸업한 K씨는 201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경력이 없는 K씨는 재취업을 위해 이렇게 꼼꼼히 준비하면서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재단 쪽으로 잡서치를 하고 구직서류를 내기 위해 이력서를 클리닉 하고 있다.

무경력자인 K씨에게 재취업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다며 징검다리 경력이라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줄 한 줄 경력이라도 쓰기 위해 잡 페스티벌이나 채용박람회의 행사보조 등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아, 나는 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라고 자신을 구박하며 후회를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하면 돼’ 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한다. 곁에서 보는 이들도 K씨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구인처에서 경력을 요구하는데 많은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육아를 하면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인 것 같다는 K씨의 깨달음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역시 쉬운 건 아니다.

K씨에게 있어서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K씨에게는 독립적으로 살지 못했던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즉 K씨에게 직업은 곧 생계를 이어갈 힘,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힘이다.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K씨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새삼 느끼면서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고 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삶이라는 것에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한다. 나이가 좀 있더라도, 경력 단절의 여성이라도 경력자만이 채용 우선순위가 아닌 사회, 고용차별 및 남녀 임금 차별이 없는 사회이기를 희망 한다고 말이다.

○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주민센터 단기근로의 일?

(54세, 주민센터 공공근로)

A씨는 중학생과 대학생 세 자녀의 가장으로 살고 있다.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서른 살 정도면 결혼을 하겠구나 생각하던 중 직장 후배가 그의 사돈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참 예의 바르고 야 물어 보였고 생활력도 꽤나 있어 보였다. 잘생긴 외모, 그리고 만날 때면 늘 꽃과 선물로 A씨를 사로잡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하고 살면 굶지는 않겠구나 싶었다.

A씨는 그의 매력에 빠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세 달 만에 결혼을 준비 했고 퇴직금 등을 합쳐서 혼수를 준하고 집을 장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앞둔 남편은 가진 것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남자였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던 A씨는 돈은 별면 되지 싶은 마음으로 서로의 백년해로를 약속했다.

아이가 두세 살 되던 해 A씨의 남편은 그동안 친구와 해오던 인테리어 사업을 접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과 동업하였다. 그러나 결국 상대 동업자만이 성공하게 만드는 사업이었다. 이후 남편은 집에만 머물게 되었고 말 그대로 백수의 기질이 다분해 남의 탓으로 돌리다 세월을 보냈다.

상황이 닳치면 닳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A씨와 달리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A씨는 결혼 전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작은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 A씨를 향한 열등감이 강한 남편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서로의 갈등은 한층 더 심해졌다.

144

그 이후로 시골로 내려가서 6개월 정도 생활하다 다시 안양으로 이사했다. 남편은 관공서 공사를 맡게 되면서 다시 열심히 살게 되었다. 그러나 곧 남편이 다단계를 알게 되고 사기취업을 겪게 되었다. 또다시 그는 일을 그만 두면서 운둔과 음주 생활을 이어갔고 술에 취하면 평상시 A씨가 했던 소리들이 잔소리로 메아리쳐 오면서 싸움의 강도는 높아져 갔다. 이런 부부 싸움이 창피했던 A씨는 주변이 알까봐 쉬쉬했고 혼자 끄끙 앓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게 아옹다옹 사는 것도 잠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삼년이 되어 가고 있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우선하다 보니 A씨의 나이는 어느새 50이 넘어가고 아이들에게 한참 돈이 많이 들 시기인 지금 특별한 전문 지식도, 능력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기에 전전공공 하고 있다. 굶고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큰 욕심 없이 세 자녀들과 살려고 하지만 삶의 만족도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피할 수 없는 사회임을 느낀다.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을 어느 순간 그만두면서 경력은 단절되고 회사 또한 문을

닫게 되었다. 지금은 주민센터 공공근로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 공백 기간으로 인해 꾸준한 수입이 어렵다.

A씨는 남편의 열등감에 못 이겨 일을 그만 두기도 했지만 ‘왜 나만 이렇게 벌어야 되나?’라는 생각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경제적 활동을 당연시 여기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 그러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 왔고 지금은 나이라는 숫자에 스스로 작아진다.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에서 많은 교육들이 있고 활용도 하곤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 역시 좀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늘 있으며 지금은 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로 배우는 것보다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주민센터 단기근로노동자로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실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을 논하고 싶어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려는 정부 의도는 알지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들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야말로 우리 사회에 시급한 일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경제적 자립은 스스로의 노력이 수반되지만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현장에 적용하는 정책이 우리 가까이 있었으면 한다고 외쳤다.

사례 7

KWAU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선생님이로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

김봉선 (울산여성회)

○ 200만원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

(50세, 지역아동센터 교사)

규미(가명)는 나와 갑장이다.

울산여성회에 상근한지 한참을 지나고 나서 갑장인 것을 알았고 서로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다. 올 봄에는 다른 갑장친구와 함께 울산보다 더 남쪽으로 꽃구경도 다녀왔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 규미는 이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잘 안주어진다고 무척 좋아했다.

우리 다음에,

계절별로 또 놀러가자 해놓고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엄마...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한 후 9시반정도에 집에서 나온다. 그 6시부터 9시까지 거의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왜냐면 엄마니깐...

그리고 아동센터에 나오면 퇴근 할 때까지 또 다시 쉴 새 없이 일한다. 아동센터의 일이 끝나고 9시쯤 집으로 가서 다시 엄마가 되어 잠들 때까지 집안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 노동시간이 실제로 16~17시간. 아침에 눈떠서 잘 때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한다. 너무 길다. 쉬고 싶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밀린 빨래에, 밀린 집안일을 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는 엄마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아빠는 비정규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하고 속상하다고 자주 이야기하곤 한다. 좋은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알지만 엄마가 일하는 만큼 소득도 따라오지 않는데 왜 고생하냐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한다.

이제는 성인이 된 아들에게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고,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나름 알아듣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지만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할지 또 하나의 고민이라고 규미는 늘 말한다.

아내...

147

남편은 플랜트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래서 일도 일정하지 않고 월급도 일정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주소득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어쩌면 적은 돈이라도 4대보험 들어가면서 꼬박고박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규미가 주 소득원은 아닌지 한번 씩 헛갈릴 때가 있다.

길가의 작은 풀조차도 지나치지 않는 남편은 지속적으로 일을 나갈 때는 큰 소리로 “밥줘!”하고 당당히 소리치기도 하지만,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날은 규미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집안일을 한다. 그럴 때면 몸이 조금은 수월해지니까 좋기는 하지만 눈치를 보고 어깨가 쳐져있는 남편을 보면 결코 맘이 편하지는 않다.

그러나 가끔씩은 큰 소리로 밥 달라고 하는 남편은 규미가 하는 일이 돈이 안 되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이해해주고 항상 지지를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남편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무료봉사였는데 지금은 100만원을 받는다. 규미가 하는 노동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돈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면서 소박한 웃음을 짓는 남편덕분에 일하는데 있어서 마음도 편하다.

선생님...

26살에 처음으로 자립했다.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용돈 달라는 소리도 안하고 오히려 월급에서 엄마 용돈도 드리고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았던 소득활동은 어느새 20년을 훌쩍 넘어버렸다.

올해 50살인 내 친구 규미의 직장은 지역아동센터. 8시간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일의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실제로는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아이들을 집에 보내고 이런 저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고 방문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9시가 넘을 때도 종종 있다. 위기상황이나 아이에게 일이 생기면 밤에 퇴근하고도 부모님 등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도 하며,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일이 끝나지 않는 구조이다.

148

하지만 이런 노동환경에 비하여 소득은 낮다. 한 달을 꼬박 8시간을 넘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139만 2천원과 처우개선비 10만원이다. 연장 수당도, 야근 수당도, 일체의 수당도 없고 주말에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혀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무료봉사를 하는 현실이다. 더구나 처우개선비로 받는 10만원조차도 주방에 일하시는 선생님의 적은 임금에 보태기 위해 주방선생님께 드린다.

100만원 넘는 월급을 받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1년 정도 되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처음 2007년에 시작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무급으로 일을 하였고 월급이 생기면서 몇 년 동안은 거의 차비정도만 받고 본인차를 운행하면서 지냈다.

그래도 규미는 본인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봉사자들은 주로 이야기한다. ‘나 같으면 못할 건데’, ‘고생한다’, ‘대단하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계속 여기에 있으면 암에 걸리겠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 같다고 속상해 하는 내 친구.

주변에서는 그런다.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돈이 안 되네’, ‘봉사정신 없으면 못하겠다’, ‘천사네’, ‘봉사활동 같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규미가 한 번씩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자랑도 하고 힘도 주고 좋아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규미가 하는 일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란 것을 알지만 돈이 안 되고 힘이 든다고 못한다고들 한다. 규미는 왜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돈이 적은게 제일 큰 이유겠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월급은 적고 조건도 힘들니깐...”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월급이 200만원 정도가 되면 너무 좋겠다고 한다. 그런 날이 빨리 와서 경제적으로 규미가 조금만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와 함께 아동 수에 대비해서 교사가 좀 더 많이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본다.

지금 현재 두 명인 법정종사자가 세 명으로 늘어난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질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교사들과 함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처우가 지금보다 나아지면 하고자하는 선생님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경쟁력이 생기고 나아가서 아동센터의 질도 좀 높아지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다양한 생각과 각각 다른 환경속의 또래 아이들을 적은 인원으로, 일정공간에서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다. 하지만 사회는 선생님들은 천사가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복지시스템의 일은 기본 인식자체가 자원봉사나 희생정신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근무조건이 나아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사회적 편견이라고 규미는 강조한다. 사회는 항상 선생님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천사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저임금을 위한 합리화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본다.

긴급으로 들어온 아이 한 명의 옷과 신발이 너무 허름해서 구해다주고, 아이의 집에도 같이 가주고, 이가 많이 썩어있어서 치과에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다. 아이는 그것이 너무 좋았는지 센터에 오자마자 규미를 졸졸 따라다녔다. 화장실 까지 졸졸 따라다녔다. 그냥 씹하고 있으면 편하고 이도 치료하고 나니 어제는 안 아팠다고, 종알종알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 아이는 말상대가 필요했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150

아이들은 누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누가 자기를 좋아 하고 싫어하는지, 심지어 혼을 내어도 자기를 좋아해서 혼을 내는 것과 싫어해서 혼을 내는 것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들과 정이 생기는데 6개월 이상은 걸린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 친구 규미가 받고 싶은 월급은 200만원 정도이다.

이런 저런 생각할 여유 없이 너무 빠듯하게 살다보니 이 130여만원에서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많지 않다. 아이들 학비나 집의 공과금, 그 외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크고 작은 돈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본인이 돈을 벌지만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도 많지 않고, 내가 번 돈을 내가 사용한다는 느낌도 별로 없다. 유일하게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라고는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켓돈이다. 이 돈으로 내가 필요한 책을 사기도 하고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모아서 사기도 한다. 이럴 땐 내가 번 돈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하다.

이런 내 친구 규미가 받고 싶은 월급은 200만원 정도이다.

나에게 월급이 200만원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행복해 한다. 지금보다 좀 더 본인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어 한다.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는 규미는 진짜 돈이 생긴 것처럼 들떠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워했다. 후줄근한 옷밖에 없으니 우선 옷도 사 입고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공부도 하고 싶다. 대학원에 가서 심리상담과 관련된 공부를 더하여 프리랜스로 활동도 하고 상담소를 하나 차리고 싶다는 꿈을 가져본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야겠다. 우선 나중을 위해서 체력을 키워야 하겠지,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한 달에 적은 돈이라도 나를 위해서 적금을 넣어야겠다. 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나를 위한 책을 사든지, 옷을 사든지 투자를 해야겠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용돈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작지만 투자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행복 할 것 같다는 내 친구.

사례 8

KWAU

40대 경력 단절 전업주부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안명희 (대전어민회)

처음 이 주제에 대한 기획단에 참여하고 질문지를 받았을 때 인터뷰 진행자나 답변자에게 너무 어렵고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 어떤 방식의 진행이 본 기획에 적합할까를 고민하고 질문지를 토대로 내용을 좀 더 쉽고 일상적인 용어로 재해석하여 사전 설명한 다음 인터뷰는 자유로운 답소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52

○ 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직장 찾아 삼만리

- 내가 벌어서 나만이 쓸 수 있는 지출이 필요했다 -

(40대 중반, 전업주부)

인터뷰이는 지역의 광역시에 사는 40대 중반의 전업주부이다. 학교 졸업 후 직장 경험은 거의 없으며 20대 중반에 결혼하여 고등학교 3학년생 딸과, 7살 된 늦둥이 딸의 유아 돌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살 연상의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이 여러 번 바뀌고 경제활동이 비정기적으로 고비를 겪으면서 내 집 마련도 하였다가 현재는 30평대 아파트 월세 형태에 거주하고 있다. 집안의 수입 활동은 남편이 하고 있으며 지출에 대한 경제권 또한 남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생활하는데 있어 드는 기본적인 생활비(관리비, 냉난방비, 자녀학비 등등)는 남편이 전부 지출하고, 본인은 필요 할 때마다 남편에게 받아서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지출에 있어서 본인에게 자유롭게 쓰거나,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여유는 없는 편이다.

결혼 후 첫째 딸을 키울 때는 집안에서 가사와 양육만 했다. 결혼 초에는 남편의 수입이 도시 가족의 중상층 정도는 되어 비교적 여유로운 편으로 남편에게 돈을 받아 지출하기에 제약은 없었다. 주 관심사는 큰 딸 아이의 교육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지출도 아이의 사교육비, 교재 등이 대부분이었다.

결혼 후 사회 활동은 주로 큰 아이와 관련된 학교 학부모 모임이나 문화생활, 취미생활, 자원봉사 활동 등이었다. 전국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남편의 직업이 여러 번 바뀌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등의 고비를 겪으며 가정의 경제 사정도 많이 악화됐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보다는 경제적 지출에 대하여 남편의 눈치를 더 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첫째 딸의 돌봄 보육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려고 그동안 회원으로 활동을 하던 단체에서 반 상근 일을 시작하며 몇 달 일하던 중 늦둥이 둘째가 태어났다. 활동을 접고 출산과 함께 육아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남편의 잦은 이직으로 집안의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지면서 첫 아이 때처럼 양육과 가사에만 전념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제약이 따랐으며, 다시 출산 전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 있었다.

둘째딸이 5살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여성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기관을 찾아가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무직 일을 대비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았고, 혹시 미래에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일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연계 받아 처음 취직한 곳은 평생교육을 하는 문화센터 개념의 교육 기관이었다. 대부분의 직원이 30대 여성이었고, 미혼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에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이었지만 아침에는 보통 8시 30분까지 출근을 했고 7시가 넘어야 퇴근을 할 수 있었으며

주말은 격주로 근무하거나 비정기적인 출근이 잦았다.

그나마 남편이 야간에 출근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둘째 딸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퇴근할 때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었으나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나가고 집안일과 아이에 대한 돌봄이 다시 기다리고 있었다.

직장에서 이해받기도 쉽지 않았다. 교육기관이다 보니 야간에 하는 교육도 있었고 한 달에 격주 토요일 근무도 거의 관례처럼 있었으며, 토요일 집안의 대소사와 출근이 겹칠 때에는 직장 오너의 눈치를 봐야 했다. 처음 면접을 볼 때는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직장 생활을 해보니 생각보다 돌봄과 가사, 일을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고 그렇다고 주간에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격주로 눈치 보며 신다거나 예식장을 가야하거나 하면 눈치를 봐야하고 주부라서 프로페셔널하지 않다거나 의상까지도 문제를 삼기도 했어요…”

154

한번은 토요일에 근무는 아니고 관련 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원장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침 8시였는데 저는 그때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참석을 못했더니 다음날 출근해서 프로의식이 없다느니, 전문성을 키우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아줌마 티를 내면 철저히 아줌마 취급을 해 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거나 하면 직장인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아줌마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훈계도 했어요.”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비정기적인 출퇴근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딸도 문제가 되었고 직장에서 주부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버티기는 어려웠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예전에 활동하던 여성단체에서 다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집에 있기에는 자신이 너무 답답하기도 했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나 기회를 가지려면 어떤 형태의 사회참여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자원봉사를 하던 여성단체에서 다시 반상근 형태의 일을 2년여 할 수 있었다. 아직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작은 딸의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

며 전일제로 일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반상근 형태로 일을 하였다.

최근에는 여성단체의 일을 그만두고 다시 일을 찾고 있다. 생활정보지나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이용해서 일을 찾고 있는데 주로 집 근처에 있는 곳을 찾거나 파트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그동안 주로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일을 했거나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반상근 형태로 일을 했고 거리상 멀거나 전일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는데 지리적으로 최대한 집이랑 가까우면서 아이를 염두에 두고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가까운데 빵집의 파트타임이라든가. 집 근처 대형 문구점 사원이었는데 신랑이 모두 반대를 했어요. 그동안에 다녔던 직장에 대해서는 신뢰를 했어요. 그동안은 여성들만 거의 있는 직장이었고 했는데… 남편이 사회생활을 해 보니 남자들이 있으면 성희롱도 걱정이 되고, 전 직장은 여성들만 일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했고, 적은 벌이이지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알아 봤을 때 여자인 내가 험한 일을 하는 것은 싫다는 걱정이었죠… 남편은 근로 환경이 나쁘면 그 돈 정도는 안 벌어도 된다는 입장이었죠…”

155

그녀에게 있어서 소득활동이나 일의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가계의 주 소득 활동은 남편이 하고 있으며 또한 집안 가계의 경제적 지출도 남편이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기본 생활비, 관리비, 자녀들 학비까지 남편이 알아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지출이라 할 수 있는 용돈을 받아쓰기란 쉽지 않았다. 남편이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롯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출에 있어서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크면서 지출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며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교육비도 지출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욱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경제적 주체로서 많은 소득활동을 하거나 전

일제의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다. 그동안의 경력단절도 문제가 되었으며 양육과 가사를 하면서 병행하다보니 약간의 수입이 있는 가정경제의 보조 수단자로서의 역할을 원했다. 그런 입장에서 남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육아 가사활동을 하면서 자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거나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받아쓰는 것에 대해서 몇몇치 않았고, 자존심 상하는 때도 있었고 제가 저희 친정집에서 딸만 셋인데 장녀예요, 저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제가 아들 노릇을 해야 하는데 제가 경제적인 활동 없이 아들 노릇을 하기란 어려웠어요, 신랑의 눈치도 보였고요… 부모님 모시고 외식이라도 하고 싶고 제가 별어서 용돈도 드리고 저녁도 사 드리고 싶었어요. 집안의 경제는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제가 별어서 저 만이 쓸 수 있는 지출이 필요 했거든요…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남편도 저한테 바라는 점은 제가 별어서 크게 가게에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것은 니가 별어서 썼으면 했던 거 같아요.”

156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나 친정 부모님은 찬성하는 편이었다. 남편은 사실 혼자 가게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했고, 큰 돈이 아니어도 본인이 쓰는 개인돈이라도 별어서 쓰기를 원했다. 가끔 남편의 수입이 힘들어지고 가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친정부모님은 딸이 돈 때문에 눈치보고 사는 것이 늘 안쓰럽고 평소 여유가 없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입장이었다.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신랑 모두 집안에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작은 돈이라도 별어서 제가 필요할 때 몇몇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죠. 그것도 일종의 자립이죠, 제가 쓰고 싶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제가 일을 하다가 잠시 그만두었을 때 친정부모님이 그래도 그 돈이라도 별어서 직장생활하는 것하고 쉬는 거는 다르다. 그래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한다, 그 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별어서 자유롭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아직 돌봄이 필요한 둘째 딸이 있기도

했고, 한참 입시에 시달리는 고등학생 큰딸은 엄마가 집에서 자기들을 봐 주기를 원했다.

“아이들은 늘 엄마가 기다려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하길 원하죠. 보호해 주고… 옆에 있는 엄마를 원하더라구요. 일을 쉬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고등학생 딸도 그렇게 바라는 편은 아니었고요, 작은 딸은 상심이 아주 컸죠. 엄마가 다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돌봄이 필요한 나이이기도 하구요. 집에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느끼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은 일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이었다. 친구들 대부분이 일을 하기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경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할 것을 지지해 주었다.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잠시 쉬었을 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저의 경제적 상황이나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이기도 했구요.”

157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도 높고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 가지 일을 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수입에만 비례해서 일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가 수명이 백세수명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6~70이면 여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회구조적으로 그게 안 되고 끊임없이 죽기 전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계속한다면 하고 싶은 일은 그동안 제가 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사회활동, 시민활동, 사회문제에 동참하는 일, 경제적인 것보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경제적인 것도 함께 충족 한다면 더 좋지만…”

40대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현재 먹고 사는 일은 어떤가?

현재는 남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가정경제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정의 소득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거나 여유로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다보니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적은 소득이라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미래의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저희 때만 해도 남편 잘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제가 맞벌이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현모양처라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생각했어요... IMF를 전후로 이제는 여성들도 취업을 해야 하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구요. 저도 가사와 양육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구요.”

158

“저는 신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신랑의 별이로는 하루하루 살기 바쁘고 미래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인간적으로 완전한 경제적 노후가 보장이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외벌이이기도 하고 온전하게 노후가 보장되기에는 아이도 키우고 학교 보내고 하다보면 얼마 정도의 저축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립의 의미는?

경제적 자립은 꼭 소득활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을 한다는 것,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만의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큰 의미이다. 경제적인 활동과 함께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하는 것. 심적인 부분이든, 경제적 부분이든 스스로 서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막연하기는 한데,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내적인 힘,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 소득활동을 해서 힘을 갖는 것...”

앞으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40대에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에 다시 진입해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결혼 전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경력단절이 된 시간이 얼마나 긴가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특히 사무기술이나 정보에 적응하기에 그동안의 시간만큼 어려움이 있다. 배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여전히 가사나 육아는 여성들의 책임이며, 적극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육아나 가사는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기 또한 그렇게 쉽지 않다. 근무 환경에 대한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많지 않으며,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사무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SNS 등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머리는 굳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한 시간이면 배울 것을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는 게 시급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기계를 다루거나 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구요. 가족적으로는 아이들의 양육이나 돌봄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랑이 좀 도와주기는 하지만 분담이라기보다는 너의 일을 해 준다는 의미로 하고 있구요. 아이들도 가사는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가족도 가사일을 분담하면 좋겠구요. 직장은 양육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 시설이 직장 안에만 있어도 일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구요. 확인만 가능하다면 일하는 엄마들이 느끼는 죄책감을 좀 덜할 것 같구요… 정책적으로는 가사나 출산 양육을 여성들의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말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

40대 전업주부!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을 겪고 다시 경제활동에 진입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오랜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구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다방면의 노력과 지원으로 만들어진 40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까?

사례 9

KWAU

여성장애인의 자립, 먹고 사는 이야기

윤가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60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 담론과 의제만들기 : ‘자립의 식탁’ 여성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어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요구, 자립의 의미와 조건, 경제적 실상은 어떤지, 자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고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각 유형별(시각, 청각, 뇌병변) 여성장애인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립의 요건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이 의제화 될 수 있도록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 시각장애인에겐 정말 절실했던 자립의 의미

(48세,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저는 2012년도 30대 중반에 황반변성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중도 장애인입니다. 처음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막막했고 나중에라도 가족들에게 혹여 짐이 되지 않을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가족들도 나로 인해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립이 절실했습니다.

장애로 인해 제가 하던 것들을 다 할 수 없게 되니까, 거의 5년 동안 칩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5년 동안에 경제활동을 딱 한 달 했었습니다. 언니가 “그렇

게까지 네가 마음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 가서 봐라.”하면서 파출부 용역센터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네가 잘 버티고 나오면 어딜 가도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또 시각장애인이지만 집안 살림을 계속 했었으니까, 한 번 해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니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남의 집을 갔을 때, 그게 굉장히, 어떤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를 입기 전에는 그런 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 상금도 받았었고, 별 거는 아니지만 학습지 선생을 하면서 상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내가 남에 집에 가서 고무장갑 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우리 집 살림도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라는 생각을 하니 심한 좌절감이 들고, 제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못 갖게 되었습니다. 기간으로는 한 달을 채웠지만, 하루에 한 집씩 5일을 했었는데 3주도 못 갔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알고 나서는 너 미쳤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무슨 짓이냐고 방방 뛰어서 그만 뒀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남편처럼 사무실에 가서 일을 했다면 저렇게 방방 뛰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든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다는 게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비장애인으로 사회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서 취업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점자를 배우고 점자 자격증을 따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땀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빛이 보였고 시각장애를 갖고 처음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애를 가졌을 때 굉장히 우울해 하는 모습만 보던 가족들은, 활기차게 변한 모습을 보며 나와서 활동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제활동은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부딪혀야 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첫 째는 제가 ‘여성’장애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자립이 힘들다는 걸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겠다고 노력할 때, 여성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사회 구조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장애인 사회는 물론이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시각여성장애인은 잘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조직 안에서 수용되고 융화가 잘되어 문제가 없습니다만 처음 직업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만이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이직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게 사회구조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이고 장애를 가졌다는 게 너무 큰 벽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지금도 자립을 꿈꾸고 있고 자립이 절실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하여 한마디 외치고 싶습니다.

여성 장애인,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일자리에 맞춰 투입하고자 할 때 여성과 장애인을 같이 묶지 말고,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유형에 걸맞은 편의제공이 필요하며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회구조적인 편견과 잘못된 인식들을 정말 확 뜯어 고쳐버리고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 주길 바랍니다.

○ 과연 경제적 자립이 무엇일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28세, 시민단체 활동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번 수입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고 저축도 하면서 짜임새에 맞게 잘 나눠서 쓰는 그 정도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중 막내로 언니들은 다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고 현재는 저와 부모님만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퇴직하시고 연세가 많아 소득활동은 하지 않고 계시지만 제가 벌고 있는 것으로 아직은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거나 가정의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번 돈이 아직까지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진 않으니깐요.

하지만 이제 곧 제 수입이 부모님과 생활하는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 날이 올 꺼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가족들한테 터치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줄곧 소득활동을 해왔고 잠깐 쉬다고 해도 제가 가만히 손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회사를 그만두면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배우고 싶었던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아직까진 제 소득이 집안의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립은, 이후에 제가 독립을 하든 결혼을 하게 되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부모님 신경 쓰이게 하는 것 없이 오로지 제 소득으로만 생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득으로만 생활 하려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일단 고용에 있어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자가 업무에 대해서 쪽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솔직히 그 면접을 보기 전에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가게 됩니다. 그걸 알고, 그 내용을 자기가 습득했으니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접자가 말하길 “그 전에는 비장애인이 했던 업무인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

봅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일이 힘을 많이 써야 해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단을 오른다거나 몸을 쓰는 일도 아닌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는 그런 편견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립이라기엔 거창하지만 혼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엔 제가 공부를 잘 해서 좋은 대학, 이름 있는 대학교를 들어갈 것도 아닌데 굳이 대학을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업을 했고 취업을 하니깐 수입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 많지는 않지만 용돈도 드리고 제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사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대학졸업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일 하면서 사이버대학에 진학해 공부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돈 나갈 일도 더 많아지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4

지금보다 더 괜찮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이 남으면 회화 등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하거나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디자인 쪽이어서 캘리그래피도 약간씩 배웠고, 그리고 제가 회계를 했었으니까 중간에 회계 자격증도 따겠다고 학원도 다녔었습니다. 구직시장에 나와서 면접을 볼 때 그래도 자격증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더 나오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의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결실이 되어 돌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것은 여성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장애인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취업사이트만 보더라도 비장애 여성들과 장애여성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구직 조건을 보면 급여하고 직종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직사이트조차 장애인 분들은 청소나 소일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에서는 여성이

라서의 문제보다 여성장애인이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큰 것 입니다.

제발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고 느리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에게도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0

KWAU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씩씩한 여성들

최현숙 (포항여성회 사무국장)

○ 딸들도 엄마가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50세, 지역자활센터 택배사업단)

응답자 A씨는 올해 50세로 10년 전 남편의 사업실패로 10년째 주말부부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두 명의 딸을 둔 엄마이다.

A씨는 자신을 자활센터 소속 **택배 사원으로 이일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되었다고 소개했다. 응답자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안의 맏딸로 부모님이 경영하는 슈퍼를 함께 맡아보면서 과외를 했다. 이때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은 여자도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결혼하고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에게 부탁하고 양해를 구해서 학원강사, 학습지, 과외를 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A씨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연고를 찾아 친정부모 곁으로 오면서 주말부부로 살아오고 있다.

친정부모 상가에서 동생과 체인점 빵가게 및 분식집을 운영했고 월수입이 삼백만원 이상이였다. 이때 남편의 사업실패로 생긴 수억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빚을 모두 갚자마자 남편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생활비도 조금씩 가져다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주도권을 자신

이 갖고 휘두르면 남편의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나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분식집을 접었다. 대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자활사업단에 관리일을 하게 되었다.

지금은 일이 많아서 밥을 따로 먹을 시간도 거의 없고, 월급도 백이십만원 정도로 적은 상태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다. 나이 50세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마트나 식당일이지 이렇게 사무직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남의 밑에서 일을 하지만 경험을 쌓고 배운다는 입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결혼 초,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주로 한 말은 ‘네가 벌어들인 얼마만큼 벌 수 있겠냐? 여자가 벌어들인 얼마나 벌어서 생활이 달라지겠냐? 그거 벌 바에는 애나 키우지 뭐 하러 다니느냐?’라는 말이었다. 그런 말을 듣기 않기 위해 살림도 똑 소리 나게 해야 되고 책잡힐 일을 만들어선 안 되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남편에 대해서도 ‘두고 봐라’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A씨가 즐겁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 남편도 밝은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지금은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부모님도 A씨가 일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시고 딸들도 엄마가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엄마의 자신감 있어 보이는 태도를 보고 딸들도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친구들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몸 생각해서 정도껏 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친구는 부러워하며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 좋다고 말해준다. 동료들은 서로 긍정적인 격려의 말을 주로 해주고 상사들은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A씨에게 감사하고 보배 같다는 말을 해준다.

그러나 남녀는 임금부터 많은 차이가 있어 여자가 먹고 살기에는 힘이 좀 든다는 생각이다. 솔직히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배가 되고, 여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남자가 한 번 버는 것 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다. 자신이 분식집에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빼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은 남편이 공사 한 건

으로 버는 돈의 반밖에 되지 못한다. A씨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우리나라가 여자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는 힘이 든다고 느낀다.

A씨에게 있어 경제적 자립은 지금의 월급 백이십만원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선에 닿아야지 자립했다고 느끼는데 지금의 경제활동으로는 그렇지 않다. 경제적 자립은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면 경제력 등 모든 것이 따르는 것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이 될 때 하고 싶은 일은 촌집을 구입해서 1층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2층이 아이들 갤러리를 만들고 3층은 가정집으로 짓고 싶다.

A씨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많이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씨는 분식집을 하면서도 미술심리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땀고 아쿠아 운동 등 이것저것을 했다. 자신이 나중에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A씨는 자신에 대한 투자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악회도 찾아 간다. 그런데 자활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만나보니 자신에 대한 투자나 힐링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 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자활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다.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정말 없다. A씨도 여기서 일하면서 자활센터가 있다는 것을 생전 처음 알았다.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서 알아보니 직업훈련원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야간 교육은 없었다. 기타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활에서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는 것에 취약해서 어디에 가야 정보를 얻고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모른다. 국가에서 교육이나 취업 등의 정보를 특정인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면 좋겠다.

○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빚을 갚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다

(50세, 전 지역자활센터 근무, 현 의류판매 매니저)

응답자 B씨는 50세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한 달 전부터 의류판매 매니저 일을 하고 있으며 남편과는 사별하고 두 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주이다. 남편은 2008년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없어 찾아도 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고, 3년 전 시댁에서 위독하다는 소식과 3일 뒤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두 딸과 모자원에서 살고 있다.

2003년도에 남편의 사업이 부도난 후 주식 등으로 4억 정도 부채를 안게 되었다. 그 전에는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먹고살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다. 남편은 부도 후 6년 정도 폐인처럼 술로 살았다. 이후 13년 정도 빚쟁이들에게 빚을 갚으며 살았다. 파산신고라는 것도 모르고 빚을 갚으며 먹고 사는 데 급급했다. 이후 파산신고에 대해 알아보니 그것도 비용이 든다고 해서 하지 못했었다.

남편 사망이후 한 부모가정이 되니 모자원에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자활에서는 받는 월급 팔십만원은 월급이라기보다 봉사 수준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적은 금액은 또 아니었다. 자활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활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12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조금 적어도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상사 눈치 보는 일 없으니 마음 편하고 쉽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일을 지속했다. 그러나 빚을 갚아나가기에 월급이 너무 적어 결국 한 달 전부터 자활을 나와 일반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판매일은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시작해 약 30년 경력정도 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 불편함은 없으나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월급이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자활일을 하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러 아파트에 찾아가면 여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시선을 던지고 그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이 불편했었다. 또 재활용 매장에 왔을 때 여자매니저가 있으면 이런저런 싫은 말을 하며 환불

을 요구했다. 자활에서 매장을 얻어 오픈준비로 여자들 다섯 명이 푹푹거리며 일을 하니 주변에서 아저씨들이 술에 취해서는 ‘저거 사회에서 뭐 해준다. 시에서 다 해주는데, 저거 다 공짜로 한다’ 등의 말로 시비를 건 적이 있었다. 이후에 남자 복지사가 매장에서 술 취한 아저씨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한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성격이 활동적이고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또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일하는 것이 재밌었다. 그런데 남편이 부도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즐거움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 그래도 아이들 입에 맛있는 거라도 많이 넣어주면 그나마 행복할 텐데, 100만원 벌면 거의 80만원을 빚쟁이들이 뜯어가기 바쁘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취당하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서도 우리 여자들은 또 엄마니까, 강하게 살아야 한다.

170

결혼 후 남편은 대학진학을 권유하는 등 B씨의 경제활동에 매우 지지적이었고 시댁 또한 여자들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어 부정적인 반응이 없었다. 친정부모님께서도 B씨가 출산 후 직업을 가지려고 했으면 자처해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을 것이다. 남편 부도이후 일을 하면서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 두지 않은 것이 많이 아쉬웠다.

B씨는 지금 너무 절실하게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데 친구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활동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부인데 남편이 모르는 빚이 많아 일이 필요한 친구들은 자신에게 알바나 취업정도를 물어오는 경우도 있다.

40, 50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 식당밖에 없다. 그나마 경력이 있어 옷 판매 등의 서비스 일을 하면 근무시간이 너무 길다. 나이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8시 정도 퇴근하는 곳만 있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지만 그런 일자리는 없다. 친구들이 일자리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일자리도 잘 없고, 또 일자리가 있어 정보를 주면 경험이 없어 새롭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겁이 나서 못한다. 12시간씩 일하지 않고 8시간 정도만 일하면서 먹고살 수 있는, 여자들

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립이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B씨의 절실한 목적은 빚을 갚는 것이다. 어제는 13년 만에 파산신고 결정을 하고 서류준비를 위해 법률사무소도 다녀왔다. 먹고 살기도 뻑뻑해 미뤄왔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다. 빚이니 갚아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갚았는데 원금은 줄지 않고 계속 이자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면 딸 둘 데리고 그냥 차타고 놀러 다니고 싶다. 아무 것도 안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몇 박 며칠이든,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놀러 다니고 싶다. 그 동안 수십 년간 머릿속에 박혀있었던 것을 하고 싶다.

사례 11

KWAU

의미 있는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40대 여성들

김선희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남편이 대기업 다녀도 빚을 갚아야 해서 어려워요

(41세, 주부이면서 교육강사)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72

41세 주부이고,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 고양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강사로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다 아이 낳고 잠깐 쉬었다 다시 일했었어요. 그러다 2008년에 일을 관두고 경력단절로 있다가 다시 일하게 됐어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소득활동하고 있지요.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제가 하는 소득활동은 강사죠. 성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가끔 상담소나 민우회에서 나오는 활동비가 소득활동의 전부고 정해진 시간이나 급료는 없고 한 달에 강의가 없는 때도 있으니까 대략 3,40만원 정도 되네요. 왔다갔다 기름값 하고 밥 먹고 다른 거 하면 그걸 소득활동이라 해야 하는지... 노동환경도 열악하지만 시설적·제도적 환경이 아니라 우선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페이가 고정적이지 않고 비전도 확실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힘들죠.

그 동안의 경제활동 경험은 어떠셨나요?

저는 마트에서 일했는데 큰 마트가 아니라 슈퍼마켓이요. 거기 보편은 축산담당, 공산, 수산, 가공, 생활잡화 델리카가 있어요. 치킨, 튀김, 김밥, 초밥, 반찬 파는 데였죠. 작업장에 일하시는 여사님들 열분 모시고 작업 지시하는 영업담당을 5년 정도 했어요. 처음에는 롯데마트 사무직 직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저한테는 영업적인 부분이 잘 맞았어요. 제가 그 일을 시작한 게 아이 낳고 돌쯤 지나서였는데 남편하고 헤어질까 생각하면서였어요. 시어머니랑 너무 안 맞았는데 남편이 나는 시어머니 편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너랑은 못살겠다, 헤어질 마음에 직장을 잡은 거예요. 경제적 자립이 안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시어머니가 봐주셨는데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직장생활하니 까 네 월급에서 쥐라 하셔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에다... 그 때 월급이 2백 얼마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자존심 때문에 오랫동안 버텼어요. 굉장히 바쁜 업무라서 시간이 금방금방 갔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델리카 코너가 전국에 있어 지방에도 가야했는데 전농동, 여의도동, 연수동, 신내, 연신내 여기저기로 돌리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너무 힘들어지고 가정도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 자립도 더 안 되고 아이도 자주 못 보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아이가 학교 입학하면서 그만뒀어요.

처음에 직장을 잡을 때 정규직이 아닌 알바를 잡았어요.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애를 낳고 마트에 일하다가 민우회활동을 하다보니까 나이가 들었죠. 알바할 때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그 때나 지금이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한테 뒤쳐진다는 열등감이 있어요. 40대중반의 남편은 뭔가 번듯함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보면서 바쁘고 힘들게는 살았는데 뭐 남는 게 없네.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반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회의감이 들고, 그러니까 때려치우고, 환경도 나한테 받쳐주지 않고, 새로 코너를 만들면 경력자가 가서 레시피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만 일했는데 지방으로 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제 성격이 남편한테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어서 뭐 만날 바쁘게 다니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니? 별 얘기는 안 하지만 나가서 돈 좀 벌어와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의 경제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훌륭하다, 멋지다, 집에서 노느니 뭐 하냐, 좋은 일 한다하는데 경제적 상황을 아는 친구들은 “너네 어렵잖아. 할 일이 많은데 나가서 돈 벌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지지해주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팔자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구직 과정에서 최근 몇 년에 많이 들은 말은 아이에 대한 거예요. 아이가 몇 학년이나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느냐 확인하는 거죠. 퇴근은 몇 시에 해야 하나, 밖의 일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근해서 늦게 들어가면 남편은 괜찮냐. 괜찮지 않으면 안 뽑는 거죠. 어떤 곳은 차가 있느냐? 그런 걸 물어봐요. 차 몰고 다니는 여성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기동력이나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차량을 소유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옛날에 직장생활을 하셨지만 지금은 초임부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어디가나 해요.

174

만약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강사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 이걸 하고 싶어요. 만약 강사가 아니면 장사를 하고 싶기도 해요. 백반집. 고급스러운 거 말고 노동자들이나 일반서민들이 편하게 와서 푸짐하게 먹고 갈수 있는 장사를 하고 싶어요. 유통에서 서비스직이 좋아요. 마트에서 방송도 하고 판매도 하고 사람 사귀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성이기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돈을 벌고 세 식구밖에 안되는데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우선 빚이 있고 그 빚을 월급하고 같이 갚아나가면서 아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양가 부모님 도와드려야 하니까 유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성의

소득활동이 있어야하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남편한테 미안하죠. 나도 노동력이 있는데 남편한테만 노동을 요구하는 거 같아서 그건 평등하지가 않잖아요.

본인에게 경제적 자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남자 혼자 벌어서는 웬만한 직장이 아니고서야, 우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헤어져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거죠. 나중에 정말로 자유롭고 싶고 여행을 다니고 싶고 모든 살림살이에서 손을 떼고 날 위한 일만 하고 싶은 시점이 왔을 때 당당하지 못할까봐 추접스러운 솔로가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나중에 이 사람하고 분리가 되려고 할 때 이 남자가 빛이 있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빛을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은데 지금 상황으로 지속된다면 별로 희망이 크지 않은 거죠. 나아질 거라는. 집을 팔기 전까지는.

175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나대신 서로 서로 돌보는, 우리 딸이 강아지를 돌본다든가 남편이 딸이 돌본다거나. 우리 남편은 집안일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그건 남편이 준비를 안 하는 건지 내가 준비시키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직장 측면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일을 못 할 거라는 편견, 실제로는 잘 할 수 있잖아요. 사회 초년생 보다는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아줌마들은 일을 못 할 거라는 편견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걸 개선하는 문화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훨씬 노련할 것이고 대인관계 잘할 것이고 눈치 빠를 것이고 살면서 얻는 노하우가 직장생활의 노하우가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몇 번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그 얘기를 꼭 썼었어요. 나아가 중년의 여성들이 일 못할 거라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문화운동으로 가야하고 장기적인 정책목표로 가야하는 거죠. 생각해본 적 있는데 업종별로 최소 성비를 맞추어라. 법률

로 안 되면 조레라도. 최소 성비를 정해놓는 거죠. 마트도 세분화해서 만들 필요도 있죠.

○ **자영업으로 파산 선고, 지금은 소통하기 위해 돈 벌어**

(40대, 지역포털 운영)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딸이 있고, 내 인생에서 지금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 그리고 남편과 지금 같이 살고 있고요. 남편은 개성공단에 물류 한 파트를 책임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에서는 파주사랑이라는 지역포털을 친구와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파주를 사랑하는 만큼 파주를 알아서 답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는 일을 하고 싶어 시작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커서 2년 반째 하고 있지만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176

그동안의 소득활동과 관련하여 좀 더 말씀해주세요.

지금은 이게 제가 밥벌이로 하고 있는 메인 일이에요. 파주에서 활동하는 일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보고 뭐하냐고 그래요. 여러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하는 직업은 지역포털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의 홍보를 돕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부분의 커미션을 가지고 이를 소득화시키는 일이에요. 이 일이 저희 집 가정경제를 다 책임질 만큼은 아니다보니 장사도 병행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17년 동안 흥천역 앞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했었거든요. 17년 동안 닭갈비집만 한 건 아니고 그 17년 안에는 영업직이 너무 궁금해서 자동차 딜러를 해 볼까, 세일을 해볼까 해서 보험회사를 갔어요. 그 때는 30대였네요. 3년을 다니면서 보험세일을 했죠.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가게도 하고 있었고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 파주에서 태어나 계속 있었기 때문에 파주 지인들이 많았

거든요. 근데 일에 회의를 느끼면서 과감하게 보험회사를 나왔고 한참동안 가게에만 집중했죠. 닭갈비집의 수입은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조류독감이 왔어요. 조류독감이 3년째 왔죠. 지금 메르스처럼. 텔레비전에 온통 우리나라에 있는 닭은 쓰레기처럼 취급이 돼서 다 매몰을 시켰죠. 20만이 죽니 30만이 죽니 아침 눈 뜨면서 눈 감는 시간까지 온통 닭을 땅속에 묻는 것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80평 규모의 닭갈비집이었는데 손님이 하루에 한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때 사람을 빨리 정리하지 못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월세가 150나가고 전기세가 120나가고 인건비가 나가고 한 6개월 이상을 카드서비스 받고 하다보니까 부채가 확 늘었죠. 6개월 정도 지나 마스크에서 잠잠해지고 좀 장사가 될 만하면 다음해 그 무렵에 또 조류독감이 오고, 3년째 연속해서. 그게 채무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마지막에 닭갈비 털 때는 이자만 한 달에 천만원을 냈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1년 동안 파산절차 들어가서 1년 후에 파산선고가 나고, 그러면서 다시 경제활동을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산속에서 살았어요. 월세도 없어서 후배네 집에 얹혀서 지내고 우리 애들 교통비가 없으면 나와서 식당일을 했었으니까. 의욕이 없었을 때는 밤에 순댓국집에 야간 일을 해서 180만원인가 받았는데 180만원을 3개월 벌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교통비만 주고 일 안하고 놀았어요. 사회에 다시 나온 거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문에 나왔어요. 새벽에 파주에서 선거운동을 했죠. 대통령선거 끝나고 파주사랑이라는 지역포털을 운영하는데 가서 영업을 해보겠다고 쫓아갔어요. 그렇게 파주사랑 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소득활동을 하게 된 거죠.

파산절차에 들어갔을 때의 은행권과 제3금융권 등 공적인 건 다 파산처리에 넣지만 지금도 개인적으로 진 빚은 가지고 있어요. 갚는 절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남편이 월급을 220만원 정도 가져 오는데,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빌린 70만원 갚고 월세가 36만원이 나가고 이자 한 15만원 나가면 우리가 쓰는 돈이 40만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걸어 다녀요. 교통비를 절약하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자치활동하면서 100만원 더 버는 거는 쓰고 싶어서 버는 거예요. 같이 쓰고 싶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한 번에 세 명이서 막걸리 값을 5만원 낸다 치면 몇 번을 먹을 수 있지 생각해보니 한 달에 20번은 누군가에게 술을 살 수 있더라고요. 100만원 더 벌고 싶은 거는 누군가에게 막걸리를 나눌 수 있는 20번을 제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한 달에 20번을 낮에 밥 먹자고 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수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정보화 사회에서의 일들은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유통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체가 되리라고 봐요. 옛날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주체였다면 이제는 유통시장이거든요. 유통시장은 여성들이 80%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문제죠. 저는 유통으로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하려고 해요. 생협이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생협이 직업이 되는 것까진 연구가 안됐잖아요. 열정페이도 많이 소요되는 구조였거든요. 우리 소비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우리가 경제활동 구조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여성들이 유통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다고 봐요.